

位置言語學과 統辭論

——形態的 分析論과 統辭的 非分析論의 區分의 問題를 中心으로——

朴 亨 達

(言語學科 教授)

내 용 순 서

- 位置言語學의 개념 : pp. 176-181.
0. 傳統言語學과 脫傳統言語學에서의 位置 개념 : pp. 176-177.
 0. 脫傳統言語學으로서의 G. (UILLAUME)식 表記(=그림 표시)의 내용 : pp. 176-181.
 - 1) 時相(aspect)表記 : pp. 177-178.
 - 2) 法(mode)表記 : p. 178.
 - 3) 時制(temps) 表記(그림 1 및 그림 2) : pp. 179-181.
 - G.식 表記의 비판(=위 G.식 表記의 특징의 分析) : pp. 181-189.
 - 1) 어휘 중심적 특징 : p. 181.
 - 2) 이 특징의 公式化(=첫째 公式과 둘째 公式) : pp. 181-186.
 - 3) 그림 3 설명 : pp. 186-189.
 0. G.식(어휘위주의) 表記와 그에 대립되는 초월식(형태위주의) 表記의 비교 : pp. 189-193.
 - 1) 公式에 의한 비교 : pp. 189-193.
 - 2) 그림에 의한 비교(그림 3 및 그림 4) : p. 193.
 0. 傳統言語學식 表記 : pp. 193-196.
 - 1) 그림에 의한 설명(그림 5) : p. 193.
 - 2) 公式에 의한 설명 : pp. 193-196.
 0. 1) 식(어휘위주의) 傳統言語學식(=G.식) 表記와 그에 대립되는 3)식(형태위주의) 초월적・脫傳統言語學적 表記의 비교 : pp. 196-226.
 - 1) 그림에 의한 비교 : pp. 196-197.
 - 2) 傳統言語學식 表記의 公式化 : pp. 197-199.
 - 3) 종합적 그림에 의한 비교 : pp. 199-201.
 - 4) 세 表記의 公式에 의한 종합적 비교(主觀적 = 分析적 임을 主張하는 公式과 客觀적 = 分析적 公式) : pp. 201-202.
 - 5) 세 表記의 對角線 그림에 의한 비교 : pp. 202-205.
 - 6) 위 對角線 그림의 비교에 대한 설명 : pp. 205-212.
 - 7) 세 表記의 그림상으로의 반영의 비교 : (分析적 임을 主張하는) 그림 3/그림 5;(分析적) 그림 4;(非分析적 임을 認定하는) 그림 7/그림 8 : pp. 212-216.
 - 8) 통일적 그림에 의한 비교 : (分析적 임을 主張하는) 그림 11/그림 13; (分析적) 그림 9; (非分析적 임을 認定하는) 그림 10/그림 12 : pp. 216-224.
 - 9) 위 8)의 설명 : pp. 224-226.
- V(ALIN)의 統辭論 비판 : pp. 226-236.
0. V.의 統辭論의 정의 및 그 정의의 파악 : pp. 226-228.
0. 위 統辭論을 主觀적 表記(=主張하는 表記)로서 파악함 : pp. 228-232.
0. V.의 “문장적 심리운동(=내재적 통사론=主)→논리적 공존(=초월적 통사론=動)→표현적 심리운동(=이중 초월적 통사론=目)”의 表記의 문제 및 그 문제의 파악 : pp. 232-233.
0. 위 문제를 主觀적 表記(=主張하는 表記)로서 파악함 : pp. 233.
0. V.의 그림을 사용한 ‘통일된 그림’에 의한 비교 고찰 : pp. 233-236.
 - 1) (分析적 임을 主張하는) 그림 14 : p. 234.
 - 2) (非分析적 임을 認定하는) 그림 15 : p. 235.
 - 3) (分析적) 그림 16 : p. 236.

位置言語學(linguistique de position; positional linguistics)이라는 개념은, Gustave GUILLAUME(1883~1960)이 그의 저서 時制와 動詞(Temps et verbe: 1929 p. 10 이하 참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이 간추려질 수 있다:

○ 어휘적인 質料(matière; notion)는 문법적인 形態(forme)와 共存한다;

○ 그 共存은 단순한 첨가적인 성격을 띤 어휘+형태라는 共存이 아니라, 1)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와 어휘의 共存과 2) 그와 반대로, 형태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와 어휘의 共存을 아울러 포함하는 그러한 共存이다. 이 1)과 2)의 共存은 그 力點(=強調)을 두는 位置가 각각 바뀐, 相互拒否적 共存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3) 즉 1)과 2)의 相互拒否적 (어휘와 형태의) 共存을 上位로 한 下位적인 (어휘와 형태의) 共存이 있다. 이것은 1)과 2)의 相互拒否性이 완화(둔화)된 (어휘와 형태의) 共存으로서, 1)과 2)의 並置적 共存이다.

○ 위 1)과 2)의 相互拒否적 (어휘와 형태의) 共存과 3)의 (어휘와) 형태의 並置적 共存은, 각각, 자기의 位置를 지키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란,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와 어휘의 共存 즉, 가장 포괄적(=최대의) 一致를 보이는 형태(=一般=추상)와 어휘(特殊=구체)의 共存에서, 형태(=一般=추상)가 어휘(=特殊=구체)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최대의 일치적) 성격(=位置)을 말하며, 2)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란, 1)의 경우와는 반대로, 형태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와 어휘의 共存 즉, 1)의 “가장 포괄적(=최대의) 一致를 보이는 형태(=一般=추상)와 어휘(特殊=구체)의 共存”에 의해서 포괄되는 共存, 따라서, 1)의 경우와는 반대로, 어휘(=特殊=구체)가 형태(=一般=추상)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최대의 일치적) 성격(=位置)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3)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란, 포괄—피포괄(相互拒否) 관계의 1)과 2)의 최대의 一致의 완화(둔화)된 一致 즉 並置(共存)에서의, 형태가 어휘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최대의 일치적=並置적) 성격(=位置)을 말한다.

○ 위 1), 2), 3), 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특징짓는 力點(=強調)/非力點(=非強調)의 異(逆)方向性은, 오직 어휘적인 의미에만 力點(=強調)을 두고, 형태가 거기에 첨가된 것으로 보는 傳統言語學의 관점 즉 구체적 사실로서의 어휘적인 의미에 모든 설명의 근거를 두는 관점에서의, 等方向적 位置개념과는 대립되는, 異(逆)方向적 心理적 力點(=強調)非力點(=非強調)적 位置개념이다.

○ 다시 말하면 傳統言語學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개념이 오직 어휘적인 의미에만 力點(=強調)을 둔다는 의미에서의 형태와 어휘의 等方向적 共存位置개념임에 대하여, 脫傳統言語學으로서의 G.의(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개념은, 일차적으로 형태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개념이며, 이 형태적 位置개념이 곧 心理적 位置개념으로서, 傳統言語學의 어휘적 位置개념 곧 非心理적(=구체적 사실적) 位

置개념과 구별된다.

○ 아래에 위에서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개념에 관하여 간추린 바를,
G.식 表記(=그림 표시)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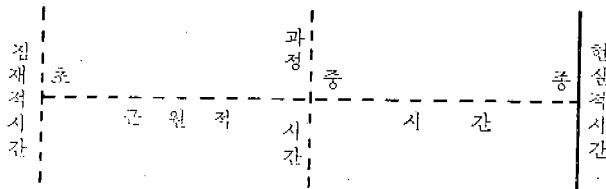


그림 1: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개념을 나타내는 G.식 表記(=그림 표시)

그림 설명: 위 그림에서 첫째로: 水平의 橫線=근원적 시간이란,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개념의 가장 근원이 되는 형태(=시간)적 位置개념(*위 간추림項 참조)을 말한다. 둘째로: 그 水平의 橫線(=근원적 형태(=시간)적 位置개념)에 대하여 세로로 그 어진 초/중/종 位置에서의 잠재적 시간/파정 시간/현실적 시간이란, 각각, 첫째로: 어휘(=잠재적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어휘內적 형태(=잠재적 시간)와 어휘(=잠재적 어휘)의 共存位置, 즉 초의 位置에서의 잠재적 시간을, 그리고 그와 異(逆)方向으로 어휘外적 형태(=<잠재적 시간에 비해서> 과정적 시간)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잠재적 시간에 비해서> 과정적 시간)와 어휘(=<잠재적 어휘에 비해서> 과정적 어휘)의 共存位置, 즉 중의 位置에서의 과정적 시간을 나타내고, 이를 두 초 및 종의 位置는 相互拒否적(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나타낸다(*위 간추림項 참조). 둘째로: 이를 초 및 종의 位置가 갖는相互拒否性이 완화(둔화)된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가 곧 종의 位置, 즉 현실적 시간의 位置이다. 이 현실적 시간의 位置는, 초와 중 位置 각각의 力點(=強調)項끼리를 並置시키고, 非力點(=非強調)項끼리를 並置시켜서 된 (어휘와 형태의) 並置적 共存의 位置이다(*즉 초 位置의 力點項=형태=잠재적 시간과 종의 位置에서의 力點項=어휘=<잠재적 어휘에 비해서> 과정적 어휘의 並置와, 초의 位置의 非力點項=어휘=잠재적 어휘와 종의 位置에서의 非力點項=형태=<잠재적 시간에 비해서> 과정적 시간의 並置로 된, (어휘와 형태의) 並置적(=현실적) 共存位置이다).

요컨대, 위 그림 1에서 세로로 그어진 초/중/종 位置는, 모두, 어휘를 위주로 하여 생각한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 즉 다시 말하면 어휘의 성격(=位置)을 나타낸다.

위 그림을 더 구체적으로, 時相(aspect), 法(mode), 時制(tempus)의 예로써 그들 각각을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적 位置개념으로 나타낸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그림 설명: 아래 그림의 水平線 세 개중에서 가운데의 水平線(*앞의 그림 1의 근원적 시간에 해당함)이, 時相(aspect)에 해당한다. 앞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개념의 가장 근원이 되는 형태(=시간)적 位置개념(*위 간추림項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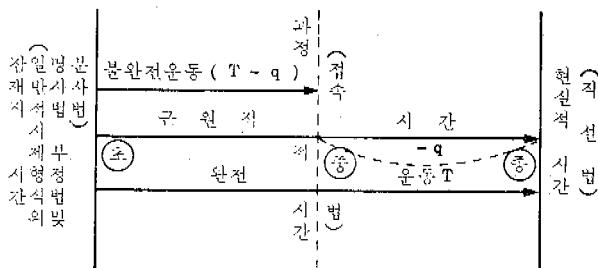


그림 2: 時相(aspect), 法(mode), 時制(tempo)墨,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개념으로 나타낸 G.식 表記(=그림 표시)

조)이다. 이 때 어휘는 초의 위치의 세로의 원편 첫 수직선=일반적 시제를 나타내는 명사법, 즉 부정법(예: marcher, work)의 어휘(march, work)가 되고, 형태는 위의 어휘(=일반적 개념의 어휘)에(가) 力點(=強調)을 둔(포괄하는) 일반적(=추상적) 시간(-er, -ant, -é; -φ, -ing, -ed)이 된다. *주의할 일은 여기서 형태가 어디까지나 어휘에(가) 力點(=強調)을 두고서(포괄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의할 일은, 時相(aspect), 法(mode), 時制(tempo)라는 사실을(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개념으로 나타낸 이 G.식表記(=그림 표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형태에(가) 力點(=強調)을 둔(포괄하는)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개념의 定立에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G.의 궁극의 목표와 그 목표를 넘두에 둔 실제의 表記(=그림 표시) 사이에 차질이 있음을 발견한다. 이 차질을 극복 내지 해소하고, 궁극의 목표와, 그것의 表記(=그림 표시) 사이에 그 본연의 一致가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G.식 表記(=그림 표시)를 바라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 맨 위의 水平線 즉 中位置의 세로의 과정적 시간(=그 세로의 수직선에 이르는 가로의 수평선에다 표시해야 할 것을 그렇게 표시한 것. 따라서 과정적 형태), 즉 그것(=과정적 형태)을 뒤로 한, 세로의 과정적 어휘(원래 이렇게 표시해야 할 것을 과정적 시간 즉 과정적 형태로 표시된 것)이 곧 法(mode)에 해당한다.

* 여기서 거듭 주장할 일은, 어휘에 해당하는 中의 위치의 수직선과 그와 共存하는 형태에 해당하는 中에 이르는 水平線의 共存位置는, 앞의 초의 위치에 있어서와 같이, 어휘=中의 위치의 수직선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中에 이르는 水平線=형태와의 共存位置라는 점이다. 이 共存位置를 法(mode)이라고 부르고 위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앞의 초의 위치에 있어서의 수직선=어휘=잠재적 어휘와 거기에 力點(=強調)을 두고 거기서 출발하여 종의 위치의 수직선=현실적 시간에 이르는 수평선=형태=잠재적 어휘에 內在하는 잠재적 형태와 수직선=잠재적 어휘의 共存位置를 時相(aspect)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수직선=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수평선=형태와의 共存位置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中位置의 수직선=어휘로서의 法(mode)의 예는, 접속법(il est possible qu'il vienne <그가 올 가능성이 있다>)에서의 主觀적 基準의 미로서의 <가능성이 있다>(il est possible)이고, 형태는 위의 主觀적 基準의 미에 力點(=強調)을 둔, 主觀적(=과정적)시간 즉 형태(qu'il vienne의 vienne)이다. 아

예 **主觀적 요소**(=과정적 어휘 : il est possible)는, **초** 위치에서의 **一般적 요소**(=잠재적 어휘=명사법적 어휘 : march-, work-)나 마찬가지로, 그들 각각과 共存하는 형태 즉 접속법적 형태(=과정적 시간 : qu'il vienne의 vienne) 및 명사법적 형태(=잠재적 시간 : marcher, marchant, marché; work, working, worked에서의 -cr, -ant, -é; -φ, -ing, -ed)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支配하는 力點(=強調적 位置)을 점한다.

앞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는, 위의 時相(aspect)에 해당하는 초의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와는 異(逆)方向적으로, 어휘外적 형태(=<잠재적 시간에 비해서> 과정적 시간) 즉 어휘(=<잠재적 어휘에 비해서> 과정적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어휘)과 형태(=<잠재적 형태에 비해서> 과정적 형태)의 共存位置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를 두 초 및 中의 位置는 相互拒否적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들 초 및 中의 位置가 갖는 相互拒否性이 완화(둔화)된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가 곧 종의 位置 즉 현실적 시간으로서의 時制(tempus)의 位置에 해당한다. 위 그림 2에서 세개의 水平線중 밤 밑의 초에서 종에 이르는 수직선이 時制(tempus)에 해당한다. 이 때, 어휘에 해당하는 종의 位置의 수직선과 형태에 해당하는 초에서 종에 이르는 水平線과의 共存position은, 초 및 中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어휘=종 位置의 수직선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초 位置에서 종 位置에 이르는) 水平線=형태와의 共存position이다. 다시 되풀이하면, 相互拒否관계에 있는, 초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과 中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의 異(逆)direction적 相互拒否성이 완화(둔화)된, 초 位置와 中 位置의 (어휘와 형태의=力點項과 非力點項의) 並置적 共存position(=力點項끼리를 並置시키고, 非力點項끼리를 並置시켜서 된 並置적 共存position)가 곧 현실적 시간으로서의 時制(tempus)의 位置이다. 즉 相互拒否관계에 있는 時相(aspect)과 法(mode)의 相互拒否성이 완화(둔화)된, 時相(aspect)과 法(mode)의 並置적 共存position가 곧 時制(tempus)의 位置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時相(aspect)과 法(mode)이라는 개념이 모두,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형태와의 共存position 개념인 것과 마찬가지로, 時制(tempus)라는 개념도 또한 어휘(=<時相적/法적 어휘에 비해서> 時制적=현실적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형태(=<時相적/法적 형태에 비해서> 時制적=현실적 형태)와의 並置적 共存position 개념이다.

時制(tempus)적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에서의 어휘의 예는 **직설법**(il est certain qu'il viendra <그가 올 것이 확실하다>)에서의 基準의미로서의 客觀적 의미(il est certain <확실하다>)이고, 형태는 위의 基準의미로서의 客觀적 의미에 (와) 力點(=強調)을 둔(一致하는) 客觀적(=현실적) 시간, 즉 형태(qu'il viendra의 viendra)이다. 이 때 **客觀적 요소**(=현실적 어휘 : il est certain)는, 相互拒否관계(=相互區分관계=分析관계)에 있는 초와 中 각각의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異(逆)direction적 共存position을 지배하는 力點(=強調)적 位置, 즉

초의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지배하는 力點(=強調) 位置=一般적/主觀 φ 적 요소(=잠재적 어휘=명사법적 어휘 : march-; work-)와 中의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을 지배하는 力點(=強調) 位置=主觀有적 요소(=경과적 어휘=접속법적 어휘 : il est possible qu'il vienne의 il est possible)의相互拒否性(=相互區分性=分析性)이 완화(둔화)된 종의 位置에서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position을 지배하는 並置적(=非分析적=현실적=客觀적) 力點(=強調) 位置로서의 어휘(il est certain)이다.

이상이 위 그림 2에 대한 앞 그림 1의 설명의 기계적인 되풀이이다.

요컨대, 위 그림 1에서 수직으로 그어진 초/中/종 位置(=어휘적 位置)에 해당하는 時相(aspect)/法(mode)/時制(tempo)는, 그 각각의 位置에서의 수평선=형태를 위주로 한, 그것과 수직인 어휘와의 共存position가 아니라, 수직=어휘를 위주로 한, 그것과 수평=형태와의 共存position을 나타내고 있다. 수직인 어휘를 매듭이라 하고 수평=형태를 非매듭이다. 할 때, 매듭=어휘와 非매듭=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position를 나타내는 이 G식 表記(=그림 표시)는, 非매듭=형태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매듭=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position가 아니라, 매듭=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非매듭=형태와의 異(逆)方向적 共存position을 나타내는 表記(=그림 표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면 위 그림 2를 직접 토대로 하여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림 상으로는 맨 밑의 水平線에만 나타나 있는 T(tension)(張力)은 어휘와 그에 內在하는 張力=어휘(=φ적/잠재적 어휘)가 그에 內在하는 形태φ/잠재적 形태를 포괄할 수 있는 능력=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形태 φ와 어휘(=φ적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position(*앞 그림 1과 관련된 설명 및 그 앞의 간추립項 참조)로 잡을 수 있다. 이 T가(그림 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림 1의 세개의 水平線중에서 두번째의 水平線의 출발점이 되는 초位置의 수직선(=위 그림 상으로는 잠재적 시간)에 해당한다. 즉 이 두번째의 水平線의 출발점이 되는 수직선(=그림 상으로는 잠재적 시간)(T)는, 사실상으로는, 어휘(=잠재적 어휘=명사법적 어휘 : march-; work-)에 力點(=強調)을 둔, 어휘에 內在하는 形태(零)(=어휘에 內在하는 것으로 본 명사법적 形태 : -er, -ant, -é; -φ, -ing, -ed)이다. 따라서 水平線은, 어휘에 內在하는 形태(有)(=명사법적 形태 : -er, -ant, -é; -φ, -ing, -ed)이다. 즉 (어휘와 形태의) 共存position을支配하는 力點(=強調)項을 언제나 어휘에 둔 表記(=그림 표시)가 곧 수직선(T)(=그림 상으로는 잠재적 시간=形態零(=수직선(T)와 一致하는 것으로 본 수평선=잠재적 명사법적 形태 : -er, -ant, -é; -φ, -ing, -ed)과 水平線(=形態有=명사법적 形태 : -er, -ant, -é; -φ, -ing, -ed)의 共存position의 表記(=그림 표시) 내용이다.

다음으로, 위 그림 2의 맨위의 水平線과 中位置의 수직선의 共存으로 된, 불완전운동(T-q)에 대해서: —이것은 초position의 수직선과 두번째의 水平線의 共存이 나타내는 완전운동(그림 상으로는 맨 밑의 水平線에만 나타나 있음)과 구별된다. 완전운동이 (어휘와 形태의) 완전한 一致라면, 불완전 운동은 초position의 그와 반대로 (어휘와 形태의) 불완전한 一致이다. 이 완전/불완전(—한 어휘와 形태의 一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어휘와 形

태의) 共存位置를 支配하는 力點(=強調) 位置의 다름에 있다.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支配하는 力點(=強調) 位置는 완전/불완전의 두 경우에서 모두 어휘적이다. 즉 초의 位置에 있어서의 어휘는 그 位置에서의 수직선(=명사법적=형태 φ적 어휘 : march-; work-)이고, 중의 位置에 있어서의 어휘는 그 位置에서의 수직선(=접속법적 어휘=형태有적 어휘 : il est possible qu'il vienne <그가 올 가능성이 있다>에서의 <가능성이 있다> (il est possible))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휘란 量(quantum)으로 쟁 수 있는(量에 力點을 둔) 量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완전/불완전(—한 어휘와 형태의 一致)의 차이는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의 차이다. 그런데 이 차이는 단순한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의 차이가 아니라,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언제나 支配하는 力點位置(=力點項)로서의 (量적 개념의) 어휘의 차이다(*주의 : 이 量적 개념은 따라서, 형태에도 해당된다). 즉 (어휘와 형태의 완전한 一致=완전한 共存位置로서의) 완전운동이란 : 초의 位置의 수직선(T : *주의 : 그림상으로는 안 나타났음)(=量적 개념으로서의 명사법적 어휘 : march-; work-)의(에) 支配를 받는(力點 <強調>을 둔), 수직선(=*위와 같음)과 水平線(=量적 개념으로서의 명사법적 形태 φ=잠재₁적 명사법적 형태 : -er, -ant, -é, -φ, -ing, -ed와 形태 有=잠재₂적 명사법적 형태 : -er, -ant, -é, -φ, -ing, -ed)의 (완전한) 共存位置를 말한다. 반면에, (어휘와 형태의 불완전한 一致=불완전한 共存位置로서의) 불완전 운동중이란 : 중의 位置의 수직선(T-q)(=위 초의 位置에서의 수직선(T)보다 量(quantum)이 덜한(-) 접속법적 어휘 : il est possible qu'il vienne <그가 올 가능성이 있다>에서의 <가능성이 있다> (il est possible)의(에) 支配를 받는(力點 <強調>을 둔), 수직선(=*위와 같음)과 水平線(=量적 개념으로서의 접속법적 (잠재₁적 形태 φ : il est possible qu'il vienne에서 qu'il vienne의 vienne를 잠재적 접속법적 형태로 본 vienne와 접속법적 形태有 : 위의 vienne를 실현적=잠재₂적, 접속법적 형태로 본 vienne)의 共存位置를 말한다.

위에서 설명한 (어휘와 형태의) 두 共存位置를 편의상 그 첫째를 (T)(=위 그림 2의 초 位置의 수직선과 위에서 번째의 水平線의 共存位置)로, 그 둘째를 (T-q)(=위 그림 2의 중 位置의 수직선과 위에서 첫번째의 水平線의 共存位置)로 놓고 설명을 진행시키기로 한다. 두 경우에서 모두 (T)는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언제나 支配하는 (=포괄하는) 量적 개념의 力點(=強調) 位置(項)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휘에 해당한다. (q)는 그와 반대로 (T)에 의해서 支配되는(=포괄되는) (T)나 마찬가지로 역시 量적 개념의 (어휘가 아니라) 形태에 해당한다. 한편, (T)와 (T-q)는 定義上 相互拒否적 異(逆)方向적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일은 이 異(逆)方向적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나타내는 (T)와 (T-q)는 모두 量적 개념에 의해서 특징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T)와 (T-q)가 相互拒否적 共存을 나타낸다고 말할 때, 첫째로 相互拒否도 量적 개념이고, 둘째 共存도 量적 개념이다. 이 量적 개념으로서의 相互拒否를 (-) 표시로, 역시 量적 개념으로서의 共存을 (+) 표시로 각각 나타내고, (T)와 (T-q)에서 (T)

에 在內하는 (q)를 밖으로 뺏아내서, (T)와 ($T-q$)의 量적 개념으로서의 異(逆)方向적 共存을 나타내면 :

$(T_1-q_2)_1 + (T_2-q_1)_2$ 과 같은 式이 된다. 이 式에서 T_1/T_2 는 초/중 位置에서의 수직 선=어휘를, q_1/q_2 는 그 각각의 수직선과 共存 位置에서는 水平線=형태를 표시한다. (-)는相互拒否性을, (+)는 共存을 표시한다. 이 式을 이 式이 갖는 特性 즉 量적 개념으로서의 (T)에 力點(=強調)를 둔다는 特性을 살려서 다시 式으로 표시하면 :

$T(q_1 \leftrightarrow q_2)$ 과 같은 式이 된다. 즉 괄호() 밖의 (共通分母로서의) T 는 力點(=強調)項=어휘로서의 T_1 과 T_2 를 통틀어서 나타내고, 괄호()안의 q_1 과 q_2 는 非力點(=非強調)項=형태를 나타내고, q_1 과 q_2 를 연결하는 \leftrightarrow 표시는 異(逆)方向性을 나타낸다. 이 式과 앞의 式을 等式으로 표시하면 :

$(T_1-q_2)_1 + (T_2-q_1)_2 \rightarrow T(q_1 \leftrightarrow q_2)$ 과 같이 된다.

$(T_1-q_2)_1 + (T_2-q_1)_2 \rightarrow T(q_1 \leftrightarrow q_2)$ 式을 다시 對比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이 對比될 수 있다 :

첫째로 : 左편 式에서 $(T_1-q_2)_1$ (=형태에 해당)에 力點(=強調)을 둔 式과, 오른편 式에서 $(q_1 \leftrightarrow q_2)$ (=형태에 해당)에 力點(=強調)을 둔 것을 때의 式의 對比, 즉 :

$(T_1-q_2)_1$ 에 力點(=強調)을 둔 경우 $(q_1 \leftrightarrow q_2)$ 에 力點(=強調)을 둔 경우

$$\underbrace{(T_1-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q_1)_2}_{\text{어휘}}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이 對比가 뜻하는 것은, 形태(=左편 式의 $(T_1-q_2)_1 \rightarrow$ 오른편 式의 $(q_1 \leftrightarrow q_2)$)에 力點(=強調)을 둔 것을 때의, 그것(=형태)과 어휘(즉 左편 式의 $(T_2-q_1)_2 \rightarrow$ 오른편 式의 T)와의 異(逆)方向적 共存 位置를 말한다. 즉 이 式은 위 그림 2에서 초 位置의 수직선(=어휘=명사법적 어휘=형태를 포함하는 어휘)과 위에서 두 번째의 水平線(=형태=어휘가(에) 포함하는 (内在하는) 형태=잠재적 시간)의 異(逆)方向적 共存 位置를 나타낸다. 주의할 일은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 位置의 G.식 表記(=그림 표시)는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形태에 力點(=強調)을 둔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 位置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특징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이 점을 위 左편 式에서의 T_1 , T_2 의 q_1 , q_2 에의 先行 表示, 그리고 오른편 式에서의 T 의 共通分母 表示가 나타낸다.

둘째로 : 첫째와는 異(逆)方向으로, 左편 式에서 $(T_2-q_1)_2$ (=어휘에 해당)에 力點(=強調)을 둔 것을 때의 式과, 오른편 式에서 T (=어휘에 해당)에 力點(=強調)을 둔 것을 때의 式의 對比, 즉 :

$(T_2-q_1)_2$ 에 力點(=強調)을 둔 경우 T 에 力點(=強調)을 둔 경우

$$\underbrace{(T_1-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q_1)_2}_{\text{어휘}}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이 對比가 뜻하는 것은, 첫째의 對比의 경우와는 異(逆)方向적으로, 어휘(=원편 公式의 $(T_2 - q_1)_2 \rightarrow$ 오른편 公式의 T)에 力點(=強調)을 두었을 때의, 그것=어휘와, 형태(즉 원편 公式의 $(T_1 - q_2)_1 \rightarrow$ 오른편 公式의 $(q_1 \leftrightarrow q_2)$)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말한다. 이 公式은 위 첫째의 경우와는 달리(=異(逆)方向적으로), 위 그림 2에서 중 position의 수직선(=어휘=접속법적 어휘=형태를 포함하는 어휘)과 맨 위의 水平線(=형태=어휘에 外在하는 형태=과정적 시간)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나타낸다. 앞의 첫째의 경우에서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같이,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에 力點(=強調)을 두는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는 G.식 表記(=그림 표시)의 특징 때문에, 形태에 力點(=強調)을 둔 첫째의 경우나 마찬가지의, 그 특징을 반영한 公式이 나오게 된다. 이 특징을, (첫째의 경우와 같이), 원편 公式에서의 T_1 , T_2 의 q_1 , q_2 에의 先行表示가, 그리고 오른편 公式에서의 T의 共通分母表示가 반영한다.

이로써, 위 그림 2의 초位置의 수직선(=어휘에 해당)과 그에 대응하는 수평선(=형태에 해당)과의 異(逆)directional 共存位置 즉, 形태로서의 $(q_1 \leftrightarrow q_2)$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형태와 어휘=T와의, 異(逆)directional 共存位置 즉 초position에서의 T($q_1 \leftrightarrow q_2$)와, (그와 異(逆)direction의), 中position의 수직선(=어휘에 해당)과 그에 대응하는 수평선(=형태에 해당)과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즉, 어휘로서의 T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어휘와 形태($q_1 \leftrightarrow q_2$)와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즉 中position에서의 T($q_1 \leftrightarrow q_2$)를 살렸다.

*여기서 주의할 일은 $(q_1 \leftrightarrow q_2)$ (=형태)에 力點(=強調)을 둔 경우의 T(=어휘)와 $(q_1 \leftrightarrow q_2)$ (=형태)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즉 T($q_1 \leftrightarrow q_2$)(그림 2의 초position의 수직선=어휘와 그에 대응하는 水平線=형태의 共存position)이건, T(=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경우의 위와 같은 共存position 즉 T($q_1 \leftrightarrow q_2$)(그림 2의 中position의 수직선=어휘와 그에 대응하는 水平線=형태의 共存position)이건, 모두,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T)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T(=어휘)와 $(q_1 \leftrightarrow q_2)$ (=형태)는 분명하게 구분(=分析)되지 않고,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초position의 T($q_1 \leftrightarrow q_2$)(*위 참조)와 中position의 T($q_1 \leftrightarrow q_2$)(*위 참조)도 분명하게 구분(=analysis)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分析면(=相互拒否면=형태면) 두 T($q_1 \leftrightarrow q_2$)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分析되지 않은(=並置面=어휘면) 의미에서의, 즉 단 하나의 量的 개념으로서의 T(=어휘)와 $(q_1 \leftrightarrow q_2)$ (=형태)의 相互拒否면 共存position: T($q_1 \leftrightarrow q_2$)가 존재할 뿐이다. 어휘면(=量面) 특성을 가진 이 G.식 表記(=그림 표시)와 그것을 초월내지 탈피 또는 分析한 형태면(=質面) 表記와의 비교는 곧 뒤에서 보게 될 것이다.

○초position에서의 수직선(=어휘)과 수평선(=형태)과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형태(=수평선)에 力點(=強調)을 둔, 형태(=수평선)와 어휘(=수직선)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수직선)에 力點(=強調)을 둘을 그 기본으로 함.

公式 1: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力點位置)}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非力點位置)}$$

○중position에서의 수직선(=어휘)과 수평선(=형태)과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어휘(=수직선)에 力點(=強調)을 둔, 어휘(=수직선)와 형태(=수평선)의 異(逆)directional 共存position: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수직선)에 力點(=強調)을 둘을 그 기본으로 함.

公式 1: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力點位置)}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非力點位置)}$$

公式 2 :

$$\underbrace{T}_{\substack{\text{어} \\ \text{非力點位置}}} \quad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substack{\text{회} \\ \text{力點位置}}} \quad \underbrace{\text{형태}}_{\substack{\text{形} \\ \text{태}}}$$

公式2 :

$$\underbrace{T}_{\substack{\text{어} \\ \text{力點位置}}} \quad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substack{\text{회} \\ \text{非力點位置}}} \quad \underbrace{\text{형태}}_{\substack{\text{形} \\ \text{태}}}$$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수직선) : T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수평선) : $(q_1 \leftrightarrow q_2)$ 와 어휘(수직선) : T가 선명하게 구분(=分析)되지 않고, 따라서, 量적 개념으로서의 형태(=수평선) : $(q_1 \leftrightarrow q_2)$ 와 그 量적 형태(수평선) : $(q_1 \leftrightarrow q_2)$ 에 뒤섞인 역시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수직선) : T의, 量적 개념으로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하나 만이 있음. 즉 G.식 量적(=어휘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는, 초위치에서의 어휘(=수직선) : T와 형태(=수평선) : $(q_1 \leftrightarrow q_2)$ 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와 그와 異(逆)方向의 중위치에서의, 어휘(=수직선) : T와 형태(=수평선) : $(q_1 \leftrightarrow q_2)$ 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가, 그 G.식 量的(=어휘 위주의) 表記를 分析 내지 초원/탈피한 質적(=형태위주의) 表記(*뒤 참조)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並置적 共存位置, 즉 중 위치에서의 어휘(=수직선) : T와 형태(=수평선) : $(q_1 \leftrightarrow q_2)$ 의 異(逆)方向적並置적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와 선명하게 구분(=分析)되지 않고, 따라서, 둘로 갈라져서(=分析되어어서)相互拒否적으로 共存하지 않고, 어휘(T)와 형태($q_1 \leftrightarrow q_2$)의 並置적(=어휘적=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 즉, G.식 表記의 중(位置(*뒤 셋째項 설명 참조)의 테두리에서의, 초위치와 중위치의相互拒否적(=형태적=형태($q_1 \leftrightarrow q_2$)에 力點(强調)을 둔)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와 (*뒤 셋째에서 논하게 될) G.식 表記의 중위치에서의 並置적(=어휘적=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 하나만이 있음.

셋째로 : 위 첫째의 公式과 둘째의 公式的 並置적 公式的 對比. 즉 첫째의 원편 公式 \Rightarrow 형태 : $(T_1 - q_2)_1$ 에 力點(=強調)을 둔 公式 $\Rightarrow (T_1 - q_2)_1 + (T_2 - q_1)_2$ 와 오른편 公式 \Rightarrow 형태 : $(q_1 \leftrightarrow q_2)$ 에 力點(=強調)을 둔 公式 : T($q_1 \leftrightarrow q_2$)를 각각, 둘째의 원편 公式 \Rightarrow 어휘 : $(T_2 - q_1)_2$ 에 力點(=強調)을 둔 公式 $\Rightarrow (T_1 - q_2)_1 + (T_2 - q_1)_2$ 와 오른편 公式 \Rightarrow 어휘 : T에 力點(=強調)을 둔 公式 \Rightarrow T($q_1 \leftrightarrow q_2$)와를, 並置시킨 公式的 對比 즉, $(T_1 - q_2)_1 + (T_2 - q_1)_2$ (=첫째 경우의 원편 公式)과 $(T_1 - q_2)_1 + (T_2 - q_1)_2$ (=둘째 경우의 오른편 公式)을 並置시킨 公式 : $\{(T_1 - q_2)_1 + (T_2 - q_1)_2\} + \{(T_1 - q_2)_1 + (T_2 - q_1)_2\}$ (*주의 : 並置적 共存을 ()+()로 나타내는 이 公式的 表記上의 특징을 살려서, { }+{ } 표시로써 이 並置적 公式을 나타냄에 주의 : 앞 p. 182 참조)과, T($q_1 \leftrightarrow q_2$) (=첫째 경우의 원편 公式)과 T($q_1 \leftrightarrow q_2$) (=둘째 경우의 오른편 公式)을 並置시킨 公式 : T($q_1 \leftrightarrow q_2$) \leftrightarrow T($q_1 \leftrightarrow q_2$) (*주의 : 어휘와 형태의 並置적 異(逆)方向性을 \leftrightarrow 로 나타내는 이 公式的 表記上의 특징을 살려서, \leftrightarrow 표시로써 이 並置적 公式을 나타냄에 주의 : 앞 p. 182 참조)의 對比. 즉 :

첫째의 경우의 公式(*앞 p. 182 참조)과 둘째의 경우의 公式과 둘째의 경우의 公式的 경우의 公式(*앞 pp. 182-183 참조)의 並置적 公式 : 並置적 公式 :

$$\begin{array}{ccc} \underbrace{\{(T_1 - q_2)_1 + (T_2 - q_1)_2\} +} & \rightarrow & \underbrace{T}_{\substack{\text{어} \\ \text{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substack{\text{형} \\ \text{태}}} \underbrace{(\leftrightarrow)}_{\substack{\text{어} \\ \text{휘}}} \underbrace{T}_{\substack{\text{어} \\ \text{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substack{\text{형} \\ \text{태}}} \\ \underbrace{\{(T_1 - q_2)_1 + (T_2 - q_1)_2\}}_{\substack{\text{형} \\ \text{태}}} & & \underbrace{\text{태}}_{\substack{\text{어} \\ \text{휘}}} \end{array}$$

여기서 주의할 일은, 이들 두 公式이 각각 가지고 있는 並置性이다. 이 並置性은 앞의

첫째 경우의 公式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와 둘째 경우의 公式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앞 p. 181 참조), 근본적으로 量적 개념(=並置적 개념)으로서의 어휘 : $(T_2 - q_1)_2 \rightarrow T$ 에 力點(=強調)을 둔 相互拒否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와 같이 둘로 갈라져서(=分析되어서) 相互拒否적으로 共存하지 않고, (편의상 오른편 公式만을 써서 설명하면), 어휘(T)와 형태($q_1 \leftrightarrow q_2$)의 並置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 단 하나만을 놓게 하는 장본인으로서의, 量적 개념으로서의 並置적(=어휘적=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 하나를 말한다. 이것이 곧 G.식 表記의 종位置에서의 어휘(T)와 형태($q_1 \leftrightarrow q_2$)의 並置적 共存位置의 의미이다. 즉 앞에서의 並置적 公式的對比를 더 정확히 하면 :

첫째의 경우의 公式과 둘째의 경우의 公式的
並置적 公式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left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는, (편의상 오른편의 公식을 써서 설명하면), 어휘(T)와 구분(=分析)된 형태($q_1 \leftrightarrow q_2$)와 어휘(T)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left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가 아니라, 어휘(T)와 구분되지 않은(=非分析의) 형태($q_1 \leftrightarrow q_2$)와 어휘(T)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언제나 어휘(T)의 태두리 안에서의 共存(=並置)位置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 \{\underbrace{(T_1 - q_2)_1}_{\text{형태}} + \underbrace{(T_2 - q_1)_2}_{\text{어휘}}\} \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형태}} (\leftrightarrow) \underbrace{T}_{\text{어휘}} \underbrace{(q_1 \leftrightarrow q_2)}_{\text{어휘}}$$

만이 있다(*뒤 : p. 186의 G.식 表記/초월적 表記의 구별項 참조). 이것은 그대로 두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형태($q_1 \leftrightarrow q_2$)를 위주로 한(=力點/強調를 둔) 형태($q_1 \leftrightarrow q_2$)와 어휘(T)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 $q(T_1 \leftrightarrow T_2)$ (*뒤 참조)로 分析 내지 초월/탈피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와 같은 分析됨(=두개로 갈라진) 表記로서가 아니라, 非分析됨(=하나만이 있는)

表記로서 나타내어야 한다. 즉 :

$$\underbrace{(T_1 - q_2)_1 + (T_2 - q_1)_2}_{\begin{array}{c} \text{형태} \\ \text{어휘} \\ \hline \text{어} \end{array}} \rightarrow \underbrace{T \ (q_1 \leftrightarrow q_2)}_{\begin{array}{c} \text{어휘} \\ \text{형태} \\ \hline \text{어} \end{array}}$$

앞의 첫째 경우의 初位置와 둘째 경우의 中位置의 相互拒否적(=형태적=형태 $(q_1 \leftrightarrow q_2)$ 에
力點/強調를 둔) 共存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 表記를 이 셋째 경우의 종位置의 並置적 共存位置의
表記과 함께 놓고, 형태=初位置, 어휘=中位置, 형태와 어휘를 언제나 支配(=포괄)하는
어휘=終位置로 놓으면 :

첫째=初位置와 둘째=中位置의 경우 :

$$\underbrace{(T_1 - q_2)_1 + (T_2 - q_1)_2}_{\begin{array}{c} \text{初} \\ \text{中} \\ \hline \text{終} \end{array}} \rightarrow \underbrace{T \ (q_1 \leftrightarrow q_2)}_{\begin{array}{c} \text{終} \\ \text{初/中} \end{array}}$$

셋째=終位置의 경우 :

$$\underbrace{(T_1 - q_2)_1 + (T_2 - q_1)_2}_{\begin{array}{c} \text{初} \\ \text{中} \\ \hline \text{終} \end{array}} \rightarrow \underbrace{T \ (q_1 \leftrightarrow q_2)}_{\begin{array}{c} \text{終} \\ \text{初/中} \end{array}}$$

와 같이 첫째(=初位置)와 둘째(=中位置)는, 셋째(=終位置)와 같이 된다. 이것은 곧 初
位置/中位置가 終位置와 분명하게 구분(=分析)되지 않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이 G.식
表記는 初/中位置와 終position의 混同(=非分析)을 더 分析 하거나, 또는 그 表記를 초월/탈
피하여 야할 여지를 안고 있으며, 따라서, 이 初/中/종 position表記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고 본다.

非分析적(=어휘적) 初/中/종 position表記(=G.식 表記)와 分析적(=형태적) 初/中/종 position
表記(=초월적 表記)의 比較(G.식 表記(그림 3)의 설명)

위에서 파악한, (어휘와 형태의) 初/中/종 position에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에 대한 G.
식 表記의 특성을, 편의상 非分析적(=어휘적) 初/中/종 position表記라고 부르고, 그것을 초
월한 分析적(=형태적) 初/中/종 position表記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G.식 表記에서는 이미
앞에 나온 그림 2와 유사하게, 時相(aspect)을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그림表記로 설명
한다.

그림 설명 : 아래 그림 3의 사건 내부(=먼저)를 어휘 내부로, 사건 외부(=나중)를 어휘
외부로 잡는다. 이것은 어휘(=사건)를 위주로 한, 어휘(=사건)와 그것이 포괄하는 형태
(=非포괄적 사건=사건의 연장 내지 지속)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나타낸다. 이것을
위 그림 3의 순서에 따라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의 位置 : 잠재적 어휘(=포괄적 사건) : JE MARCHE; I WORK에서의 MARCH-,
WORK-, 와 그것이 포괄하는(=연장/지속케 하는) 잠재적 형태(=非포괄적 사건=사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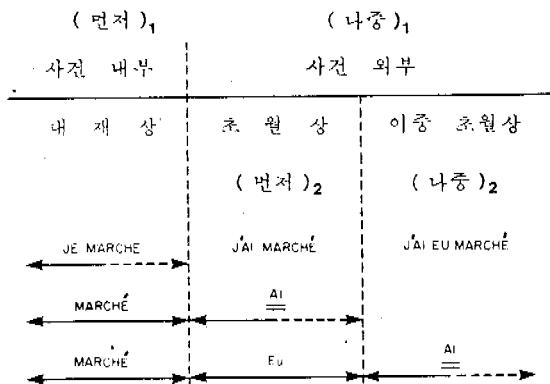


그림 3: 內在相(JE MARCHE; I WORK)—초월相(J'AI MARCHÉ; I HAVE WORKED)—이 종초일相(J'AI EU MARCHÉ; I HAVE BEEN SICK)을,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개념으로 나타낸 G.식 표시(Roch VALIN, Les aspects du verbe français, in Mélanges Rosetti, Bucarest, 1965, p.7/W.H. HIRTLER, Time, Aspect and the verb,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ébec, 1975, p. 141)

연장/지속) : JE MARCHE; I WORK에서의 현재형의 ϕ 형태 : (MARCH)- ϕ ; (WORK)- ϕ ; 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최대의/잠재적₁ 一致位置=최대의/잠재적₁ 포괄-피포괄 位置) : 이 위치가 위 그림 3에서 \longleftrightarrow (JE MARCHE; I WORK)와 같이 左의 實線(\leftarrow)과 右의 點線(\cdots)으로 異(逆)方向으로 表記되어 있는 것은, 잠재적 어휘(=사건) : JE MARCHE; I WORK에서의 MARCH-/WORK- 즉 實線(\leftarrow)과, 잠재적 형태(=피포괄적 사건=사건의 연장/지속) : JE MARCHE; I WORK에서의 현재형의 ϕ 형태 : (MARCH)- ϕ ; (WORK)- ϕ 즉 點線(\cdots)과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leftarrow\cdots$)를 나타낸다(*앞 p. 178의 그림 2의 초위에 서의 잠재적 시간項 참조).

먼저 (2)의 位置 : 파정적/잠재₂적 어휘(=사건) : J'AI MARCHÉ/I HAVE WORKED에서의 MARCHÉ/WORKED, 와 그것이 포괄하는(=연장/지속케 하는) 파정적/잠재₂적 형태(=피포괄적 사건=사건의 연장/지속) : J'AI MARCHÉ/I HAVE WORKED에서의 조동사: AI/HAVE, 와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파정적/잠재₂적 포괄-피포괄 位置) : 이 위치가 위 그림 3에서와 같이 먼저 (1)의 實線(\leftarrow : MARCHÉ/WORKED)과 먼저 (2)의 實線-點線($\leftarrow\cdots$: AI/HAVE)과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leftarrow\cdots$)를 나타낸다(*앞 p. 178의 그림 2의 종위에 서의 파정적 시간項 참조).

여기서 *주의할 일은, 먼저 (1)의 位置에서나 이번의 먼저 (2)의 位置에서나, (어휘와 형태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의 表記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언제나 어휘(=사건=포괄적 사건)이므로, 형태(=피포괄적 사건)를支配하는(=포괄하는) 이 어휘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1)의 位置에서의 어휘(MARCH-; WORK-)와 형태((MARCH)- ϕ ; (WORK)- ϕ)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를 表記함에 있어서나(($\leftarrow\cdots$), 먼저 (2)의 位置에서의 어휘

(MARCHÉ/WORKED)와 形태(Al/HAVE)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表記함에 있어서나 ($\leftarrow \leftarrow \cdots$),

○ 어휘가 먼저 表記되고 形태가 나중에 表記된다. 즉 :

먼저 (1)의 $\leftarrow \cdots$ 에서, 어휘 : \leftarrow MARCH-/WORK-가 먼저 表記되고 形태 : \cdots (MARCH)- ϕ /(WORK)- ϕ 가 나중에 表記되어며, 먼저 (2)의 $\leftarrow \leftarrow \cdots$ 에서, 어휘 : \leftarrow MARCHÉ/WORKED 가 먼저 表記되고 形태 : $\leftarrow \cdots$ Al/HAVE가 나중에 表記되어며,

○ 이 먼저 表記되는 어휘는 언제나 形태를 支配(=포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

먼저 (2)의 어휘 : \leftarrow MARCHÉ/WORKED; 形태 : $\leftarrow \cdots$ Al/HAVE 表記에서, 먼저 表記된 어휘 : \leftarrow : MARCHÉ/WORKED는 (形태를 支配/포괄하는) 그 支配/포괄力 때문에, 어휘-形태로 分析表記되지 않고 非分析表記(\leftarrow : MARCHÉ/WORKED)되어 있으며, 그에 이어 나중에 表記된 形태 : $\leftarrow \cdots$ Al/HAVE는 먼저 表記된 그 非分析적 어휘 : \leftarrow : MARCHÉ/WORKED의 支配/포괄力 때문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연장으로서의 어휘를 먼저, 形태를 나중으로 하는 分析表記($\leftarrow \cdots$: Al/HAVE)를 하고 있다.

요컨대, 먼저 (1)의 位置와 먼저 (2)의 位置는, 어휘를 위주로 한 (어휘와 形태의) 相互拒否적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나타내고 있다(*앞 p.178 그림 2의 초位置와 중position의 相互拒否적 異(逆)方向적 共存位置項 참조). (따라서, 먼저 (1) 位置와 먼저 (2) 位置의 相互拒否性이 완화(둔화)된 位置로서의 (어휘와 形태의) 並置적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로서의 나중(2) 位置는, 먼저(2) 位置의 (영향/支配를 받는) 位置이다. 이것은 먼저(2) 位置의 어휘적 영향/支配를 안 받고, 먼저(1)/먼저(2) 位置와 구별되는, 먼저(1)/먼저(2) 位置의 並置적 共存으로서의 나중 位置와는, 對立된다).

이것들을 앞 p.178의 그림 2의 예에 따라서 요약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1) 位置에서의 實線(\leftarrow) (=어휘 : MARCH)와 點線(\cdots) (=形태 : ϕ)의 異(逆)方向的 共存位置 : 원래는 形태 = 點線(\cdots : ϕ)에 力點(=強調)을 둔, 形태 = 點線(\cdots : ϕ)과 어휘 = 實線(\leftarrow : MARCH)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임 : *그러나, 언제나 量의 개념으로서의 어휘 = 實線(\leftarrow : MARCH)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함.

公式 1 :

$$\begin{array}{c} \overbrace{(T_1-q_2)_1} + \overbrace{(T_2-q_1)_2} \\ (\leftarrow_1-\cdots_2)_1 + (\leftarrow_2-\cdots_1)_2 \\ \hline (MARCH_1-\phi_2)_1 + (MARCH_2-\phi_1)_2 \end{array}$$

形태 (=力點位置) 어휘 (=非力點位置)

먼저 (2) 位置에서의 實線(\leftarrow) (=어휘 : MARCHÉ)와 點線(\cdots) (=形태 : Al)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원래는 形태 = 點線(\cdots : Al)에 力點(=強調)을 둔, 形태 = 點線(\cdots : Al)과 어휘 = 實線(\leftarrow : MARCHÉ)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임 : *그러나,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 = 實線(\leftarrow : MARCHÉ)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基本으로 함.

公式 1 :

$$\begin{array}{c} \overbrace{(T_2-q_1)_2} + \overbrace{(T_1-q_2)_1} \\ (\leftarrow_2-\leftarrow\cdots_1)_2 + (\leftarrow_1-\leftarrow\cdots_2)_1 \\ \hline (MARCHÉ_2-Al_1)_2 + (MARCHÉ_1-Al_2)_1 \end{array}$$

어휘 (=力點位置) 形태 (=非力點位置)

公式 2 :

$$\begin{array}{c} T \quad (q_1 \leftrightarrow q_2) \\ (\leftrightarrow) \quad (\cdots_1 \rightarrow \cdots_2) \\ MARCH - (-\phi_1 \leftrightarrow -\phi_2) \\ \text{어 휘} \quad \text{형 태} \\ \text{(非力點位置) (力點位置)} \end{array}$$

公式 2 :

$$\begin{array}{c} T \quad (q_1 \leftrightarrow q_2) \\ (\leftrightarrow) \quad (\cdots_1 \rightarrow \cdots_2) \\ MARCHÉ (A_1 \leftrightarrow A_2) \\ \text{어 휘} \quad \text{형 태} \\ \text{(非力點位置) (力點位置)} \end{array}$$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leftarrow)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형태(\cdots)와 어휘(\leftarrow)가 선명하게 구분(=分析)되지 않고, 따라서,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leftarrow)와 그 量적 어휘(\leftarrow)에 뒤섞인 역시 量적 개념으로서의 형태(\cdots)의, 量적 개념으로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leftarrow \cdots$ 하나만이 있음(*뒤 p.214의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7 참조). 즉 G.식 量적(=어휘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는, 먼저 (1) 位置에서의 어휘(\leftarrow)와 형태(\cdots)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leftarrow \cdots$ 와 그와 異(逆)方向의 먼저 (2) 位置에서의 어휘(\leftarrow)와 형태(\cdots)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leftarrow \cdots$)가, 그 G.식 量적(=어휘 위주의) 表記를 分析 내지 초월/탈피한 量적(=형태 위주의) 表記 (*뒤 참조)에 있어서 와는 달리, 그 並置적 共存位置, 즉 나중 (2) 位置에서의 어휘(\leftarrow)와 형태(\cdots)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位置 : $\leftarrow \cdots$ 와 선명하게 구분(=analysis)되지 않고, 따라서, 둘로 갈라져서 ($=$ 分析되어어서)相互拒否적으로 共存($\cdots \rightarrow / \leftarrow \cdots$: *뒤 p.214의 (分析적) 그림 4 참조)하지 않고, 어휘(\leftarrow)와 형태(\cdots)의 並置적(=어휘적=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해(\leftarrow)에 力點(=強調)을 둔) 共存位置 : $\leftarrow \cdots$ 즉, G.식 表記의 나중(2) 位置(*뒤 설명 참조)의 태두리안에서의 먼저(1) 位置와 먼저(2) 位置의相互拒否적(=형태적=형태(\cdots)에 力點(=強調)을 둔) 共存位置 : $\leftarrow \cdots$ 와 (*뒤에서 논하게 될) G.식 表記의 나중(2) 位置에서의 並置적(=어휘적=어휘(\leftarrow)에 力點(=強調)을 둔) 共存位置 : $\leftarrow \cdots$ 하나만이 있음(*뒤 p.213의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5 참조).

G.식 (어휘 위주의) 表記의 먼저(1)/먼저(2) 位置와 초월적(형태 위주의) 表記의 먼저(1)/먼저(2) 位置의 比較

위 끝 부분에서 설명한 G.식 (어휘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의 먼저(1)/먼저(2) 位置와 초월적(형태 위주의) 表記의 먼저(1)/먼저(2) 位置 즉 :

○ G.식 (어휘 위주) 表記에서의 먼저(1)/먼저(2) 位置(*아래 그림 첫째 및 둘째 참조)

먼저(1) 位置(JE MARCHÉ)에서의 어휘($\leftarrow : MARCH-$)와 형태($\cdots : -\phi$)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leftarrow \cdots : MARCH + \phi$)와, 그와 異(逆)direction의 먼저(2) 位置(AI MARCHÉ)에서의 어휘($\leftarrow : MARCHÉ$)와 형태($\leftarrow : AI$)는 나중(2) 位置 ($\leftarrow \leftarrow \leftarrow \cdots : MARCHÉ + EU + AI$)의 태두리안에서의相互拒否적 共存位置($\leftarrow \cdots : MARCH + \phi / \leftarrow \leftarrow \cdots : MARCHÉ + AI$)임.

○ 초월적(형태 위주의) 表記에서의 먼저(1)/먼저(2) 位置(*아래 그림 셋째 및 넷째 참조)

먼저(1) 位置(JE MARCHÉ)에서의 형태($\cdots : -\phi$)와 어휘($\rightarrow : MARCH-$)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leftarrow \rightarrow : \phi + MARCH$)와, 그와 異(逆)direction의 먼저(2) 位置(AI MARCHÉ)에서의 형태($\leftarrow : AI$)와 어휘($\cdots : MARCHÉ$)는, 나중位置($\leftarrow : AI EU MARCHÉ$)와 선명히 구별된(=分析된)相互拒否적 共存位置($\leftarrow \rightarrow : \phi + MARCH / \leftarrow \cdots : AI + MARCHÉ$)임.

이것을 그림으로 比較表示하면 아래와 같다 :

(면 저) ₁ 사건내부	
내재상 $\leftarrow \frac{\text{JE MARCHE}}{\text{MARCH}^1(\phi^1)(\text{MARCH}_2)\phi_2} \rightarrow$	*주의 : (면저) ₁ 位置는 사건외부(=형태)를 포함하는 사건내부적 (=어휘적) 力點/強調的 位置임.

(면저)₁(=사건내부=어휘₁=T₁)=← : MARCH₁(φ₁)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T₁)과, 그것(=T₁)의 내부적 형태(← : MARCH(φ)=q₁) 및 외부적 형태(… : (MARCH₂)φ₂=q₂)와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 公式(1)로는 (T₁-q₂)₁+(T₂-q₁)₂, 公式(2)로는 T(q₁↔q₂), 즉 (MARCH₁-φ₂)₁+(MARCH₂-φ₁)₂, MARCH(φ₁↔φ₂)로 表記가능한 共存位置(앞 pp. 188-189의 公式(1)/公式(2)項 참조)

(면 저) ₁ 사건내부	(나중) ₁ 사건외부
내재상 $\leftarrow \frac{\text{MARCHÉ}_1(\text{AI}_1)}{\text{MARCHÉ}_1(\text{AI}_1)} \rightarrow$	초월상 $\leftarrow \frac{\text{J'AI MARCHÉ}}{\text{(MARCHÉ}_2\text{)} \text{AI}_2} \rightarrow$
*주의 : (면저) ₁ 은, (나중) ₁ 에 포함된 (면저) ₂ 와 분명히 구분(=分析)되지 않음.	*주의 : (면저) ₂ 는 (나중) ₁ 과 분명히 구분(=分析) 안되고 (나중) ₁ 에 포함됨.

*(나중)₁(=사건외부=어휘₂=T₂)=←(MARCHÉ₂)…AI₂)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나중₁=면저₂)과, 그것(=T₂)의 내부적 형태(=면저₁=사건내부=← : MARCHÉ₁(AI₁)=q₁) 및 외부적 형태(=면저₂=←… : (MARCHÉ₂)AI₂=q₂)와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 (T₂-q₁)₂+(T₁-q₂)₁(=公式₁), T(q₂↔q₁)(公式₂), 즉 (MARCHÉ₂-AI₁)₂+(MARCHÉ₁-AI₂)₁, MARCHÉ(AI₂↔AI₁)로 표기 가능한 共存位置.

₁ (면 저) 사건포괄	
₁ 초월상 $\leftarrow \frac{1\phi(\text{MARCH})}{1\phi(\text{MARCH})} \rightarrow \frac{2\phi_2\text{MARCH}}{2\phi_2\text{MARCH}}$	*주의 : ₁ (면저) 位置는 사건(=어휘)을 포함하는 형태적 力點/強調의 位置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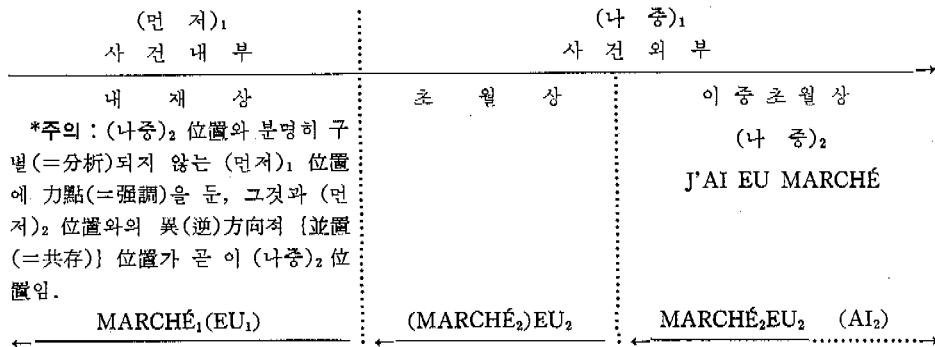
*₁(면저)(=₁사건포괄=₁형태=₁q=… : ₁φ(₁MARCH))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₁q)과, 그것(=₁q)의 내부적 어휘(… : ₁φ(₁MARCH)=₁T) 및 외부적 어휘(→ : ₂MARCH(₂φ)=₂T)와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 公式(1)로는 ₁(₁q↔₂T)+₂(₂q↔₁T), 公式(2)로는 q(₁T↔₂T), 즉 ₁(₁φ↔₂MARCH)+₂(₂φ↔₁MARCH), φ(₁MARCH↔₂MARCH)로 表記 가능한 共存位置.

₂ (면 저) 사건포괄	(나중) 사건
₂ 초월상 $\leftarrow \frac{2\phi_1\text{MARCHÉ}}{2\phi_1\text{MARCHÉ}} \rightarrow \frac{1\text{AI}(\text{MARCHÉ})}{1\text{AI}(\text{MARCHÉ})}$	*주의 : ₂ (면저)는 (나중) ₁ 과 분명히 구별(=分析)됨.
*주의 : ₁ ((면저)는 ₂ (면저)와 분명히 구별(=分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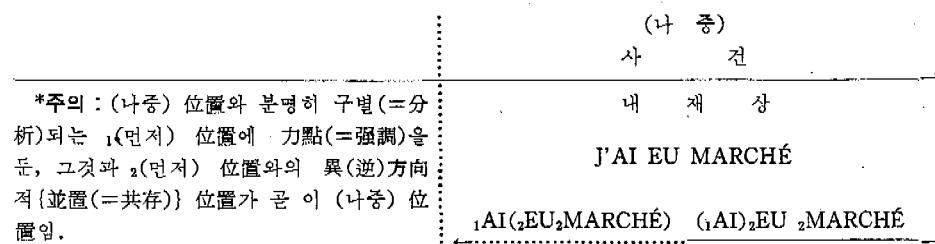
*₂(면저)(=₂사건포괄=₂형태=₂q=… : (₂AI)₂MARCHÉ)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₂q)과, 그것(=₂q)의 내부적 어휘(← : ₁AI=₁T) 및 외부적 어휘(… : (₂AI)₂MARCHÉ=₂T)와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 公式(1)로는 ₂(₂q↔₁T)+₁(₁q↔₂T), 公式(2)로는 q(₁T↔₂T), 즉 ₂(₂AI↔₁MARCHÉ)+₁(₁AI↔₂MARCH), AI(₂MARCHÉ↔₁MARCHÉ)로 表記 가능한 共存位置.

이어서,

G. 식(어휘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의 위 그림에서의 相互拒否격 (먼저)₁ 位置와 (먼저)₂ 位置의, 並置격 位置, 즉 그 並置의 시발점이 되는 (먼저)₁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먼저)₂ 位置와의 差(逆)方向격 共存(=並置)位置⇒(나중)₂ 位置:



초월격(형태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의 위 그림에서의 相互拒否격₁(먼저) 位置와₂(먼저) 位置의, 並置격 位置, 즉 그 並置의 시발점이 되는 ₁(먼저)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₂(먼저) 位置와의 差(逆)direction 격(並置) 共存(=並置) 位置⇒나중 位置:



*위 첫째 그림에서의 相互拒否격 (먼저)₁ 位置, 즉:

公式(1)의 $(T_1-q_2)_1 + (T_2-q_1)_2 \Rightarrow (MARCH_1-\phi_2)_1 + (MARCH_2-\phi_2)_2$:

公式(2)의 $T(q_1 \leftrightarrow q_2) \Rightarrow MARCH(\phi_1 \leftrightarrow \phi_2)$, (먼저)₂ 位置, 즉:

公式(1)의 $(T_2-q_1)_2 + (T_1-q_2)_1 \Rightarrow (MARCHÉ_2-AI_1)_2 + (MARCHÉ_1-AI_2)_1$:

公式(2)의 $T(q_2 \leftrightarrow p_1) \Rightarrow MARCHÉ(AI_2 \leftrightarrow AI_1)$ 의, {並置} 격 位置 즉 그 {並置}의 시발점이 되는 (먼저)₁ 位置(=위 公式(1)/(2) 및 그 예)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먼저)₂ 位置(=위 公式(1)/(2) 및 그 예)와의 差(逆)direction 격(並置)(=共存) 位置 즉:

公式(1)로는: $\underbrace{(T_1-q_2)_1}_{\text{(먼저)}_1} + \underbrace{(T_2-q_1)_2}_{\text{(먼저)}_2} + \underbrace{(T_2-q_1)_2}_{\text{(먼저)}_2} + \underbrace{(T_1-q_2)_1}_{\text{(먼저)}_1} \Rightarrow$ (表記上으로 (나중)₂에 力點을 두었
 $\underbrace{\text{(나중)}}_{\text{(나중)}}_1 \quad \underbrace{\text{(나중)}}_{\text{(나중)}}_2$

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T_2-q_1)_2}_{\text{(먼저)}_2} + \underbrace{(T_1-q_2)_1}_{\text{(먼저)}_1}$, 즉: $\underbrace{((MARCH_1-\phi_2)_1 + (MARCH_2-\phi_2)_2}_{\text{(먼저)}_1} + \underbrace{((MARCH_1-\phi_1)_1 + (MARCH_2-\phi_1)_2}_{\text{(먼저)}_2}$
 $\underbrace{\text{(나중)}}_{\text{(나중)}}_2 \quad \underbrace{\text{(나중)}}_{\text{(나중)}}_1$

$+ \underbrace{(\text{MARCHÉ}_2 - AI_1)_2 + (\text{MARCHÉ}_1 - AI_2)_1}_{\begin{array}{c} (\text{연} \quad \text{저})_2 \\ (\text{연} \quad \text{저})_1 \\ (\text{나} \quad \text{중})_2 \end{array}}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text{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

여) $\underbrace{(\text{EU MARCHÉ}_2 - AI_1)_2 + (\text{EU MARCHÉ}_1 - AI_2)_1}_{\begin{array}{c} (\text{연} \quad \text{저})_2 \\ (\text{연} \quad \text{저})_1 \\ (\text{나} \quad \text{중})_2 \end{array}}$;

公式(2)로는: $\underbrace{T \quad (q_1 \leftrightarrow q_2)}_{(\text{나중})_1} \leftrightarrow \underbrace{T \quad (q_2 \leftrightarrow q_1)}_{(\text{나중})_2}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text{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

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T \quad (q_2 \leftrightarrow q_1)}_{(\text{나중})_2} \text{, 즉: } \underbrace{\text{EU MARCHÉ} \quad (AI_1 \leftrightarrow AI_2)}_{\begin{array}{c} (\text{나} \quad \text{중})_1 \\ (\text{연} \quad \text{저})_1 \end{array}} \leftrightarrow \underbrace{(AI_2 \leftrightarrow AI_1)}_{(\text{연} \quad \text{저})_2}$

$\underbrace{\text{EU MARCHÉ} \quad (AI_2 \leftrightarrow AI_1)}_{\begin{array}{c} (\text{나} \quad \text{중})_2 \\ (\text{연} \quad \text{저})_2 \end{array}}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text{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text{EU MARCHÉ} \quad (AI_2 \leftrightarrow AI_1)}_{\begin{array}{c} (\text{나} \quad \text{중})_2 \\ (\text{연} \quad \text{저})_2 \end{array}}.$

*이) (並置)적 位置의 특징은, (나중)₂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나중)₁ 位置에서의 ($\text{연} \quad \text{저}$)₁ 位置/($\text{연} \quad \text{저}$)₂ 位置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並置)이다. 따라서 이 특징은, 앞에 설명한 ($\text{연} \quad \text{저}$)₁ 位置/($\text{연} \quad \text{저}$)₂ 位置(=相互拒否적 共存位置)와, 다 같이, (나중) 位置와 분명히 구별(=分析)되지 않는 ($\text{연} \quad \text{저}$)₁ 位置/($\text{연} \quad \text{저}$)₂ 位置=(나중)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text{연} \quad \text{저}$)₁ 位置/($\text{연} \quad \text{저}$)₂ 位置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함께 한다.

*위 둘째 그림에서의 相互拒否적 ${}_1(\text{연} \quad \text{저})$ 位置, 즉:

公式(1)의 ${}_1(q - {}_2T) + {}_2(q - {}_1T) \Rightarrow {}_1({}_1\phi - {}_2\text{MARCH}) + {}_2({}_2\phi - {}_1\text{MARCH})$;

公式(2)의 $q({}_1T \leftrightarrow {}_2T) \Rightarrow \phi({}_1\text{MARCH} \leftrightarrow {}_2\text{MARCH})$ 와, ${}_2(\text{연} \quad \text{저})$ 位置, 즉:

公式(1)의 ${}_2(q - {}_1T) + {}_1(q - {}_2T) \Rightarrow {}_2(AI - {}_1\text{MARCHÉ}) + {}_1(AI - {}_2\text{MARCHÉ})$;

公式(2)의 $q({}_2T \leftrightarrow {}_1T) \Rightarrow AI({}_2\text{MARCHÉ} \leftrightarrow {}_1\text{MARCHÉ})$ 와, {並置}적 位置 즉 그 {並置}의 시발점이 되는 ${}_1(\text{연} \quad \text{저})$ 位置(=위 公式(1)/(2) 및 그 예)에 力點(=強調)를 둔, 그것과 ${}_2(\text{연} \quad \text{저})$ 位置(=위 公式(1)/(2) 및 그 예)와의, 異(逆)方向적 {位置}(=共存) 位置 즉:

公式(1)로는: $\underbrace{[{}_1(q - {}_2T) + {}_2(q - {}_1T) + {}_2(q - {}_1T) + {}_1(q - {}_2T)]}_{\begin{array}{c} {}_1(\text{연} \quad \text{저}) \quad {}_2(\text{연} \quad \text{저}) \quad {}_2(\text{연} \quad \text{저}) \quad {}_1(\text{연} \quad \text{저}) \\ (\text{연} \quad \text{저}) \quad (\text{나} \quad \text{중}) \end{array}}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_1(\text{연} \quad \text{저}) / {}_2(\text{연} \quad \text{저}) \text{에 力點})$

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_1(q - {}_2T) + {}_2(q - {}_1T)}_{\begin{array}{c} {}_1(\text{연} \quad \text{저}) \quad {}_2(\text{연} \quad \text{저}) \\ (\text{연} \quad \text{저}) \end{array}}, \text{즉: } \underbrace{[{}_1({}_1\phi - {}_2\text{MARCH}) + {}_2({}_2\phi - {}_1\text{MARCH})]}_{\begin{array}{c} {}_1(\text{연} \quad \text{저}) \quad {}_2(\text{연} \quad \text{저}) \\ (\text{연} \quad \text{저}) \end{array}}$

$+ \underbrace{{}_2(AI - {}_1\text{MARCHÉ}) + {}_1(AI - {}_2\text{MARCHÉ})}_{\begin{array}{c} {}_2(\text{연} \quad \text{저}) \quad {}_1(\text{연} \quad \text{저}) \\ (\text{나} \quad \text{중}) \end{array}}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_1(\text{연} \quad \text{저}) / {}_2(\text{연} \quad \text{저}) \text{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기 위하여) $\underbrace{{}_1({}_1AI - {}_2\text{EU MARCHÉ}) + {}_2({}_2AI - {}_1\text{EU MARCHÉ})}_{\begin{array}{c} {}_1(\text{연} \quad \text{저}) \quad {}_2(\text{연} \quad \text{저}) \\ (\text{연} \quad \text{저}) \end{array}}$;

公式(2)로는: $\underbrace{q}_{1(\text{먼저})} \underbrace{(1T \leftrightarrow 2T)}_{1(\text{나중}) \ 2(\text{나중})} \underbrace{(\leftrightarrow)}_{2(\text{먼저}) \ 2(\text{나중}) \ 1(\text{나중})} \underbrace{q}_{1(\text{먼저})} \underbrace{(2T \leftrightarrow 1T)}_{1(\text{나중})}$ ⇒ (表記上으로 $1(\text{먼저})$ 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q}_{1(\text{먼저})} \underbrace{(1T \leftrightarrow 2T)}_{1(\text{나중}) \ 2(\text{나중})}$, 즉: $\phi \underbrace{(1\text{MARCH} \leftrightarrow 2\text{MARCH})}_{1(\text{먼저}) \ 1(\text{나중})} \underbrace{(\leftrightarrow)}_{2(\text{나중})}$

$\underbrace{\text{AI}}_{2(\text{먼저})} \underbrace{(2\text{MARCHÉ} \leftrightarrow 1\text{MARCHÉ})}_{2(\text{나중})} \Rightarrow$ (表記上으로 $1(\text{먼저})$ 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text{AI}}_{2(\text{먼저})} \underbrace{(1\text{EU MARCHÉ} \leftrightarrow 2\text{EU MARCHÉ})}_{1(\text{나중}) \ 2(\text{나중})}$.

*이 [並置]적 位置의 특징은, 앞에 설명한 $1(\text{먼저})$ 位置/ $2(\text{먼저})$ 位置(=相互拒否의 共存位置)와, 다 같이, (나중) 位置와 분명히 구별(=分析)되는 $1(\text{먼저})$ 位置/ $2(\text{먼저})$ 位置=(나중) 位置가 아닌 $1(\text{먼저})$ 位置/ $2(\text{먼저})$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나중) 位置와의 異(逆)方向의 共存位置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함께 한다.

위에서 比較한 바를 각각 다시 그림으로 대조시키면 아래와 같다:

○ G.식(어휘 위주의) 表記=脫전통 表記(*주의: 아래 그림 맨 밑의 (—)는 (\leftrightarrow)의 誤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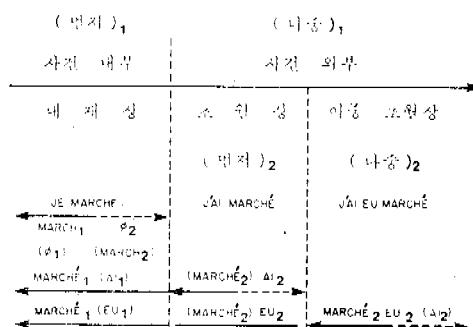


그림 3

○ 초월적(형태 위주의) 表記=脫전통 表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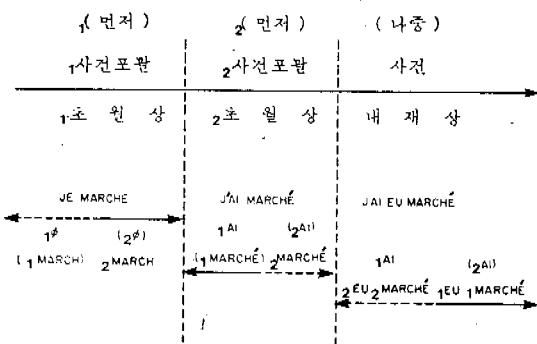


그림 4

이어서 위 두 脱전통 表記와 구별되는 전통言語學식 表記를 위의 예에 따라서 요약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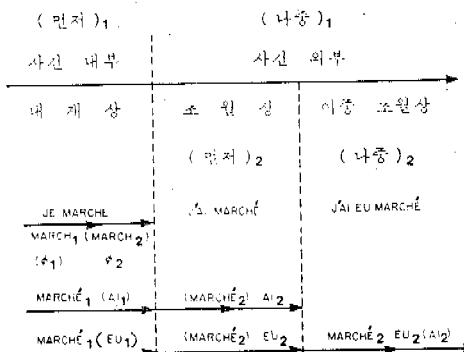


그림 5

○ 먼저(1) 位置:

實線($\rightarrow =$ 어휘 : MARCH)과 點線($\cdots =$ 형태 : φ)의, 等方向적 共存位置($\rightarrow : MARCH$) :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 = 實線($\rightarrow : MARCH$)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함.

○ 公式 1 :

$$\begin{aligned} (T_1+q_1)_1 &+ (T_2+q_2)_2 \\ (\overbrace{\rightarrow_1+\cdots_1})_1 &+ (\overbrace{\rightarrow_2+\cdots_2})_2 \\ (MARCH_1+\phi_1)_1 &+ (MARCH_2+\phi_2)_2 \\ \text{어휘(=力點位置)} &\quad \text{형태(=非力點位置)} \end{aligned}$$

○ 公式 2 :

$$\begin{array}{c} T \quad (q_1 \rightarrow q_2) \\ \overbrace{(\rightarrow)} \quad \overbrace{(\cdots_1 \rightarrow \cdots_2)} \\ MARCH \quad (-\phi_1 \rightarrow \phi_2) \\ \text{어휘} \quad \text{형태} \\ (\text{力點位置}) \quad (\text{非力點位置}) \end{array}$$

○ 먼저(2) 位置:

實線($\rightarrow =$ 어휘 : MARCHÉ)과 點線($\cdots =$ 형태 : AI)의 等方向적 共存位置($\rightarrow : MARCHÉ \rightarrow : AI$) :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 = 實線($\rightarrow : MARCHÉ$)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함.

○ 公式 1 :

$$\begin{aligned} (T_1+q_1)_1 &+ (T_2+q_2)_2 \\ (\overbrace{\rightarrow_1+\cdots_1})_1 &+ (\overbrace{\rightarrow_2+\cdots_2})_2 \\ (MARCHÉ_1+AI_1)_1 &+ (MARCHÉ_2+AI_2)_2 \\ \text{어휘(=力點位置)} &\quad \text{형태(=非力點位置)} \end{aligned}$$

○ 公式 2 :

$$\begin{array}{c} T \quad (q_1 \rightarrow q_2) \\ \overbrace{(\rightarrow)} \quad \overbrace{(\cdots_1 \rightarrow \cdots_2)} \\ MARCHÉ \quad (AI_1 \rightarrow AI_2) \\ \text{어휘} \quad \text{형태} \\ (\text{力點位置}) \quad (\text{非力點位置}) \end{array}$$

*언제나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rightarrow : MARCH, MARCHÉ$)에 力點(=強調)을 두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휘($\rightarrow : MARCH, MARCHÉ$)와 형태($\cdots : \phi, AI$)가 설명하게 구분(=分析)되지 않고, 따라서, 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rightarrow : MARCH, MARCHÉ$)와 그 量적 어휘($\rightarrow : MARCH, MARCHÉ$)에 뒤섞인 역시 量적 개념으로서의 형태($\cdots : \phi, AI$)의, 量적 개념으로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 $\rightarrow \cdots = \rightarrow : MARCH, \rightarrow MARCHÉ \rightarrow AI$ 하나 만이 있음. 즉 이 전통언어학적 表記는, 한편으로는 脫전통 언어학적 G.식(어휘 위주의) 表記와, 다른 한편으로는, G.식(어휘 위주의) 表記를 초월한(형태 위주의) 表記와, 어휘 위주의 관점은 완전히 달피한 형태 위주의 관점에서, 어휘와 형태가, 먼저₁/먼저₂ 위치에서, 异(逆)方向적 共存位置(먼저₁= $\leftarrow : MARCH/MARCHÉ$ /먼저₂= $\leftarrow : MARCHÉ \rightarrow : AI$)를 이루느냐 等方向적 共存位置(먼저₁= $\rightarrow : MARCH/MARCHÉ$ /먼저₂= $\rightarrow : MARCHÉ \rightarrow : AI$)를 이루느냐라는 근본적인 대립을 나타내며, 다른 한편으로는, G.식(어휘 위주의) 表記를 초월한(형태 위주의) 表記와, 어휘 위주의 관점을 완전히 달피한 형태 위주의 관점에서, 어휘와 형태가, 먼저₁/먼저₂ 위치에서, 异(逆)方向적 共存位置(먼저₁= $\cdots : \phi \rightarrow : MARCH/MARCHÉ$ /먼저₂= $\leftarrow : AI \rightarrow : MARCHÉ$)를 이루느냐는 문제이다.

루느냐 아니면 순전히 어휘 위주의 관점에서 위 位置에서 等方向적 共存位置(먼저₁=→ : MARCHE/먼저₂=← : AI↔ : MARCHÉ)를 이루느냐라는 근본적인 대립을 나타낸다.

즉 다시 말하면, 전통언어 학식 表記와 G식 表記의 공통점은, 전통언어 학식 表記와 초월적 表記(=G.식 量적/어휘 위주의 表記를 分析 내지 초월/탈피한 質적/형태 위주의 表記) 사이의 전면적인 대립과는 달리,

1) (G.식 表記의 경우) : (먼저)₁ 位置에서의 어휘(← : MARCH)와 형태(…φ)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MARCHE)와 그와 異(逆)方向의 (먼저)₂ 位置에서의 어휘(← : MARCHÉ)와 형태(←… : AI)의 異(逆)direction 共存位置(=먼저₁ : ←…MARCHЕ/먼저₂ : ←MARCHÉ↔…AI)가, 그 並置적 共存位置, 즉 (나중)₂ 位置에서의 어휘(←MARCHÉ↔EU)와 형태(←…AI)의 異(逆)direction 並置적 共存位置(←MARCHÉ↔EU↔…AI)와 설명하게 구별(=分析)되지 않고, 즉 둘로 갈라져서(=分析되어서) 相互拒否적으로 共存(먼저 : …φ→MARCH/먼저 : ←AI↔MARCHÉ)하지 않고(*앞 p. 189의 G식 表記와 초월적 表記의 比較項 참조), 어휘(←MARCHÉ↔EU)와 형태(←…AI)의 並置적(=어휘적=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MARCHÉ↔EU)에 力點/強調를 둔) 共存位置(←MARCHÉ↔EU↔…AI), 즉 G.식 表記의 (나중)₂ 位置(*앞 p. 189 참조)의 페두리 안에서의, 그것(=나중₂ 位置 : ←MARCHÉ↔EU↔…AI)과, (먼저)₁ 位置와 (먼저)₂ 位置의 相互拒否적(형태적=형태(=먼저₂)←MARCHÉ↔…AI)에 力點/強調를 둔) 共存位置(먼저₁ : ←MARCH…φ/먼저₂ : ←MARCHÉ↔…AI) 하나만이 있음.

2) (전통언어 학식 表記의 경우) : (먼저)₁ 位置에서의 어휘(→ : MARCH)와 형태(…φ)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 MARCHE)와 그와 等方向의 (먼저)₂ 位置에서의 어휘(→ : MARCHÉ)와 형태(…φ : AI)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먼저₁ : →MARCHЕ/먼저₂ : →MARCHÉ→AI)가, 그 並置적 共存位置, 즉 (나중)₂ 位置에서의 어휘(→MARCHÉ→EU)와 형태(…AI)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MARCH→EU→AI)와 설명하게 구별(=analysis)되지 않고, 즉 둘로 갈라져서(=analysis되어서) 相互拒否적으로 共存(먼저 : ←φ→MARCH/먼저₂ : ←AI↔MARCHÉ)하지 않고(*앞 p. 189의 G식 表記와 초월적 表記의 比較項 참조), 어휘(→MARCHÉ→EU)와 형태(→AI)의 等方向적 並置적(=어휘적=量적 개념으로서의 어휘(→MARCHÉ→EU)에 力點/強調를 둔) 共存位置(→MARCHÉ→EU→AI), 즉 G.식 表記의 (나중)₂ 位置(*앞 p. 189 참조)의 페두리 안에서의, 그것(=나중₂ 位置 : →MARCHÉ→EU→AI)과, (먼저)₁ 位置와 (먼저)₂ 位置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형태적=형태(=먼저₂) (→MARCHÉ→AI)에 力點/強調를 둔) 共存位置(먼저₁ : →MARCH+φ=MARCHЕ/먼저₂ : →MARCHÉ→AI) 하나만이 있음.

위 (1) (G.식 表記의 경우)와 (2) (전통언어 학식 表記의 경우)의 공통점, 즉 두 表記가 모두, 어휘와 형태의 異(逆)direction 共存位置의 表記/어휘와 형태의 等direction 共存position의 表記,라는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量적 어휘에 力點/強調를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다음의 (3) (초월적 表記의 경우)는, 오직 형태에 力點/強調를 둔 형태와 어휘의 異(逆)direction 共存position의 表記라는 점에서, 위 (1)/(2)의 表記와 완전히 구별된다. 즉 :

(3) (초월적 表記의 경우) : ₁(먼저) 位置에서의 형태(…φ)와 어휘(→MARCH)의 異(逆)direction 共存位置(…→MARCHЕ)와 그와 異(逆)direction의 ₂(먼저) 位置에서의 형태(←AI)와 어휘(→MARCHÉ)의 異(逆)direction 共存position(=먼저₁ : …→MARCHЕ/먼저₂ : ←AI↔MARCHÉ)가, 그 並置적 共存位置, 즉 (나중) 位置에서의 형태(…AI)와 어휘(→EU MARCHÉ)의 異(逆)direction 並置적 共存position(…AI→EU MARCHÉ)와 설명하게 구별(=analysis)되고, 즉 둘로 갈라져서(=analysis되어서) 相互拒否적으로 共存(먼저 : ←φ→MARCH/먼저₂ : ←AI↔MARCHÉ)하고 (*바로 위의 (1) (G.식 表記의 경우)/(2) (전통언어 학식 表記의 경우) 참조), 따라서, 형태(=먼저₁ : …φ→MARCH)와 어휘(=먼저₂ : ←AI↔MARCHÉ)의 異(逆)direction 相互拒否적(=형태적=質적 개념으로서의 형태(=먼저₁ : …φ

3) 초월적·脫전통언어학식(형태 위주의)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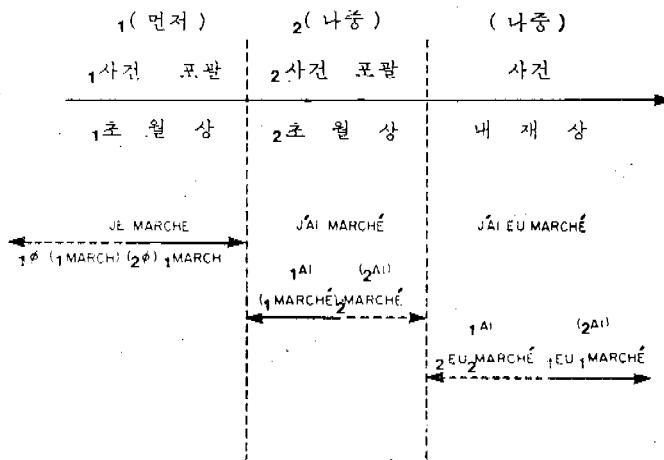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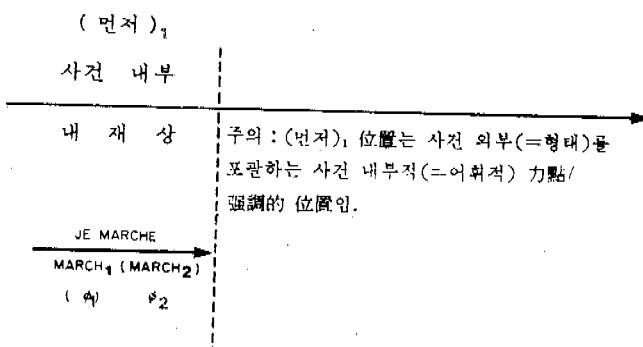
2) G. 식 表記와 3) 초월적 表記의 比較는 이미 앞(*앞: p. 189 참조)에서 하였으므로,

1) 전통언어학식 表記만을 아래에 앞서의 예에 따라서, (먼저)₁/(먼저)₂ 位置와 (나중)₂ 位置로 나누어 표시한다:

1) 전통언어학식(어휘 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에 있어서의 (먼저)₁/(먼저)₂ 位置:

(먼저)₁ 位置(JE MARCHÉ)에서의 어휘(\rightarrow : MARCH)와 형태(\cdots : ϕ)의 等方向적 共存位置(\rightarrow : MARCH+ ϕ)과 그와 等方向의 (먼저)₂ 位置(AI MARCHÉ)에서의 어휘(\rightarrow : MARCHÉ)와 형태(\rightarrow : AI)는, (나중)₂ 位置(\rightarrow \rightarrow \rightarrow : MARCHÉ+EU+AI)의 데두리 안에서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rightarrow : MARCH+ ϕ / \rightarrow \rightarrow : MARCHÉ+AI)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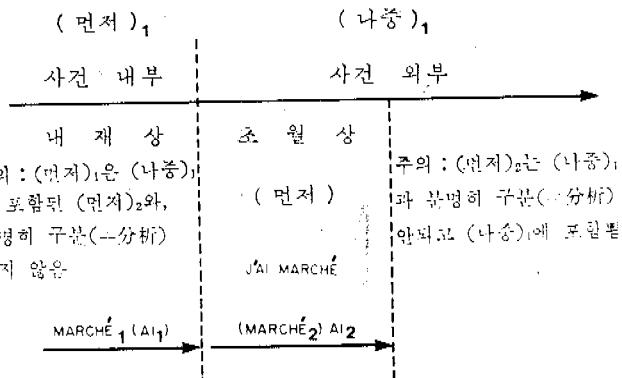
이것을 (먼저)₁과 (먼저)₂ 位置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시하고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₁ 位置:

(먼저)₁(=사건 내부=어휘₁=T₁= \rightarrow : MARCH-)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T₁)과 그것(=T₁)

의 내부적 형태(\rightarrow : MARCH(ϕ)= q_1) 및 외부적 형태(\cdots : (MARCH) ϕ = q_2)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公式(1)로는 $(T_1+q_1)_1+(T_2+q_2)_2$, 公式(2)로는 $T(q_1 \rightarrow q_2)$, 즉 $(\text{MARCH}_1+\phi_1)_1+(\text{MARCH}_2+\phi_2)_2$, MARCH($\phi_1 \rightarrow \phi_2$)로 表記 가능한 共存位置(*앞 pp. 188-189의 公式(1)/公式(2)項 참조)(*주의: 아래 그림의 (먼저)는 (먼저)₂로 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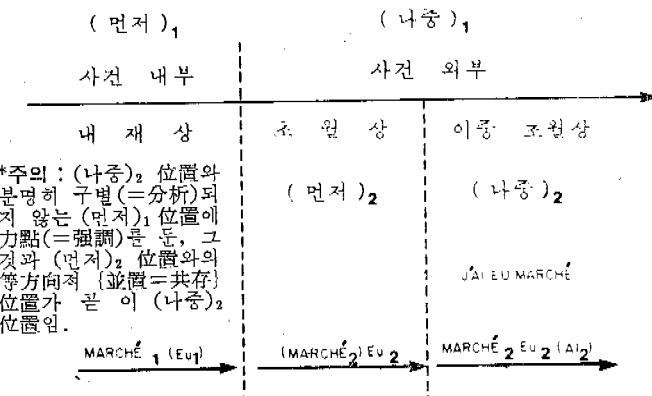


* $(\text{먼저})_2$ 位置:

(나중)₁(=사건 외부=어휘₂= T_2 = \rightarrow MARCHÉ₁ \rightarrow AI₁)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나중₁=먼저₂)과, 그것(= T_2)의 내부적 형태(=먼저₁=사건 내부= \rightarrow : MARCHÉ₁(AI₁)= q_1) 및 외부적 형태(=먼저₂= \rightarrow : (MARCHÉ₂)AI₂= q_2)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T_2+q_2)_2+(T_1+q_1)_1$ (=公式₁), $T(q_2 \rightarrow q_1)$ (=公式₂), 즉 $(\text{MARCHÉ}_2+\text{AI}_2)_2+(\text{MARCHÉ}_1+\text{AI}_1)_1$, MARCHÉ(AI₂ \rightarrow AI₁)로 表記 가능한 共存位置.

이어서,

전통언어학식(어휘 위주의 表記에 있어서의 위 그림에서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먼저)₁ 位置와 (먼저)₂ 位置의, 並置적 位置, 즉 그 並置의 시발점이 되는 (먼저)₁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먼저)₂ 位置와의 等方向적 共存(=並置) 位置 \Rightarrow (나중)₂ 位置:



*위 그림에서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먼저)₁ 位置, 즉:

公式(1)의 $(T_1+q_1)_1+(T_2+q_2)_2 \Rightarrow (\text{MARCH}_1+\phi_1)_1+(\text{MARCH}_2+\phi_2)_2$;

公式(2)의 $T(q_1 \rightarrow q_2) \Rightarrow \text{MARCH}(\phi_1 \rightarrow \phi_2)$ 와, (먼저)₂ 位置, 즉:

公式(1)의 $(T_2+q_2)_2+(T_1+q_1)_1 \Rightarrow (MARCHÉ_2+AI_2)_2+(MARCHÉ_1+AI_1)_1$;

公式(2)의 $T(q_2 \rightarrow q_1) \Rightarrow MARCHÉ(AI_1 \rightarrow AI_2)$ 의, [並置]적 位置 즉 그 [並置]의 시 발점이 되는 (먼저)₁ 位置(=위 公式(1)/(2) 및 그 예)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먼저)₂ 位置(=위 公式(1)/(2) 및 그 예)와의, 等方向적 [並置](=共存) 位置 즉:

公式(1)로는: $\underbrace{(T_1+q_1)_1}_{\text{(먼저)}_1} + \underbrace{(T_2+q_2)_2}_{\text{(먼저)}_2} + \underbrace{(T_2+q_2)_2}_{\text{(먼저)}_2} + \underbrace{(T_1+q_1)_1}_{\text{(먼저)}_1}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었을 때를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T_2+q_2)_2}_{\text{(먼저)}_2} + \underbrace{(T_1+q_1)_1}_{\text{(먼저)}_1}, 즉: \underbrace{((MARCH_1+\phi_1)_1 + (MARCH_2+\phi_2)_2}_{\text{(먼저)}_1} + \underbrace{(MARCH_2+\phi_2)_2}_{\text{(먼저)}_2}$

$+ \underbrace{(MARCHÉ_2+AI_2)_2}_{\text{(먼저)}_2} + \underbrace{(MARCHÉ_1+AI_1)_1}_{\text{(먼저)}_1}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 $\underbrace{((EU MARCHÉ+AI_2)_2 + (EU MARCHÉ_1+AI_1)_1)}$;

公式(2)로는: $\underbrace{T}_{\text{(나중)}_2} \underbrace{(q_1 \rightarrow q_2)}_{\text{(먼저)}_1} \underbrace{(\rightarrow)}_{\text{(나중)}_2} \underbrace{T}_{\text{(먼저)}_2} \underbrace{(q_2 \rightarrow q_1)}_{\text{(먼저)}_1}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T}_{\text{(나중)}_2} \underbrace{(q_2 \rightarrow q_1)}_{\text{(먼저)}_2} \underbrace{(\rightarrow)}_{\text{(나중)}_2} \underbrace{T}_{\text{(먼저)}_1} \underbrace{(q_1 \rightarrow q_2)}_{\text{(먼저)}_1}$, 즉 EU MARCHÉ $(AI_1 \rightarrow AI_2) \rightarrow$

$\underbrace{EU MARCHÉ}_{\text{(나중)}_2} \underbrace{(AI_2 \rightarrow AI_1)}_{\text{(먼저)}_2} \Rightarrow (\text{表記上으로 } (나중)_2 \text{에 力點을 두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underbrace{EU MARCHÉ}_{\text{(나중)}_2} \underbrace{(AI_2 \rightarrow AI_1)}_{\text{(먼저)}_2}$.

*o) [並置]적 位置의 特징은, (나중)₂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나중)₁ 位置에서의 (먼저)₁ 位置/(먼저)₂ 位置와의, 等方向적 共存(=並置)이다. 따라서 이 特징은, 위에서 설명한 (먼저)₁ 位置/(먼저)₂ 位置(=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와, 다 같이, (나중) 位置와 분명히 구별(=分析)되지 않는 (먼저)₁ 位置/(먼저)₂ 位置=(나중) 位置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먼저)₁ 位置/(먼저)₂ 位置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 그 特징을 함께 한다.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의 表記, 즉: 1) 전통언어학식(어휘 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2) G.식·전통언어학식(어휘 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그리고 3) 초월적·脫전통언어학식(형태 위주의)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表記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전통언어학식(어휘 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 주의(1): 그럼 안의 화살표에서의 비괄호/괄호()의 구별 표시는 力點(=強調)/非力點(=非強調)의 구별 표시임.

* 주의(2) : 아래 公式에서 T=어휘, q=형태이고, 순서상 먼저/나중은 力點(=強調)/非力點(=非強調)을 표시함(앞 pp.181-182 참조).

* 주의(3) : 이 表記는 아래 2)의 G.식 表記에 비하여, 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으나, 그 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형태(q)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表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앞 pp.195-196 참조). 따라서 非分析적 表記임.

(먼저) ₁		(나중) ₁	
사건 내부		사건 외부	
내 채 상	초월상	이중 초월상	
(I) JE MARCHÉ MARCHÉ ₁ (φ ₁) (MARCHÉ ₂) φ ₂	(먼저) ₂ J'AIS MARCHÉ	(나중) ₂ J'AI EU MARCHÉ	
(II) MARCHÉ ₁ (AI ₂)	(MARCHÉ ₂) AI ₂		
(III) MARCHÉ ₁ (EU ₁)	(MARCHÉ ₂) EU ₂	MARCHÉ ₂ EU ₂ (AI ₂)	

{(I) : (T₁+q₁)₁+(T₂+q₂)₂₂+q₂)₂+(T₁+q₁)₁} {(III) : ((T₂+q₂)₂+(T₁+q₁)₁)₁}
{(公式(1) : (T₁+q₁)₁+(T₂+q₂)₂ } {(公式(2) : T(q₁→q₂) } { (公式(1) : (T₂+q₂)₂+(T₁+q₁)₁)₁ }
{(公式(2) : T(q₂→q₁) } { (公式(2) : T(q₂→q₁) } { (公式(2) : T(q₂→q₁) }

2) G.식 · 脱전통언어학식(어휘 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

* 주의(1), (2) : 위 1)의 주의(1), (2)와 같음.

* 주의(3) : 이 表記는 위 1)의 전통언어학식 表記에 비하여, 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어휘(T)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형태(q)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表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앞 p.195 참조). 따라서 위 1)식 表記에 비하여는 分析적 表記임. 그러나 (어휘 위주)라는 점에서 아래 3)의 (형태_위주)表記에 비해서는 非分析적 表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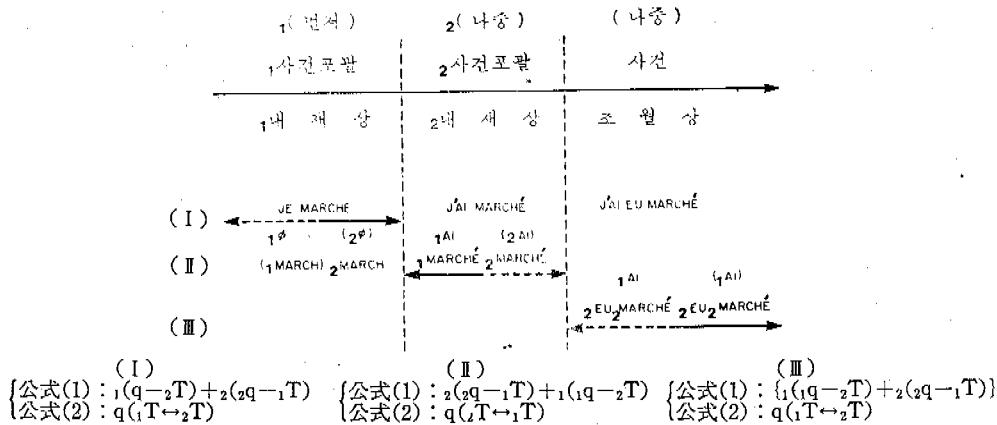
(먼저) ₁		(나중) ₁	
사건 내부		사건 외부	
내 채 상	초월상	이중 초월상	
(I) JE MARCHÉ MARCHÉ ₁ φ ₂ (φ ₁) (MARCHÉ ₂)	(먼저) ₂ J'AIS MARCHÉ	(나중) ₂ J'AI EU MARCHÉ	
(II) MARCHÉ (AI ₁)	(MARCHÉ ₂) AI ₂		
(III) MARCHÉ ₁ (EU ₁)	(MARCHÉ ₂) EU	MARCHÉ ₂ EU ₂ (AI ₂)	

{(I) : (T₁-q₂)₁+(T₂-q₁)₂₂-q₁)₂+(T₁-q₂)₁} {(III) : ((T₂-q₁)₂+(T₁-q₂)₁)₁}
{(公式(1) : (T₁-q₂)₁+(T₂-q₁)₂ } {(公式(2) : T(q₂↔q₁) } { (公式(1) : (T₂-q₁)₂+(T₁-q₂)₁)₁ }
{(公式(2) : T(q₂↔q₁) } { (公式(2) : T(q₂↔q₁) } { (公式(2) : T(q₂↔q₁) }

3) 초월적 · 脱전통언어학식(형태 위주의)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表記 :

* 주의(1), (2) : 위 1)의 주의(1), (2)와 같음.

* 주의(3) : 이 表記는 위 1) 및 2) 表記에 비하여, 形태(q)에 力點(=調強)을 둔, 그것과 어휘(T)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表記라는 점에서, 완전한 分析적 表記임(앞 p. 196 참조).



위 종합적 그림에 나타난 1) 전통식, 2) G.식, 3) 초월식 表記를, 分析의 성격이라는 각도에 주의를 집중시켜서 公式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편의상 公式(2)를 사용함) :

1) 전통식(어휘 위주의) 表記 :

* T(=어휘)와 ($q_1 \rightarrow q_2$)(=형태)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 :

1) (언제)₁(=내재적) 位置 : T(=어휘=어휘 내부)에 力點(=強調)을 둔, T(=어휘 내부)와 ($q_1 \rightarrow q_2$)(=형태=어휘 외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즉 : T($q_1 \rightarrow q_2$). 이 때 T(=어휘 내부)는 그에 첨가되는 ($q_1 \rightarrow q_2$)(=어휘 내부의 형태)에 대하여 어휘적 피 첨가적(=내재적) 성격을 띤다.

2) (언제)₂(=초월적) 位置 : ($q_2 \rightarrow q_1$)(=형태=어휘 외부)에 力點(=強調)을 둔, T(=어휘=외부)와 ($q_1 \rightarrow q_2$)(=형태=어휘 외부)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즉 : T($q_2 \rightarrow q_1$). 이 때 ($q_2 \rightarrow q_1$)(=어휘 외부의 형태)는 그것이 첨가되는 T(=외부적 어휘)에 대하여 어휘적 첨가적(=초월적) 성격을 띤다.

* 위 (언제)₁ 位置 : T($q_1 \rightarrow q_2$)(=어휘=어휘 내부)와 (언제)₂ 位置 : T($q_2 \rightarrow q_1$)(=형태=어휘 외부)의 等方向적 並置적(=이중 초월적) 共存位置 즉 : T($q_1 \rightarrow q_2$) → T($q_2 \rightarrow q_1$), 逆 T($q_2 \rightarrow q_1$)(=언제₂=어휘 외부)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T($q_1 \rightarrow q_2$)(=언제₁=어휘 내부)와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 T($q_2 \rightarrow q_1$). 이 때 T($q_2 \rightarrow q_1$)(=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는, 그에 첨가되는 T($q_1 \rightarrow q_2$)(=언제₁=어휘 내부의 형태) 및 T($q_2 \rightarrow q_1$)(=언제₂=어휘 외부의 형태)에 대하여, 어휘적 피 첨가적(이중초월적) 성격을 띤다.

2) G.식 · 脱전통식(어휘 위주의) 表記 :

* T(=어휘)와 ($q_1 \leftrightarrow q_2$)(=형태)의 異(逆)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 :

1) (언제)₁(=내재적) 位置 : T(=어휘=어휘 내부)에 力點(=強調)을 둔, T(=어휘 내부)와 ($q_1 \leftrightarrow q_2$)(=형태=어휘 외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즉 : T($q_1 \leftrightarrow q_2$). 이 때 T(=어휘 내부)는 그것을 실현하는 ($q_1 \leftrightarrow q_2$)(=어휘 내부의 형태)에 대하여, 위의 1)식 表記의 어휘적 피 첨가적 T(=

어휘 내부)를 分析한, 어휘적 張力體(=잠재체=내재)적 성격을 떤다.

2) (**먼저**)₂(=초월적)位置 : $(q_2 \leftrightarrow q_1)$ (=형태=어휘 외부)에 力點(=強調)을 둔, T(=어휘=외부적 어휘)와 $(q_1 \leftrightarrow q_2)$ (=형태=어휘 외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즉 : T($q_2 \leftrightarrow q_1$). 이 때 $(q_2 \leftrightarrow q_1)$ (=어휘 외부의 형태)는 그것이 실현하는 T(=외부적 어휘)에 대하여, 위의 1)식 表記의 어휘적 · 첨가적(=초월적) $(q_2 \rightarrow q_1)$ (=어휘 외부의 형태)를 分析한, 어휘적 실현체적(=초월적) 성격을 떤다.

* 위 (**먼저**)₁ 位置 : T($q_1 \leftrightarrow q_2$)(=어휘=어휘 내부)와 (**먼저**)₂ 位置 : T($q_2 \leftrightarrow q_1$)(=형태=어휘 외부)의 異(逆)方向적 並置적(=이중 초월적) 共存位置 즉 : T($q_1 \leftrightarrow q_2$) \leftrightarrow T($q_2 \leftrightarrow q_1$), 즉 T($q_2 \leftrightarrow q_1$)(=먼저₂=어휘 외부)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T($q_1 \leftrightarrow q_2$)(=먼저₂=어휘 내부)와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 T($q_2 \leftrightarrow q_1$). 이 때 T($q_2 \rightarrow q_1$)(=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는, 그것을 실현하는 T($q_1 \leftrightarrow q_2$)(=먼저₁=어휘 내부의 형태) 및 T($q_2 \leftrightarrow q_1$)(=먼저₂=어휘 외부의 형태)에 대하여, 위의 1)식 表記의 어휘적 과 첨가체적(=내재체적) T($q_2 \rightarrow q_1$)(=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를 分析한, 어휘적 張力體적(=잠재체적=이중초월적) 성격을 떤다.

3) 초월식 · 脫遁通식(형태 위주의) 表記 :

* (${}_1q \leftrightarrow {}_2q$)(=형태)와 T(=어휘)의 異(逆)direction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 :

1) (**먼저**)(=초월적)位置 : q (=형태=어휘 초월 · 포괄)에 力點(=強調)을 둔, q (=어휘 초월 · 포괄)과 (${}_1T \leftrightarrow {}_2T$)(=어휘=형태 내재 · 괴포괄)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즉 : $q(T \leftrightarrow {}_2T)$. 이 때 q (=어휘 초월 · 포괄)는 그에 포함되는 (${}_1T \leftrightarrow {}_2T$)(=형태에 내재하는 괴포괄적 어휘)에 대하여, 위의 2)식 表記의 어휘적 張力體(=잠재체)적 T를 分析내지 초월한, 형태적 포괄체적(=초월적) 성격을 떤다.

2) (**먼저**)(=초월적)位置 : (${}_2T \leftrightarrow {}_1T$)(=형태에 내재하는 괴포괄적 어휘)에 力點(強調)을 둔, q (=형태=어휘를 초월한 포괄적 형태)와 (${}_2T \leftrightarrow {}_1T$)(=어휘=형태 내재 · 괴포괄)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즉 : $q({}_2T \leftrightarrow {}_1T)$. 이 때 (${}_2T \leftrightarrow {}_1T$)(=형태에 내재하는 괴포괄적 어휘)는 그것을 포함하는 q (=어휘를 초월한 포괄적 형태)에 대하여, 위의 2)식 表記의 어휘적 실현체적(=초월적) $(q_2 \leftrightarrow q_1)$ 을 分析내지 초월한, 형태적 괴포괄체적(=내재체적) 성격을 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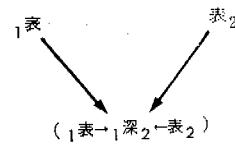
* 위 (**먼저**) 位置 : $q(T \leftrightarrow {}_2T)$ (=형태=어휘 포괄)과 (**먼저**) 位置 : $q({}_2T \leftrightarrow {}_1T)$ (=형태=어휘 포괄)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내재체적) 共存位置 즉 : $q({}_1T \leftrightarrow {}_2T) \leftrightarrow q({}_2T \leftrightarrow {}_1T)$, 즉 $q(T_1 \leftrightarrow {}_2T)$ (=먼저₁=어휘 포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q({}_2T \leftrightarrow {}_1T)$ (=먼저₂=어휘 포괄)와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position 즉 : $q({}_1T \leftrightarrow {}_2T)$. 이 때 $q({}_1T \leftrightarrow {}_2T)$ (=먼저₁=어휘 포괄)과 ${}_2$ 어휘포괄의 並置는 그것을 포함하는 $q({}_1T \leftrightarrow {}_2T)$ (=먼저₁=어휘 포괄) 및 $q({}_2T \leftrightarrow {}_1T)$ (=먼저₂=어휘 포괄)에 대하여, 원변의 2)식 表記의 어휘적 張力體(=잠재체=이중 초월적) T($q_2 \leftrightarrow q_1$)(=어휘 내부와 어휘 외부의 並置)를 分析내지 초월한, 형태적 괴포괄체적(=내재체적) 성격을 떤다.

위의 세 表記의 比較를 對角線으로 表記하여 比較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6에 해당함) :

* 주의 : 가로의 (1)/(2)/(3)은 각각 위의 세 表記의 구분(=전통식/G.식/초월식 表記)을 나타냄; 세로의 (1)/(2)는相互拒否적 (**먼저**)₁/(**먼저**)₂((1)/(2) 表記의 경우) 내지 ${}_1$ (**먼저**) $/{}_2$ (**먼저**)((3)表記의 경우)를 나타내고, (3)은 並置적 (나중)₁/(나중)₂(=(1)/(2) 表記의 경우) 내지 (나중)(=(3) 表記의 경우)을 나타냄; 對角線 그림 각자율 설명하는 公式에서 變形은 並置(=매듭=核)=(나중)을 나타내고, 深/表는相互拒否적 (**먼저**)=(非매듭=非核)을 나타내고, 變形/深/表 각자에 붙은 숫자 표시 (ϕ , 1, 2)는, 1=(**먼저**)₁, 2=(**먼저**)₂, 1·2=(나중)(=(1)식 表記와 (2)식 表記의 경우)을, ${}_1\phi$ = ${}_1$ (**먼저**), ${}_2\phi$ = ${}_2$ (**먼저**), 1·2=(나중)(=(3)식 表記의 경우)을 각각 나타냄(*이 그림은 拙稿 : 變形理論과 그 類

型의 定立作業, 語學研究(23:03), 1987, pp.425-426의 그림을, 위의 (1)/(2)/(3)의 表記의 설명에 맞게 배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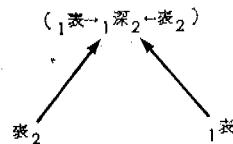
(1)

° 等方向적 變形 ${}_1有_1(= {}_1變)$ 의 公式 (1)“ ${}_1表 \rightarrow ({}_1變) \rightarrow {}_1深_2 \leftarrow ({}_2變) \rightarrow {}_2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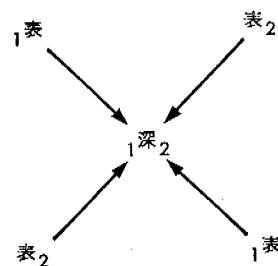
*주의: 等方向적 숫자 표시는, 左/右를, 숫자 순에 따라, 그 표시 장소로 함, 이하 모두에 해당됨.

° 等方向적 變形 ${}_1有_2(= {}_2變)$ 의 公式“ ${}_2表 \rightarrow ({}_2變) \rightarrow {}_1深_2 \leftarrow ({}_1變) \rightarrow {}_1表$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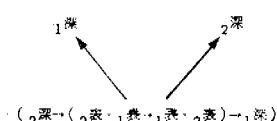
° 等方向적 變形 ${}_1有_2(= {}_2變)$ 의 公式“ ${}_1表 \rightarrow ({}_1變) \rightarrow {}_1深_2 \leftarrow ({}_2變) \rightarrow {}_2表$ ”

(2)

° 異方向적 變形 ${}_1有_1(= {}_1變)$ 의 公式“ ${}_1深_2 \leftarrow ({}_1變) \rightarrow ({}_2表 \cdot {}_1表 \rightarrow {}_1表 \cdot {}_2表) \rightarrow ({}_2變) \rightarrow {}_2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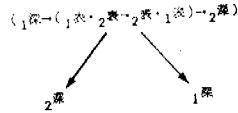
(1)

*주의: 準異方向의 숫자 표시는, 위(1)의 주의와 같되, 괄호()안에 넣어서 표시함. 이 그림에서의 표시는 괄호() 표시로 간주함.

° 異方向적 變形 ${}_2有_2(= {}_2變)$ 의 公式

“ $_2\text{深} - ({}_{_2}\text{變}) \rightarrow ({}_{_1}\text{表} \cdot {}_{_2}\text{表} \rightarrow {}_{_2}\text{表} \cdot {}_{_1}\text{表}) - ({}_{_1}\text{變}) \rightarrow {}_{_1}\text{深}$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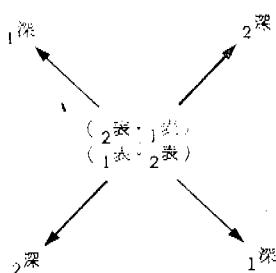


*주의: 이 그림 및 바로 위 그림의 원면/오른편의 가는선/굵은선의 화살표시는 바꿔서 읽음.

°異方向적 變形 ${}_1\text{有} \cdot {}_2\text{有} (={}_{_1}\text{變} \cdot {}_{_2}\text{變})$ 의 公式

“ ${}_1\text{深} - ({}_{_1}\text{變}) \rightarrow ({}_{_2}\text{表} \cdot {}_{_1}\text{表} \rightarrow {}_{_1}\text{表} \cdot {}_{_2}\text{表}) - ({}_{_2}\text{變}) \rightarrow {}_{_2}\text{深}$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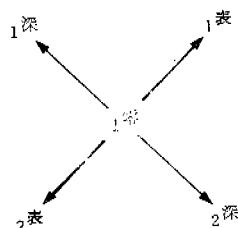
*주의: 이 그림의 화살 표시는 모두 길은 화살 표시로 읽음.

(3)

°異方向적 變形 ${}_1\text{零} ({}_{_1}\phi)$ 의 公式

“ ${}_1\text{深} - ({}_{_1}\phi) \rightarrow ({}_{_2}\text{表} \rightarrow {}_{_1}\text{表}) - ({}_{_2}\phi) \rightarrow {}_{_2}\text{深}$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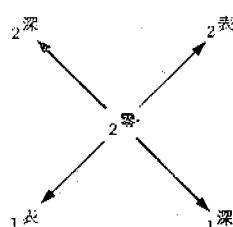


*주의: 异方向적 숫자 표시는, 숫자순에 관계 없이 항상, 左를 그 표시장소로 함. 이하 모두에 해당됨.

°異方向적 變形 ${}_2\text{零} ({}_{_2}\phi)$ 의 公式

“ ${}_2\text{深} - ({}_{_2}\phi) \rightarrow ({}_{_1}\text{表} \rightarrow {}_{_2}\text{表}) - ({}_{_1}\phi) \rightarrow {}_{_1}\text{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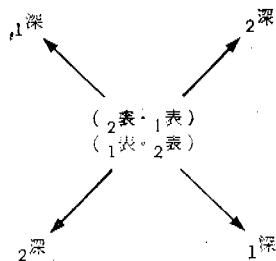
(2)



°異方向적 變形 $_1$ 有・ $_2$ 有($=_1\text{變} \cdot _2\text{變}$)의 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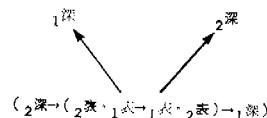
“ $_1\text{深} -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 ({}_2\text{變}) \rightarrow {}_2\text{深}$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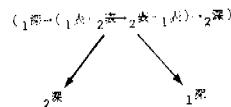
°異方向적 變形 $_1$ 有($=_1\text{變}$)의 公式

“ $_1\text{深} -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 ({}_2\text{變}) \rightarrow {}_2\text{深}$ ”



°異方向적 變形 $_2$ 有($=_2\text{變}$)의 公式

“ $_2\text{深} - ({}_2\text{變})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 ”



* 주의 : 이 그림 6의 (1)식과 (2)식 表記의 세로의 (순서) : (1), (2), (3)은, 이들 (1)식 및 (2)식 表記가, (3)식 表記에 대한 誤認(=混同)임을 認定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즉, (3)식 表記와 같다고 主張하는 表記에서의 (순서)임에 주의. 따라서 (순서) (3)이 맨 위로 올라가고 (순서) (1), (2)가 그 밑에 옴에 주의(*위 pp. 221-224 참조).

위 對角線 그림의 比較 설명은, 이미 앞에서 T(=어휘)와 q(=형태)의 共存位置를 그 分析이라는 갈도에 초점을 두고 설명한 바를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끝 부분(=(3) 즉 並置적 位置)만을 比較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1)

* 위 그림의 (먼저) $_1$ (=매듭 $_1$ 有二內재적) 位置(↖↗) : “ $_1\text{表} -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2\text{變}) - {}_1\text{表}_2$ ”(매듭有二內재적=어휘=어휘 내부)와 (먼저) $_2$ (=초월적) 位置(↖↖) “ $\text{表}_2 - ({}_2\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1\text{變}) - {}_1\text{表}_1$ ”(=매듭有二形態=어휘 외부)의 等方向적 並置적(=이중 초월적) 共存位置(↖↖) 즉 : “ $\text{表} -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2\text{變}) - {}_1\text{表}_2$ ” 즉 (먼저) $_2$ (↖↖)(=매듭有二形態=어휘 외부)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먼저) $_1$ (↖↗)(=매듭有二內재적=어휘 내부)과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매듭有二). 이 때 그 並置적 共存位置(↖↖)(=매듭有二)는, 그에 첨가되는 (먼저) $_1$ (↖↗)(=매듭有二=어휘 내부의 형태=위 해당 公式) 및 (먼저) $_2$ (↖↖)(=매듭有二=어휘 외부의 형태=위 해당 公式)에 대하여, 어휘적 과정가체적(=이 중 초월적) 성격을 띤다.

* 위에 말한 바로부터, 어휘적 과침가체적(=이중 초월적) 성격을 띤 等方向적 並置적 매듭₁有₂적 共存位置()(=위 해당 公式)를, 그것을 等方向적 첨가적으로 구성하는 (먼저)₁적(=내재적=어휘 내부의 형태적=매듭₁有적) 位置()(=위 해당 公式) 및 (먼저)₂적(=초월적=어휘 외부의 형태적=매듭₂有적) 位置()(=위 해당 公式)에 대하여, 統辭論(=먼저₁과 먼저₂의 等方向적 並置적 位置)이라 부르고, 그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구성요소 즉 (먼저)₁ 位置()와 (먼저)₂ 位置()를 形態論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이 (1)식 表記에 있어서의 等方向적 形態論/統辭論의 구분(=分析)의 토대는 언제나 等方向적 統辭論에 있다. 따라서 이 (1)식 等方向식 表記에 있어서는, 形태론/통사론이 구분(=分析)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은 통사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원래가 分析不能의 核(매듭)을 위주로 한 그것과 非核(=非매듭)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 形태론/통사론의 구분(=analysis)이 없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核(=매듭)과 非核(=非매듭)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통사론(=통사론적 形태론 및 통사론적 통사론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사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 예컨대, 위 等方向적 脫對角線그림의

(1) 等方向적 變形₁有₁(=變₁)의 公式:

“表₁—(變₁)→₁深₂←(變₂)—表₂”, 즉 (먼저)₁ 位置와, 그와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먼저)₂ 位置, 즉:

(2) 等方向적 變形₂有₂(=變₂)의 公式:

“表₂—(變₂)→₁深₂←(變₁)—表₁”을 통사론적 形태론이라 할 때, 그것들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3) 等方向적 變形₁有₂(=變₂)의 公式 즉:

“表₁—(變₁)→₁深₂←(變₂)—表₂”는 통사론적 통사론이다.

그런데, 이 (1)/(2) 位置와 (3) 位置는, 원래가 分析不能의 어휘적·통사론적·核적·매듭有적 (3) 位置의支配를 받는, 形태론/통사론의 구별(=分析)이 없는 等方向적 共存位置를 이룬다. 이때 이것을 形태론이라고 할 때, 이 等方向적 形태론적 共存位置에 대한, 역시 等方向적 통사론적 共存位置(=통사론)란, 等方向적 形태론적 共存位置의 중심이 되는 (3) 位置 즉 통사론적·어휘적 核(=매듭)을, 그보다 더 큰(=그것이 等方向적으로 첨가되어 이를했다고 생각되는) 즉 等方向적 통사론적·어휘적 核(=매듭)으로 바꾼,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1), (2), (3)의 等方向적 共存position이다. 즉 모두가 각각 形태론/통사론으로 구분(=分析)되지 않고 오직 통사론만이 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모양은 모두 (3) 位置()를 중심으로 향한 等方向적 準脫對角線()이 된다.

(2)

* 위 그림의 ₍₁₎(먼저)(=매듭₍₁₎有₁内부의 형태적) 位置(): “₁深—(變₁)→(表₂·表₁表₂表₁)—(變₂)→₂深”(=매듭₍₁₎有₁内부의 형태적=어휘 내부)와 ₍₂₎(먼저)(=초월적) 位置()(=매듭₍₂₎有₂外부의 형태적=어휘 외부)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₁深—(變₁)→(表₂·表₁表₂表₁)—(變₂)→₂深”, 즉 ₍₂₎(먼저)()(=매듭₍₂₎有₂外부의 형태적=어휘 외부)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₁₎(먼저)()(=매듭₍₁₎有₁内부의 형태적=어휘 내부)과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位置()(<=매듭₍₁₎有₁·₍₂₎有₂)). 이때 그 並置적 共存位置()(<=매듭₍₁₎有₁·₍₂₎有₂))는, 그것을 실현하는 ₍₁₎(먼저)()(=매듭₍₁₎有₁内부의 형태적=어휘 내부의 형태적=위 해당 公式) 및 ₍₂₎(먼저)()(=매듭₍₂₎有₂外부의 형태적=어휘 외부의 형태적=위 해당 公式)에 대하여, 어휘적 과실현체(=잔재체=이중 초월)적 성격을 띤다.

* 위에 말한 바로부터, 어휘적 과실현체(=잔재체=이중 초월)적 성격을 띤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매듭₍₁₎有₁有₂적 共存位置()(<=위 해당 公式)를, 그것을 異(逆)direction적으로 실현하는 ₍₁₎(먼저)(=내재적=어휘 내부의 형태적=매듭₍₁₎有₁적) 位置()(=위 해당 公式) 및 ₍₂₎(먼저)적(=초월

적(=어휘의 부의 형태적=매듭₍₂₎有側) 位置() (=위 해당 公式)에 대하여, 統辭論(=₍₁₎먼저 와 ₍₂₎먼저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位置)이라 부르고, 그 異(逆)方向적相互拒否적 실현요소 즉 ₍₁₎(먼저) 位置()와 ₍₂₎(먼저) 位置()를 形態論이라 부른다.

그리므로 이 (2)식 表記에 있어서의 異(逆)方向적 形態論/統辭論의 구분(=分析)의 토대는 언제나 異(逆)方向적 統辭論에 있다. 따라서 이 (2)식 異(逆)方向식 表記에 있어서는, 형태론/통사론이 구분(=分析)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모든 것은 통사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원래가 分析不能의 核(=매듭)을 위주로 한 그것과 非核(=非매듭)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 형태론/통사론의 구분(=analysis)이 없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核(=매듭)과 非核(=非매듭)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통사론(=통사론적 형태론 및 통사론적 통사론이라는 의미에서의 통사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 예컨대, 위 準異(逆)方向적 準對角線 그림의

(1) 異方向적 變形 ₁有(=₁變)의 公式:

“₁深—(₁變)→(₂表·₁表→₁表·₂表)—(₂變)→₂深”, 즉 ₍₁₎(먼저) 位置와, 그와 異(逆)方向적相互拒否적 ₍₂₎(먼저) 位置, 즉 :

(2) 異方向적 變形 ₂有(=₂變)의 公式:

“₂深—(₂變)→(₁表·₂表→₂表·₁表)—(₁變)→₁深”을 통사론적 형태론이라 할 때, 그것들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

(3) 異方向적 變形 ₁有·₂有의 公式:

“₁深—(₁變)→(₂表·₁表→₁表·₂表)—(₂變)→₂深”는 통사론적 통사론이다.

그런데, 이 (1), (2)位置와 (3)position은, 원래가 分析不能의 어휘적·통사론적·核적·매듭有側 (3)position의 支配를 받는, 형태론/통사론의 구별(=analysis)이 없는, 異(逆)direction적共存position을 아룬다. 이 때 이것을 형태론이라고 할 때, 이 異(逆)direction적 형태론적共存position에 대한, 역시 異(逆)direction적 통사론적共存position(=통사론)은, 異(逆)direction적 형태론적共存position의 중심이 되는 (3)position 즉 통사론적·어휘적·核(=매듭)을, 그보다 더 큰(=그것이 異(逆)direction적으로 실현되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즉 異(逆)direction적 통사론적·어휘적核(=매듭)으로 바꾼,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1), (2), (3)(=위 公式 참조)의 異(逆)direction적共存position이다. 즉 모두가 각각 형태론/통사론으로 구분(=analysis)되지 않고, 오직 통사론만이 있다.

그리고 그림의 모양은 모두, (3)position()를 중심으로 한 異(逆)direction적 準對角線(, )이 된다.

(3)

* 위 그림의 ₁(먼저)(=매듭₁ ϕ =₁초원적) 位置() : “₁深—(₁ ϕ)→(₂表→₁表)—(₂ ϕ)→₂深”(=매듭₁ ϕ =₁형태=₁어휘포괄)와 ₂(먼저)(=₂초원적) 位置() (=매듭₂ ϕ =₂형태=₂어휘포괄)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내재적) 共存position(   ) 즉 : “₁深—(₁變)→(₂表·₁表→₁表·₂表)—(₂變)→₂深”, 즉 ₁(먼저)() (=매듭₁ ϕ =₁형태=₁어휘포괄)에 力點(=強調)을 두, 그것()과 ₂(먼저)() (=매듭₂ ϕ =₂형태=₂어휘포괄)와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position(   ) (=매듭₁有·₂有). 이 때 그 並置적 共存position(       ) (=매듭₁有·₂有)는, 그것을 포괄하는 ₁(먼저)() (=매듭₁ ϕ =₁형태=₁어휘포괄=위 해당 公式) 및 ₂(먼저)() (매듭₂ ϕ =₂형태=₂어휘포괄=위 해당 公式)에 대하여, 형태적 괴포괄체(=내재적) 성격을 띤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매듭₁有·₂有의 共存position(       ) (=위 해당 公式)를, 그것을 異(逆)direction적으로 포괄하는 ₁(먼저)적

* 위에 말한 바로 부터, 형태적 괴포괄체(=내재적) 성격을 띤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매듭₁有·₂有의 共存position(       ) (=위 해당 公式)를, 그것을 異(逆)direction적으로 포괄하는 ₁(먼저)적

($=_1$ 초월적 $=_1$ 어휘포괄적 $=$ 매듭 $_1\phi$ 적) 位置() (=위 해당 公式) 및 $_2$ (먼저)적 ($=_2$ 초월적 $=_2$ 어휘포괄적 $=$ 매듭 $_2\phi$ 적) 位置() (=위 해당 公式)에 대하여, 統辭論($=_1$ 먼저 位置와 $_2$ 먼저 位置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位置)이라 부르고, 그 異(逆)方向적 相互拒否적 포괄요소 즉 $_1$ (먼저) 位置()와 $_2$ (먼저) 位置()를 形態論이라 부른다.

그리므로 이 (3)식 表記에 있어서의 異(逆)direction적 形態論/統辭論의 구분(=分析)의 토대는 언제나 異(逆)direction적 形態論에 있다. 따라서 이 (3)식 表記에 있어서는, 형태론/통사론이 구분(=分析)된다 의미에서, 모든 것은 형태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즉 원래가 分析可能의 非核(非매듭)을 위주로 한 그것과 核(=매듭)과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라는 점에서, 형태론/통사론이 구분(=analysis)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추상적인 非核(=非매듭)과 核(=매듭)과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형태론(=형태론적 형태론 및 형태론적 통사론이라는 의미에서의 형태론)이라는 말이 나온다.

* 예컨대, 위 異(逆)direction적 對角線 그림의

(1) 異direction적 變形 $_1$ 零($_1\phi$)의 公式:

$"_1$ 深—($_1\phi$) \rightarrow ($_2$ 表 \rightarrow $_1$ 表) \rightarrow ($_2\phi$) \rightarrow $_2$ 深”, 즉 $_1$ (먼저) 位置와, 그와 異(逆)direction적 相互拒否적 $_2$ (먼저) 位置, 즉 :

(2) 異direction적 變形 $_2$ 零($_2\phi$)의 公式:

$"_2$ 深—($_2\phi$) \rightarrow ($_1$ 表 \rightarrow $_2$ 表)—($_1\phi$) \rightarrow $_1$ 深”을 형태론적 형태론이라 할 때, 그것들의 異(逆)direction적 並置적 共存位置 즉 :

(3) 異direction적 變形 $_1$ 有・ $_2$ 有의 公式:

$"_1$ 深—($_1$ 變) \rightarrow ($_2$ 表・ $_1$ 表 \rightarrow $_1$ 表・ $_2$ 表)—($_2$ 變) \rightarrow $_2$ 深) 및 °異direction적 變形 $_1$ 有($=_1$ 變)의 公式/°異direction적 變形 $_2$ 有($=_2$ 變)의 公式(앞 그림 참조)는 형태론적 통사론이다.

그리고, 이 (1), (2) 位置와 (3) 位置는, 원래가 分析可能의 形태적・형태론적・非核적・매듭零(ϕ)적 (1)과 (2) 位置의 支配를 받는, 형태론/통사론의 구별(=分析)이 있는, 異(逆)direction적 共存position을 이룬다. 이 때 이것을 형태론이라고 할 때, 이 異(逆)direction적 形태론적 共存position에 대한, 역시 異(逆)direction적 통사론적 共存position(=통사론)은, 異(逆)direction적 形태론적 共存position의 근원이 되는 (1), (2) 位置 즉 형태론적・형태적・非核(=非매듭)을, 그보다 덜 큰(=分析可能의 形태가 分析不能의 어휘를 포함 내지 分析한다는 의미에서 덜 큰=그것이 異(逆)direction적으로 포괄한다고 인정되는) 즉 異(逆)direction적 形태론적・形態적 核(=매듭)으로 바꾼, 그리고 그것을 근원으로 한, (1), (2), (3)(=위 公式 참조)의 異(逆)direction적 共存position이다. 즉 모두가 각각 형태론/통사론으로 구분(=分析)된다.

그리고 그림의 모양은 모두 (1), (2) 位置(,  = )를 근간으로 한 異(逆)direction적 對角線()이 된다.

위에서 1)식, 2)식, 3)식 表記에 대하여 행한 公式적 설명에 나오는 (어휘)T와 (형태)q의 (等direction적/異direction적) 共存position라는 用語에서, 位置라는 개념은 순서라는 개념과 같다. 즉 그 位置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어휘)T와 (형태)q 중에서 어느 것에 더(=먼저) 力點(=強調)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순서라는 개념에 주의를 두고 위에서와 같은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주의: 아래 公式에서, 深=형(태)=q, =어(휘)==T, (變)零(ϕ)(1, 2)=형(태)적・非核(=非核)적, (變)有(1, 2)=어(휘)적・매듭(=核)적이라고 읽음; 설명의 순서는 위에서와 같음):

* 순서(1) :

等方向적 變形 有₂(=變₂)의 公式 :

“₁表—(₁變)—₁深₂←(變₂)—表₂” 즉

“₁形—(₁語적)—₁語₂←(語₂적)—形₂” 즉

“₁q—(₁T적)—₁T₂←(T₂적)—q₂” 즉

公式(1)로는 :

{(T₂+₁q)₂}(*앞 p.199의 等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T(q₂→₁q)은 :

언제나 어휘적(=變形 有적=대듭 有적=核적=T적)인 성격을 떤, 어휘(=深=T)와 형태(=表=q)의 等方向적 퍼첨가(=T)/첨가(=q)적 共存位置 중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순서(1)의 퍼첨가체(=T)적(=並置적) 共存位置이다.

순서(2) :

첫째 :

等方向적 變形 有₂(=變₂)의 公式 :

“₁表—(₁變)—₁深₂←(變₂)—表₂” 즉

“₁形—(₁語적)—₁語₂←(語₂적)—形₂” 즉

“₁q—(₁T적)—₁T₂←(T₂적)—q₂” 즉

公式(1)로는 :

₁(₁T+₁q)+(₁T₂+q₂)₂

(*앞 p.198의 等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T(₁q→q₂)

둘째 :

等方向적 變形 有₂(=變₂)의 公式 :

“表₂—(變₂)—₁深₂←(₁變)—表₁” 즉

“形₂—(語₂적)—₁語₂←(語₁적)—形₁” 즉

“q₂—(T₂적)—₁T₂←(₁T적)—q₁” 즉

公式(1)로는 :

(T₂+₁q)₂+₁(₁T+q₂)

公式(2)로는 :

T(q₂→₁q)은 :

위 순서(1)의 퍼첨가체(=T)적 (=並置적) 共存位置를 첨가적으로 구성하는, 언제나 어휘적(=變形 有적=대듭 有적=核적=T적) 성격을 떤, 순서(2)의 等方向적 첨가(=q)적(=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이다.

* 따라서, 이 1)식 表記의 “순서(1)(=퍼첨가체)→순서(2)(=첨가체)”를, “순서(1)(=(=첨가체)→순서(2)(=퍼첨가체)”라고 생각(=主張)하는 것은, 그것이 等方向적 “순서(1)(=퍼첨가체)→순서(2)(=첨가체)”의 基本上에서의 (순서)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分析된 3)식 表記 즉 異(逆)方向적 “순서(1)(=퍼첨가체)→순서(2)(=첨가체)”라고 생각(=主張=混同)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混同 내지 主張을, 어휘적 성격을 떤 三分法적 用語(예: 내재→초월→이중초월; ₁表—(₁變)→₁深₂←(₁變)—表₂)=“₁내 재—(₁초월적)→₁이 중초월₂←(₁초월적)—₁내 재₂”; 초→중→종; 1→2→3 등등)가 반영하고 있다. 또 위의 세 表記의 比較 설명에서, 3)식 表記에 비한 이 1)식 表記의 解釋의 空

白이 그 非分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 순서(1) :

準異(逆)方向적 變形 ${}_1有 \cdot {}_2有 (={}_1變 \cdot {}_2變)$ 의 公式 :

${}_1深 - ({}_1變) \rightarrow ({}_2表 \cdot {}_1表 \rightarrow {}_1表 \cdot {}_2表) - ({}_2變) \rightarrow {}_2深$ 즉

${}_1形 - ({}_1語적) \rightarrow ({}_2語 \cdot {}_1語 \rightarrow {}_1語 \cdot {}_2語) - ({}_2語적) \rightarrow {}_2形$ 즉

${}_1q - ({}_1T적) \rightarrow ({}_2T \cdot {}_1T \rightarrow {}_1T \cdot {}_2T) - ({}_2T적) \rightarrow {}_2q$ 즉

公式(1)로는 :

$\{ {}_2(T-1q) \}$ (*앞 p. 191의 (準)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T_2 \leftrightarrow {}_1T)$ 은 :

언제나 어휘적(=變形 有적=매듭 有적=核적=T적)인 성격을 띤, 어휘(=表=T)와 형태(=深=q)의 (準)異(逆)方向적 잠재(=T)/실현(=q)적 共存位置 중에서 가장 토대가 되는 순서(1)의 잠재(=T)적(=並置적) 共存位置이다.

순서(2) ..

첫째 :

(準)異(逆)方向적 變形 ${}_1有 (={}_1變)$ 의 公式 :

${}_1深 - ({}_1變) \rightarrow ({}_2表 \cdot {}_1表 \rightarrow {}_1表 \cdot {}_2表) - ({}_2變) \rightarrow {}_2深$ 즉

${}_1形 - ({}_1語적) \rightarrow ({}_2語 \cdot {}_1語 \rightarrow {}_1語 \cdot {}_2語) - ({}_2語적) \rightarrow {}_2形$ 즉

${}_1q - ({}_1T적) \rightarrow ({}_2T \cdot {}_1T \rightarrow {}_1T \cdot {}_2T) - ({}_2T적) \rightarrow {}_2q$ 즉

公式(1)로는 :

${}_1(1T-2q) + {}_2(2T-1q)$

(*앞 p. 191의 (準)異(逆)方向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_1T \leftrightarrow {}_2T)$

둘째 :

(準)異(逆)方向적 變形 ${}_2有 (={}_2變)$ 의 公式 :

${}_2深 - ({}_2變) \rightarrow ({}_1表 \cdot {}_2表 \rightarrow {}_2表 \cdot {}_1表) - ({}_1變) \rightarrow {}_1深$ 즉

${}_2形 - ({}_2語적) \rightarrow ({}_1語 \cdot {}_2語 \rightarrow {}_2語 \cdot {}_1語) - ({}_1語적) \rightarrow {}_1形$ 즉

${}_2q - ({}_2T적) \rightarrow ({}_1T \cdot {}_2T \rightarrow {}_2T \cdot {}_1T) - ({}_1T적) \rightarrow {}_1q$ 즉

公式(1)로는 :

${}_2(2T-1q) + {}_1(1T-2q)$

公式(2)로는 :

$q({}_2T \leftrightarrow {}_1T)$ 은 :

위 순서(1)의 잠재체(=非實現체=T)적(=並置적) 共存位置를 실현하는, 언제나 어휘적(=變形有적=매듭有적=核적=T적) 성격을 띤, 순서(2)의 (準)異(逆)方向적 실현(=q)적(=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이다.

* 따라서, 이 2)식 表記의 “순서(1)(=非 實現체=잠재체)→순서(2)(=實現체)”를, “순서(1)(=實現체)→순서(2)(=非 實現체=잠재체)”라고 생각(=主張)하는 것은, 그것이 (準)異(逆)方向적 “순서(1)(=非 實現체=잠재체)→순서(2)(=實現체)”의 태도리에서의 (순서)임을 일정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分析된 3)식 表記 즉 異(逆)方向적 “순서(1)(=非 實現체)→순서(2)(=非 實現체)”라고 생각(=主張=混同)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混同 내지 主張을, 어휘적 성격을 띤 三分法적 用語(예 : 내재—초원—이중초원; “ ${}_1深 - ({}_1變)$

$\rightarrow(2\text{表} \cdot 1\text{表} \rightarrow 1\text{表} \cdot 2\text{表}) - (2\text{變}) \rightarrow 2\text{深}$ = “ $1\text{内재} - (1\text{초월적}) \rightarrow (\text{이중초월}) - (2\text{초월적}) \rightarrow 2\text{내재}$ ”; 초—중—종 ; 1—2—3 등등)가 반영하고 있다. 또 위의 세 표記의 比較 설명에서, 3)식 표記에 비한 이 2)식 표記의 설명의 空白이 그 非分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 순서(1) :

첫째 :

異(逆)方向적 變形 $1\text{零}(1\phi)$ 의 公式 :

“ $1\text{深} - (1\phi) \rightarrow (2\text{表} \rightarrow 1\text{表}) - (2\phi) \rightarrow 2\text{深}$ ” 즉

“ $1\text{形} - (1\text{形적}) \rightarrow (2\text{語} \rightarrow 1\text{語}) - (2\text{形적}) \rightarrow 2\text{形}$ ” 즉

“ $1q - (1q\text{적}) \rightarrow (2T \rightarrow 1T) - (2q\text{적}) \rightarrow 2q$ ”

公式(1)로는 :

{ $1(1q - 2T)$ } (*앞 p.192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1T \leftrightarrow 2T)$ 및

둘째 :

異(逆)方向적 變形 $2\text{零}(=2\phi)$ 의 公式 :

“ $2\text{深} - (2\phi) \rightarrow (1\text{表} \rightarrow 2\text{表}) - (1\phi) \rightarrow 1\text{深}$ ” 즉

“ $2\text{形} - (2\text{形적}) \rightarrow (1\text{語} \rightarrow 2\text{語}) - (1\text{形적}) \rightarrow 1\text{形}$ ” 즉

“ $2q - (2q\text{적}) \rightarrow (1T \rightarrow 2T) - (1q\text{적}) \rightarrow 1q$ ”

公式(1)로는 :

{ $2(2q - 1T)$ } (*앞 p.192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2T - 1T)$ 은 :

언제나 형태적 (=變形 零(ϕ)적 = 매듭 零(ϕ)적 = 非核적 = q적)인 성격을 떤, 형태 (=深=q)와 어휘 (=表=T)의 異(逆)方向적 포괄 (=q)/파포괄 (=T)적 共存位置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순서(1)의 포괄 (=q)적 (=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이다.

순서(2) :

첫째 :

異(逆)方向적 變形 $1\text{有} \cdot 2\text{有}(=1\text{變} \cdot 2\text{變})$ 의 公式 :

“ $1\text{深} - (1\text{變}) \rightarrow (2\text{表} \cdot 1\text{表} \rightarrow 1\text{表} \cdot 2\text{表}) - (2\text{變}) - 2\text{深}$ ” 즉

“ $1\text{形} - (1\text{語적}) \rightarrow (2\text{語} \cdot 1\text{語} \rightarrow 1\text{語} \cdot 2\text{語}) - 2\text{語적} \rightarrow 2\text{形}$ ” 즉

“ $1q - (1T\text{적}) \rightarrow (2T \cdot 1T \rightarrow 1T \cdot 2T) - 2q$ ” 즉

公式(1)로는 :

{ $1(1q - T_2)$ }

(*앞 p.192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1T \leftrightarrow 2T)$

둘째의 첫째 :

異(逆)direction적 變形 $1\text{有}(=1\text{變})$ 의 公式 :

“ $1\text{深} - (1\text{變}) \rightarrow (2\text{表} \cdot 1\text{表} \rightarrow 1\text{表} \cdot 2\text{表}) - (2\text{變}) \rightarrow 2\text{深}$ ” 즉

“ $1\text{形} - (1\text{語적}) \rightarrow (2\text{語} \cdot 1\text{語} \rightarrow 1\text{語} \cdot 2\text{語}) \rightarrow 2\text{形}$ ” 즉

“ $1q - (1T\text{적}) \rightarrow (2T \cdot 1T \rightarrow 1T \cdot 2T) \rightarrow 2q$ ” 즉

公式(1)로는 :

$\{_1(q - _2T)\}$

公式(2)로는 :

$q(_1T \leftrightarrow _2T)$

둘째의 둘째 :

異(逆)方向적 變形 2有의 公式 :

“ $_2\text{深} - (_2\text{變})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 ” 즉

“ $_2\text{形} - (\text{語적}) \rightarrow (_1\text{語} \cdot _2\text{語} \rightarrow _2\text{語} \cdot _1\text{語}) - (_1\text{語적}) \rightarrow _1\text{形}$ ” 즉

“ $_2q - (_2T\text{적}) \rightarrow (_1T \cdot _2T \rightarrow _2T \cdot _1T) - (_2T\text{적}) \rightarrow _1q$ ” 즉

公式(1)로는 :

$\{_2(_2q - _1T)\}$

公式(2)로는 :

$q(_2T \leftrightarrow _1T)$ 은 :

위 순서 (1)의 포괄체($=q$)적(=相互拒否적)共存位置에 의해서 포괄되는, 언제나 형태적(=變形
 ϕ 적=매듭 ϕ 적=非核적= q 적) 성격을 떠, 순서 (2)의 異(逆)方向적 괴포괄($=T$)적(=並置적)共存
位置이다.

* 따라서, 이 3)식 表記의 “순서(1)(=포괄체)→순서(2)(=괴포괄체)”만이 가장 分析된 (순서)이다. 여기에는 混同이나 主張이 없고 오직 그 分析적(순서)의 認定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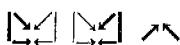
이리한 認定을, 形태적 성격을 떠 兩分法적 用語(예 : $_1\text{초월} \rightarrow _2\text{초월} \rightarrow \text{내재}$; “ $_1\text{深} - (_1\phi) \rightarrow (_2\text{表} \rightarrow _1\text{表}) - (_2\phi) \rightarrow _2\text{深}$ ” = “ $_1\text{초월} - (_1\text{초월적}) \rightarrow (\text{내재}) - (_2\text{초월적}) \rightarrow _2\text{초월}$ ”; $_1\text{초} \rightarrow _2\text{초} \rightarrow \text{종}; _11 \rightarrow _21 \rightarrow 3$, 등등)가 반영하고 있다. 또 위의 세 表記의 比較 설명에서, 1), 2)식 表記에 비한 3)식 表記의 설명의 非空白은 그 分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 세 表記의 차이의 그림상으로의 반영을 위의 설명에 연결시키면 아래와 같다(*주의 : 그림의 종류는 : 화살 표시그림, 부채꼴 표시그림, 對角線 표시그림의 순으로 하고, 그 각각의 그림에서 가는 선/굵은선의 구별은 세 表記 각각의 (순서)를 특징 짓는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화살표시에서 等方向적 分析 표시는 : ($\rightarrow\rightarrow$)와 같이 함) :

1.

(1) : $\rightarrow/\rightarrow/\rightarrow \righ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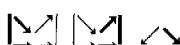
(* 앞 p.187/pp.203-205의 그림 3/6 및 위 설명 참조; (왼쪽의) 굵은선(또는 가는線)은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2) : $\rightarrow\rightarrow \rightarrow/\rightarrow/\rightarrow \rightarrow$ 

2.

(1) : $\leftarrow/\leftarrow/\leftarrow \lef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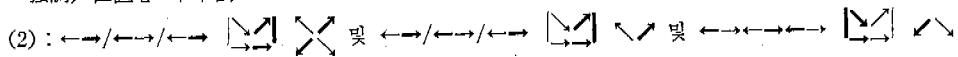
(* 앞 p.187/pp.203-205의 그림 3/6 및 위 설명 참조; (왼쪽의) 굵은선(또는 가는線)은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2) : $\leftarrow\leftarrow \leftarrow/\leftarrow/\leftarrow \leftarrow$ 

3.

(1) : $\leftarrow\rightarrow/\leftarrow\rightarrow/\leftarrow\rightarrow \leftarrow\rightarrow \times \times$ 및 $\leftarrow\rightarrow/\leftarrow\rightarrow/\leftarrow\rightarrow \leftarrow\rightarrow \times \times$

(*앞 p.187/pp. 203-205의 그림 3/6 및 위 설명 참조; (왼쪽의) 가는線(또는 금은線)이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위의 1)식, 2)식, 3)식 表記의 각각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3)식 分析적 表記에 있어서는, 화살표시, 부채꼴 표시, 對角線 표시가 모두 이 表記의 分析적 성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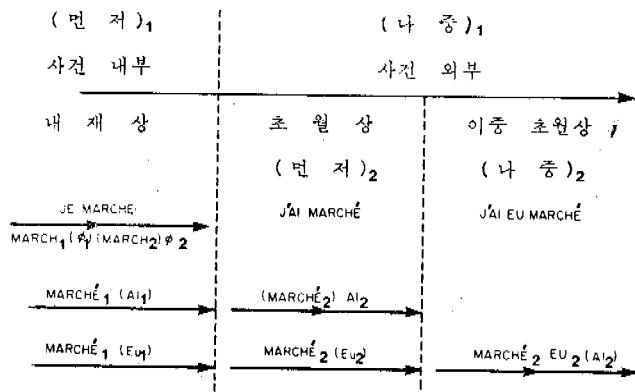
○1)식 및 2)식 非分析적 表記에 있어서는,

첫째: 각각의 오른쪽의 부채꼴 표시 및 對角線 표시에 있어서는 모두, 表記가 갖는 두 가지의 가능성(*뒤 p. 218, 221 참조) 즉 1)식 및 2)식 表記가 3)식 分析적 表記에 대하여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의 가능성과 그렇지 않고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이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表記의 가능성 중에서,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는 表記이다;

둘째: 각각의 왼쪽의 화살표시 및 부채꼴표시에 있어서는, 그 非分析性을 認定하지 않고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이 分析적 表記임을 主張하는 表記이다. 이 主張하는 表記를, 그 본래의 位置인 認定하는 表記에 맞춰서 배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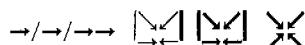
아래에 위와 같이 뒤섞인 表記를 정리하기 위하여,

첫째(=*인쇄상 둘째/셋째): 오른편에다 세로 줄로 위에 3)식 分析적 表記를, 아래에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는 表記를 배치하고, 둘째(=*인쇄상 첫째): 그 위/아래 중간에 해당하는 맞은편의 左편에다 그 非分析性을 認定하지 않고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은 分析性을 主張하는 表記를 배치하여, 等方向적 1)식 表記와 (準)異(逆)方向적 2)식 表記로 나누어 정리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分析的임을 主張하는) 그림 5 (*앞 p.194, 196 참조)

*주의: 앞(p.212)의 화살표시 그림, 부채꼴 표시 그림, 對角線表示 그림의 비교항 참조.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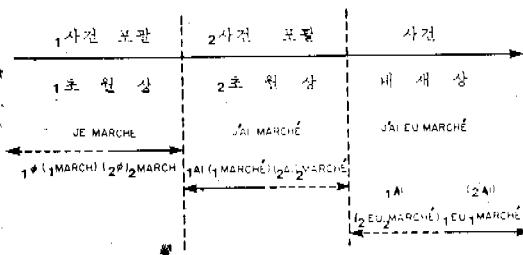


(순서)₂ : → → ↘ ↗ ↘ ↗ ↘ ↗

및

→ / → → ↘ ↗ ↘ ↗ ↘ ↗

*아래 그림 7에서와 같이,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아래 그림 7과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 그림 5를, 그림 4와 같은 分析된 異(逆)方向의 화살표시라고 주장하는 화살표시임에 주의.



(分析的) 그림 4 (*앞 p. 193, 197, 201 참조)

*주의 : 위(그림 5)와 같은 주의 :

(순서)₁ : ← → / ← → / ← → ↘ ↗ ↘ ↗ ↘ ↗

및

← → / ← → / ← → ↘ ↗ ↘ ↗ ↘ ↗

(순서)₂ : ← → / ← → / ← → ↘ ↗ ↘ ↗ ↘ ↗

및

← → / ← → / ← → ↘ ↗ ↘ ↗ ↘ ↗

(먼저)

사건 전부

(나중)₁

사건 부정₁

(나중)₂

사건 부정₂

내재상

초월상₁

초월상₂

JAI EU MARCHÉ

JE MARCHÉ

JAI MARCHÉ

EU 2 MARCH₂ (AI₁)

MARCH₂ (A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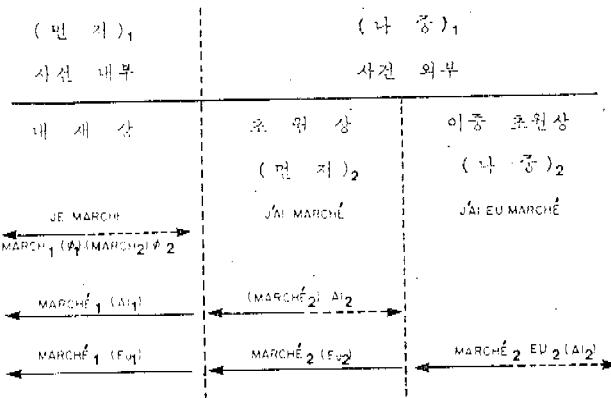
MARCH₁ (AI₁)

그림 7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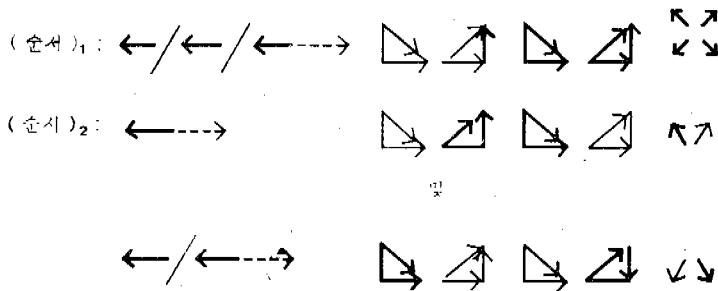
*주의 : 위(그림 4)와 같은 주의 :

*위 그림 4의 주의項 (순서)2의 첫째줄의 異(逆)方向의 分析的 화살 표시 (←→)를 等方向의 非分析的 화살표시 (→)로 誤認(混同)했음을 認定하는 화살표시임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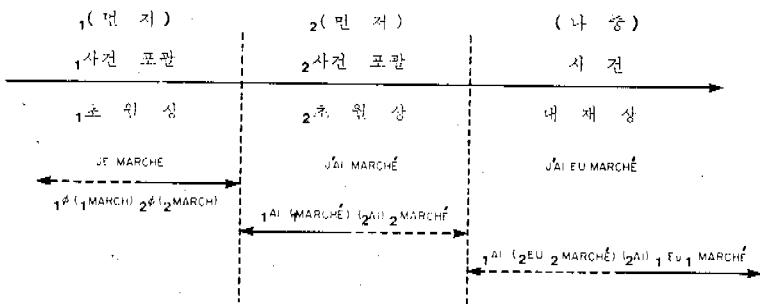


(分析的임을 主張하는) 그림 3 (*앞 p.187, 193, 196 참조)

*주의 : 앞(p.212의 화살표시 그림, 부채꼴표시 그림, 對角線표시 그림의 비교항 참조,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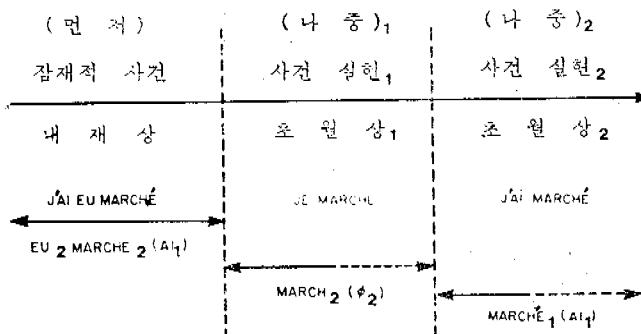
*위 그림 8에서와 같이,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위 그림 8과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 그림 3을, 그림 4와 같은 分析된 異(逆)方向의 화살표시라고 主張하는 화살표시임을 주의.



(分析적) 그림 4 (*앞 p.193, 197참조)

*주의 : 위 그림 3과 같은 주의 :

*바로 앞의 그림 4에서의 그림의 비교와 같음.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8

*주의: 위 그림 4와 같은 주의:

*위 그림 4의 주의項(순서)2의 첫째 줄의, 형태위주의 異(逆)方向적 分析적 화살표시(→)를, 어휘위주의 準(逆)方向的 非分析的 화살표시(↔)로 誤認(混同) 했음을 認定하는 화살표시임에 주의.

*주의: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7과 그림 8 (*위 참조)은, 각자, 1)식 전통식 等方向적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5와 2)식 脱전통식 (準)異(逆)方向적 (analysis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3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만일에 이 기준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구별은 흐려진다. GUILLAUME식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등한시하고 等方向性과 異(逆)方向性을 혼동하는 예로는, 等方向적(어휘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 개념으로서의 MARTINET의 아말감(amalgame)이라는 개념(=판사+명사는 하나의 단위=等方向적 共存位置)이다. 즉 판사는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명사내부에 들어 있는 잡채적 의미가 형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라는 개념)과 GUILLAUME의 “판사+명사”의 (analysis적임을 主張하는) (準)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개념과를 동일시하는 예를 들 수 있다(J. TEYSIER, La grammaire de l'interrogation et ses présupposés, in Revue des langues romane, t. LXXX, 1er fasc. p.56, (33) 참조).

이어서 다시 원(○)과 (⊥)를 사용한 통일된 그림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주의: 等方向은 ○로, (非)異(逆)方向은 ⊥로 구별 표시함: 拙稿, 變形理論과 그 類型의 定立作業, 語學研究(23:03), 1987, 참조:)

1

(1):

*○] 하 空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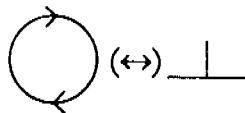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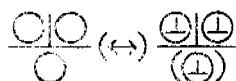
*○] 하 空白이 있음.

(1) :

첫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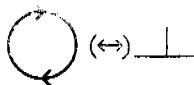
가는 線의 \diamond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diamond)과 길은 線의 \diamond 와의 異(逆)方向적 共存 위치

와의 異(逆)方向적 (\leftrightarrow) 共存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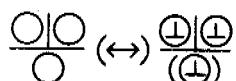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밑 부
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異(逆)方向 (\leftrightarrow) 적 共存位置

둘째 :



길은 線의 \diamond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
(\diamond)과 가는 線의 \diamond 와의 異(逆)direction적 共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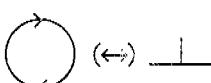
와의 異(逆)direction적 (\leftrightarrow) 共存位置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윗부
분과의 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와의 異(逆)direction적 (\leftrightarrow) 共存位置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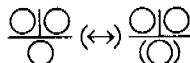
첫째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가는 線의 \diamond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길
은 線의 \diamond 와의 異(逆)direction적 共存(=非포괄=並置)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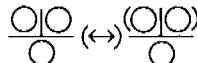
와의 異(逆)direction적 (\leftrightarrow) 共存位置

둘째의 첫째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uparrow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밑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異(逆)方向적 (\leftrightarrow) 共存位置

둘째의 둘째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downarrow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윗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異(逆)方向적 (\leftrightarrow) 적 共存位置

*이상이 “포괄(一形態) \rightarrow 非포괄(=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포괄적(순서) : $\Phi \rightarrow \uparrow \rightarrow ①$ 이다. 그런데 (1)식 및 (2)식 表記에서는 위의 空白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순서)가 없고, 뒤에 시작되는 바와 같이, 오직 위 (순서)의 끝 부분 : ①를 1) 等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 (순서) $\circ \rightarrow \uparrow \rightarrow \circ$, 2) (準)異(逆)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 (순서) : $\Phi \rightarrow \uparrow \rightarrow \circ$, 만이 있다.

*다시 말하던, 이 포괄적 순서란, 앞에 이미 나온 公式에서의 變形(=매듭=어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위 (순서) 1)의 變形(ϕ) (=매듭 ϕ =어휘 ϕ =형태)의 포괄체 : Φ 를 출발점으로 하는 (순서) 2)의 變形(有) (=매듭 有=어휘의) 껌 포괄체 : Φ , 임에 반하여, 뒤 (1)식 및 (2)식 表記에 있어서는 變形(ϕ)와 變形(有)의 구별(=分析)이 없이, 變形(有) 즉 위 (순서) 2)의 Φ 를 1) 等方向적 \circ 그리고 2) (準)異(逆)方向적 Φ 로 誤認(=混同)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1) 等方向적 變形(ϕ) \rightarrow 變形(有), 2) (準)異(逆)方向적 變形(ϕ) \rightarrow 變形(有),로 그 (순서)가 誤認(=混同)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 1)식 및 2)식 表記에 있어서, 表記上으로 두 가지의 表記의 가능성을 각각 갖게 한다. 즉 :

첫째 表記의 가능성 : 그것이 誤認(=混同)된 表記임을 認定하지 않고, 올바른 表記라고 主張하는 가능성 : 이 때의 表記는, 變形(=매듭=어휘=核)을, 그것에 力點(=強調)을 둔 이 表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식어(=어휘적=매듭적)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 내지 主張하고 있음이 반영된 특징을 갖게 된다. 즉 變形(有)(=매듭 有=어휘=核)를, 그 자체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變形(ϕ)(=매듭 ϕ =형태=非核)와의 非分析적(=誤認·混同된) 共存position임을 認定치 않고, 그것이 變形(ϕ)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變形(有)와의 分析적(=올바른) 共存position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반영된 表記 즉 變形(有)을 둘로 갈라서(=分析해서), 左를 變形(ϕ)右를 變形(有)로 表記하고(\leftarrow , 表記 참고), 따라서 그와 같이 分析 表記된 變形(有)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정당화가 반영됨) (수평선상으로 表記하는 경우) 그 左에 變形(ϕ)를 그 右에 變形(有)을 分析 表記하여, 이들 두 左右의 變形(ϕ)/變形(有)表記가 중간의 左/右의 變形(ϕ)/變形(有)表記와 分析된 것처럼 表記하는 것이 끝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表記에 사용되는 用語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초→중→종”, “내재→초월→이중초월”, “深層→變形→表面” 등과 같이, 그들 用語의 어휘적 미의에 力點(=強調)이 두어졌음이 분명한데도, 따라서 어휘와 형태가 非分析적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형태(=“초→종”, “내재→이중초월” 등)와 어휘(=“중”, “초월”, 등)로 分析된 것으로 설명(=主張)되고 있음을 본다. 사용된 表記상의 變形(有)적(=非分析적) 특징과, 설명(=主張)상의 變形(ϕ)적(=分析적) 특징 사이에, 이와 같이 차질이 있음은, 이 설명(=主張)이 變形(有)적임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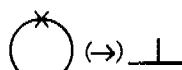
둘째 表記의 가능성 : 위 첫째 表記의 가능성과는 반대로, 이 둘째 表記는, 그 첫째 表記가 誤認

(=混同)된 表記임을 認定하고, 그것의 참 모습을 들어 내는 表記이다. 이 때의 表記는, 첫째 表記의 경우와는 반대로, 變形(=매듭=어휘=核)을, 그것에 力點(=強調)을 두는 이 表記의 特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식어(=어휘적=매듭적)로서 파악하고, 결코 그 자체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 내지 主張하고 있지 않음이 반영된 특징을 갖게 된다. 즉 이때의 表記는, 가장 分析된 表記라고 認定되는 變形(ϕ) (=非매듭=형태=非核)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變形(有)(=매듭=核=어휘)의 差(逆)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에서 變形(有)적 表記를 바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째 表記는 그러한 객관적 비교를 용이하게 해 주는 表記, 즉 表記상으로는 變形(ϕ)적 表記와 같되, 첫째: 그것이 變形(有)적 表記임을 수식어로서 나타내는 表記, 혹은 또, 둘째: 變形(有)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變形(ϕ)적 表記를 지향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기준이 반영된 表記해야 한다. 이 첫째와 둘째의 조건에 부합되는 表記는, 2)식 (準)差(逆)方向적 表記이다. 즉 이 表記은 變形(ϕ)적 表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變形(ϕ)적 表記에서와 같이, 變形(有)을 둘로 갈라서 (=分析해서), 左를 變形(ϕ) 右를 變形(有)로 表記하고 (=→表記 참고), 變形(ϕ)식 表記(즉 3식 表記)에서와 같이, (수평선상으로 表記하는 경우), 그 左에 變形(ϕ)를, 그 右에 變形(有)을 表記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變形(有)적 表記임을 認定만 하면 된다. 이 때 사용되는 用語는, 變形(ϕ)적 表記에서와 같이, “₁초월→₂초월→내재”, “₁초→₂초→종” 등이 된다.

다음에 1)식 等方向적 表記의 경우는, 變形(ϕ)적 表記를 지향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2)식 (準)差(逆)方向表記의 둘째 表記의 가능성: “₁초월→₂초월→내재”, “₁초→₂초→종”, “₁深層→₂深層→表面”, 등을 바꾼, “내재→₁초월→조월₂”, “종→₁초→초₂”, “表面→₁深層→深層₂”, 등의 表記를 하고, 그대로 그것을 變形(有)적 等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임을 認定하면 된다.

*주의: 위(p. 216) 空白에 이어 여기서부터 시작함.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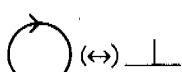


위 (3)식 表記에서의 순서 (2)의 첫째(*앞 참조)를, 黑은 線의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역시 黑은 線의 ◎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회첨가(=어휘)→첨가(=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중, 가장 토대가 되는 회첨가체(=어휘)적 共存位置

와 (3)식 表記에서의 순서 (2)의 첫째(*앞 참조)를,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회첨가(=어휘)→첨가(=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중, 원편의 ◎과 함께 (=원편의 ◎에 대해서는 첨가체인) 가장 토대가 되는 회첨가체(=어휘)적 共存位置,

와의, 等方向적 (→) 共存位置.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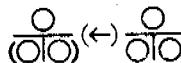
위 (3)식 表記에서의 순서 (2)의 첫째(*앞 참조)를, 黑은 線의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가는 線의 ◎과의 (準)差(逆)direction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회실현(=어휘)→실현(=형태)의 (準)差(逆)direction적 共存位置 중, 가장 토대가 되는 회실현체(=잠재체)적 共存位置

와 (3)식 表記에서의 순서 (2)의 첫째(*앞 참조)를,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準)差(逆)direction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회실현(=어휘)→실현(=형태)의 (準)差(逆)direction적 共存位置 중, 원편의 ◎과 함께 (=원편의 ◎에 대해서는 실현체인) 가장 토대가 되는 회실현체(=잠재체)적 共存位置,

와의 (準)差(逆)direction적 (↔) 共存位置.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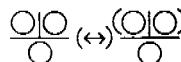
첫째 :



위 (순서)1의 피첨가체 ○를 구성하는, (⊥)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첨가체 (⊥)를 구성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等方向적 (→) 共存位置.

(2) :

첫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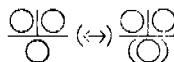


위 (순서)1의 피실현체(=잠재체) ◊를 실현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 것과 (⊥)의 윗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실현체(=잠재체) (⊥)를 실현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準)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2) :

둘째 :



위 (순서)1의 피첨가체 ○를 구성하는, (⊥)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첨가체 (⊥)를 구성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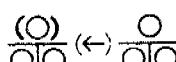
와의 等方向적 (→) 共存位置

*이상이 위 (1)의 “피첨가(=어휘)→첨가(=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의 구성상의 (=첨가적) (순서)이다. 요컨대 이 共存位置는 앞의 “포괄(=형태)→파포괄(=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포괄적 (순서) : ◊→⊥→①에 비하여, 끝의 ①를 等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 共存位置의 等方向적 구성적(=첨가적) (순서) : ○→⊥→○만이 있다.

*이 等方向적 구성적(=첨가적) (순서)에 관한 이상의 表記는, 이미 앞의 3)식 表記의 결론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分析된 3)식 表記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둘째 表記의 가능성이 속한다. 즉 變形(Φ)적 3)식 表記 : “₁초월→₂초월”(=순서1)→“내재”(=순서2), “₁초→₂초”(=순서1)→“종”(=순서2), “深層→深層”(=순서1)→“表面”(순서2), 등을 바꾼, “내재”(=순서1)→“₁초월→초월₂”(=순서2), “表面”(=순서1)→“₁深層→深層”(순서2), 등의 用語개념으로된 表記이다. 이 表記은 3)식 變形(Φ)적 表記를 지향하는 表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래의 2)식 表記와 같이, 3)식 표기와 외관상 같은 用語를 사용한 표기, 즉 : “₁초월→₂초월”(순서1)→“내재”(순서2), 등을 사용함이 없이, 위의 等方向적 둘째 表記의 가능성, 즉 : “내재”(=순서1)→“₁초월→초월₂”(순서2), 등을 사용하고, 그대로 그 表記의 等方向적 變形(有)적 성격을 認定하면 된다.

(2) :

둘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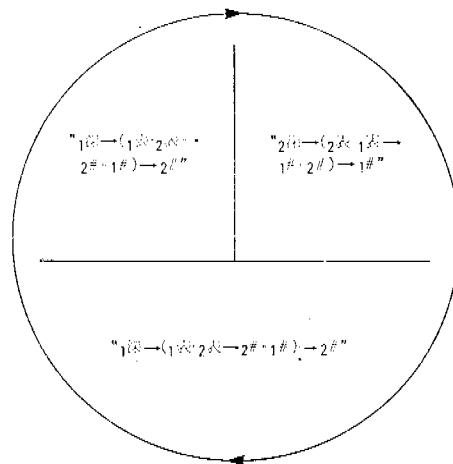
위 (순서)1의 피실현체(=잠재체) ◊를 실현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실현체(=잠재체) (⊥)를 실현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準)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

와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이상이 위 (1)의 “**非實現체(=감재체=어휘)**→**實現체(=형태)**”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의 實現상의 (순서)이다. 요컨대 이 共存位置는 앞의 “**포괄(=형태)**→**파포괄(=어휘)**”의 异(逆)方向적 共存位置의 **포괄적(순서)**: $\diamond \rightarrow \perp \rightarrow \textcircled{1}$ 에 비하여, 끝의 $\textcircled{1}$ 를 (準)異(逆)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 共存位置의 순서: $\diamond \rightarrow \perp \rightarrow \textcircled{0}$ 만이 있다.

*이 (準)異(逆)方向적 實現적(순서)에 관한 이상의 表記는, 위면의 1식 表記와 같은 이유로, 둘째 表記의 가능성이 속한다. 위의 1식 表記와 다른 점은, 이 2식 表記는 變形(ϕ)적 3식 表記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3식 표기와, 사용되는 用語는 같게 하되, 다만 그 表記가 變形(有)적 성격을 띤 表記임을 認定하면 될 것이다. 즉: “ ${}_1\text{초월} \rightarrow {}_2\text{초월}$ (=순서1)→“내재”(=순서2), “ ${}_1\text{초} \rightarrow {}_2\text{초}$ (=순서1)→“종”(=순서2), “ ${}_1\text{深層} \rightarrow {}_2\text{深層}$ ”(=순서1)→“表面”(=순서2), 등으로 表記하고, 다만 그 表記의 變形(有)적 성격을 지적하면 된다.

이상에서 비교된 1) 异(逆)方向적 分析적 變形(ϕ)적 表記와 그것을 (準)異(逆)方向적 變形(有)적으로 誤認(=混同)한 것을 認定하는 (準)異(逆)方向적 非分析적 表記, 그리고 2) 异(逆)方向적 分析적 變形(ϕ)적 表記와 그것을 等方向적 變形(有)적으로 誤認(=混同)한 것을 認定하는 等方向적 非分析적 表記, 를 각각 오른편의 세로 줄로 묶어서 위의 순서대로 위/아래로 배치하고(*주의: 인쇄상 뒤에 배치함), 그 원편에다 각자 1)에 대해서는: 그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그 等方向적 非分析적 表記가 异(逆)方向적 分析적 表記임을 主張하는 表記를, 2)에 대해서는: 그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그 (準)異(逆)direction 非分析적 表記가 异(逆)direction 分析적 表記임을 主張하는 表記를, 오른편 위/아래의 묶음 각각의 중간 부분에 마주 보이게(*주의: 인쇄상 먼저 배치함), (앞 pp. 213-216에서의 이와 같은 성격의 화살표시 그림의 비교에서와 같이) 배치시키면 아래와 같다:



(分析의임을 主張하는) 그림 13.

*주의: 여기서 空白(#)은 分析의인 것으로 主張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첫째: 아래 그림 12의 (순서)(2)의 첫째 公式的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로 하는 (準)異(逆)方向의 公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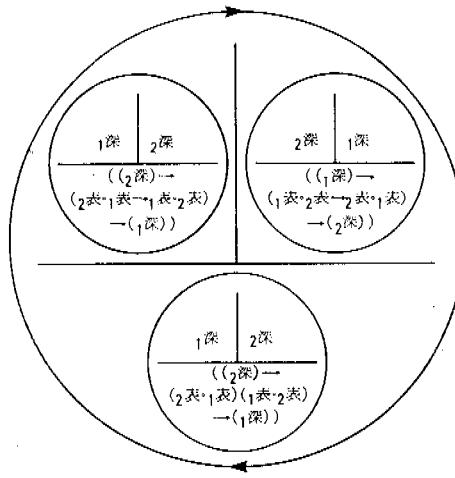
$${}_{1\text{深}} - ({}_{1\text{變}})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 \cdot {}_{1\#}) - ({}_{2\#}) \rightarrow {}_{2\#}$$

둘째 : 오른편 그림 12의 (순서)(2)의 둘째 공식의 左를 2(=나중)로 하고 右를 1(=먼저)로 하는 (準)異(逆)方向의 公式 :

$$\text{“}_2\text{深} - (2\text{變}) \rightarrow (2\text{表} \cdot 1\text{表} \rightarrow 1\# \cdot 2\#) - (1\#) \rightarrow 1\#”$$

(순서)(2) : 아래 그림 12의 (순서)(1) 公式的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으로 하는 (準)異(逆)方向의 公式(*앞 p.187, 193, 196 그림 3 참조) :

$$\text{“}_1\text{深} - (1\text{變}) \rightarrow (1\text{表} \cdot 2\text{表} \rightarrow 2\# \cdot 1\#) - (2\#) \rightarrow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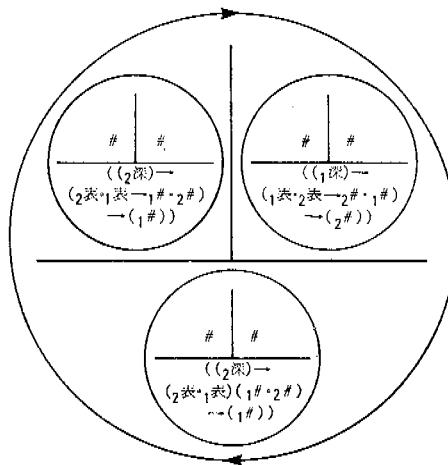
(分析的) 그림 9.

(순서)(1) : 첫째 : 앞 (分析的) 그림 9와 같음.

둘째 : //

(순서)(2) : 첫째 : //

둘째의 첫째 및 둘째 //



(非分析的) 그림 12.

*주의 : 여기서 空白(#)은 非分析的인 것으로 認定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뒤 그림 10의 公式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된 (準)異(逆)方向의 公式(*뒤 p.224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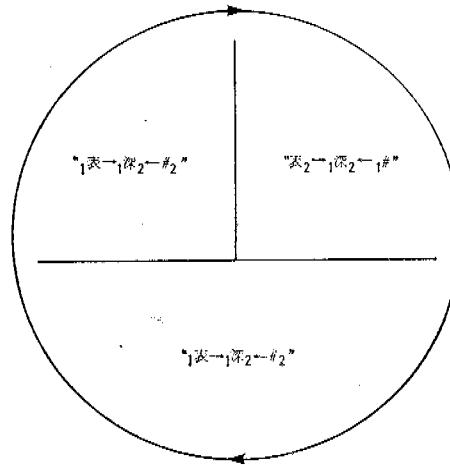
$$\text{“}_2\text{深} - (2\text{變}) \rightarrow (2\text{表} \cdot 1\text{表} \rightarrow 1\# \cdot 2\#) - (1\#) \rightarrow 1\#”$$

(순서)(2) : 첫째 : 앞 그림 10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된 (非)異(逆)方向적 公式 :

$$\text{“}_2\text{深} - (2\text{變}) \rightarrow (2\text{表} \cdot 1\text{表} \rightarrow 1\# \cdot 2\#) - (1\#) \rightarrow 1\#”$$

둘째 : 앞 그림 10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된 (準)異(逆)方向적 公式 :

$$\text{“}_1\text{深} - (1\text{變}) \rightarrow (1\text{表} \cdot 2\text{表} \rightarrow 2\# \cdot 1\#) - (2\#) \rightarrow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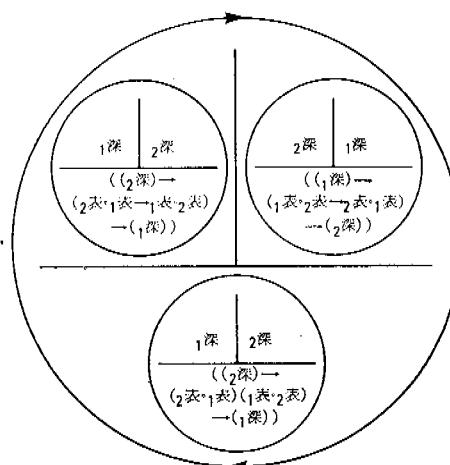
(分析的임을 主張하는) 그림 11

*주의 : 여기서 空白(♯)은 分析적인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첫째 : 오른편 그림 10의 (순서)(2)의 첫째 公式의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으로 하는 等方向적 公式 : “ $1\text{表} - (1\text{變}) \rightarrow 1\text{深} 2 \leftarrow (\#_2) - \#_1$ ”

둘째 : 오른편 그림 10의 (순서)(2)의 둘째 公式의 左를 2(=나중)로 하고 右를 1(=먼저)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 : “ $\text{表}_2 - (\text{變}_2) \rightarrow 1\text{深} 2 \leftarrow (1\#) - 1\#$ ”

(순서)(2) : 오른편 그림 10의 (순서)(1) 公式의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로 하는 公式(*앞 p. 194, 196 그림 5 참조) : “ $1\text{表} - (1\text{變} \rightarrow 1\text{深} 2 \leftarrow (\#_2) - \#_1)$ ”



(分析的)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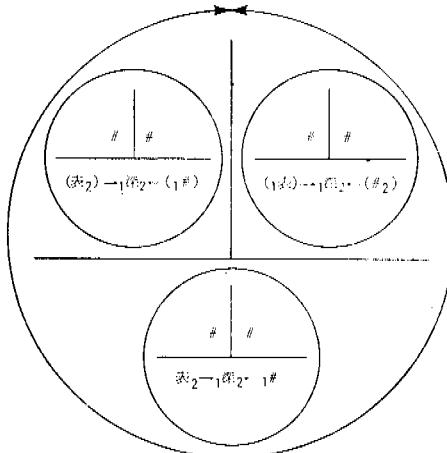
(순서)(1) : 첫째 : “ $1\text{深} - (1\phi) \rightarrow (2\text{表} \rightarrow 1\text{表}) - (2\phi) \rightarrow 2\text{深}$ ”

둘째 : “ $2\text{深} - (2\phi) \rightarrow (1\text{表} \rightarrow 2\text{表}) - (1\phi) \rightarrow 1\text{深}$ ”

(순서)(2) : 첫째 : “ ${}_1\text{深}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2\text{深}$ ”

둘째의 첫째 : “ ${}_1\text{深}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2\text{深}$ ”

둘째의 둘째 : “ ${}_2\text{深}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 ”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10.

*주의 : 여기서 空白(#)은 非分析的인 것으로 認定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위 그림 9의 (순서)(2)의 첫째 공식의 右를 左로 하고 左를 空白(#)의 右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바로 위 참조) : “表2 -> (變2) -> {}_1\text{深}_2 -> (1#) -> 1#”

(순서)(2) : 첫째 : 위 그림 9의 (순서)(2)의 둘째의 첫째 공식의 右를 左로 하고 左를 空白(#)의 右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바로 위 참조) : “表2 -> (變2) -> {}_1\text{深}_2 -> (1#) -> 1#”

둘째 : 위와 같은 公식의 둘째의 둘째 公식의 右를 左로 하고 左를 空白(#)의 右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바로 위 참조) : “表1 -> (變1) -> {}_1\text{深}_2 -> (表2) -> 1#”

이상에서, 통일된 그림으로, 1)식 等方向식 表記와 2)식 (準)異(逆)方向식 表記에서의,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는 表記와, 그것을 認定하지 않고 그것이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이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表記, 사이의 차이를 결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되풀이 해서 그 요점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表記

* 위 그림 설명 및 그림에 딸린 公식에서 空白(#)은 形태의 空白(#)을 나타낸다. 그런데 形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力點(=強調)을 두는, 空白(#)이 없는 形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가장 分析된 共存位置의 기준으로 삼는 이상, 이 形태의 空白(#)은 어휘만의 존재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形태의 空白(#)을 形태라고 主張하는 것은 그 形태가 어휘적 성격을 편 形태임을 말한다. 즉 어휘에 의해서 가리워진 形태를 形태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휘란 본질적으로 分析不能의 것이고 形태란 分析可能의 것이므로, 이 主張은 分析可能의 어휘에 分析可能의 形태가 가리워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즉 分析不能의 어휘가 (分析可能의) 形태를 1)식 표기의 경우에는 等方向적으로, 2)식 표기의 경우에는 異(逆)方向적으로 分析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 된다. 즉 分析되고 있지 않은 어휘와 形태의 共存位置를 分析된 어휘와 形태의 (等方向 또는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고 主張하는 것이 된다. 위 그림의 설명과 이에 딸린 公식에서 空白(#)으로 表記된 것의

가치(=의미)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지닌다.

예컨대, 1)식 표記의 式式：“ ${}_1\text{表} \cdots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2\#) - \#_2$ ” 또는 2)식 표記의 式式：“ ${}_1\text{深} -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 \cdot \#) - ({}_2\#) \rightarrow {}_2\#$ ”에서, 空白(♯)의 가치(=의미)는, 形태(=非對稱=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지 않는 表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식 표記에서나 2)식 표記에서나 어휘(=1)식에서는 深(深), 2)식에서는 表(表)적(=對稱적=核적=서술어적)인 성격을 띤다, 어휘(=對稱=核=서술어)의 形태(=非對稱=非核=非서술어)의 (等方向 또는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一致), 즉 위 式式을 보고 그 空白(♯)의 位置를 예울 수 있다고 主張하는, 深(深), 表(表)이다. 그리므로 深(深), 表(表)는 모두,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즉 어휘(=對稱=核=서술어)와 (분) 分析(離)된(포괄하는=一致시키는=선택/의도하는) 形태(=非對稱=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지 않고, 어휘(=對稱=核=서술어)와 (분) 分析(離) 안된(구성하는/실현하는=一致/선택·의도하지 않는) 形태(♯)(=非對稱=非核=非서술어)를 主張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리고 그 “主張”은 “主張”的 입장에서 볼 때는 어휘(=對稱=核=서술어)에만 力點(=強調)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形태적(=非對稱적=非核적=非서술어적)인 가치(=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것이 이 “主張하는 表記”가 갖는 특징이다. 즉 위 式式에서 左/右 들로 “갈라져 있지 않은”(=分析/(左와 右가)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의도되지 않은)것을 “갈라져 있는”(=分析/(左와 右가)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의도된) 것으로 主張하는 특징이다. 이것을 앞에서 主觀적(=어휘적=對稱적=核적=서술어적=통사론적)=형태론과 통사론을 단어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에서 각각 分析(=구별)하지 않고 오직 문장의 층위에서의 통사론만이 있(支配하)는, 그리고 그것은 단어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에서 각각 통사론이 구별된다고 主張하는 것이 되는=단어의 층위(가) 문장의 층위(를)一致/선택/의도하지 않는(=포괄하지 않는)=(단어의 층위가 문장의 층위를) 구성/실현하는=(단어의 층위가 문장의 층위에 의해서) 선택·의도되는)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 pp. 201-202; 206-207 및 바로 위 참조).

이 主觀적 특징을, 아래의 “認定하는 表記”가 갖는 客觀적(=形態적=非對稱적=非核적=非서술어적 : *아래 참조) 특징과 비교할 때, 오로지 통사론(=*위 참조)만이 있(支配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主觀적 表記에 머무는 한, 客觀적 表記를 지향하면서도 결국은 부한하게 主觀적 表記의 테두리 안에서 대도는 결과가 된다. 그리므로 이 主觀적 表記의 참보습을 들어낸 客觀적 表記로 눈을 돌려서, 참된 分析적 表記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

* 위 그림 설명 및 그림에 딸린 式式에서 空白(♯)은 形태의 空白(♯)을 나타낸다. 그런데 形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力點(=強調)을 두는 空白(♯) 없는 形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가장 分析된 共存位置의 기준으로 삼는 이상, 이 形태의 空白(♯)은 어휘만의 존재를 말한다. 이 “認定하는 表記”는, 위의 “主張하는 表記”的 경우에서와 같이, 이 形태적 空白(♯)을 形태라고 主張하지 않고 그리한 主張은 形태를 어휘와 分析되지 않은 어휘적 성격을 띤 形태로서 謾認(=混同)하고 있음을 認定하는 表記이다. 왜냐하면 어휘란 본질적으로 分析不能의 것이라고 形태란 分析可能의 것임으로, 그러한 主張은 分析不能의 어휘에 分析可能의 形태가 가리워진 것이라고 謾認(=混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分析不能의 어휘가 (分析可能의) 形태를 1)식 표기의 경우는 等方向적으로, 2)식 표기의 경우는 異(逆)方向적으로, 分析하고 있다고 謾認(=混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分析되고 있지 않은 어휘와 形태의 (等方向 또는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分析된 形태와 어휘의 (等方向 또는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고 謾認(=混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위 그림의 설명과 그에 딸린 式式에서 空白(♯)으로 表記된 것의 가치(=의미)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지닌다.

예컨대, 1)식 표記의 式式：“ ${}_1\text{表} -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2\#) - \#_2$ ” 또는 2)식 표記의 式式：“ ${}_1\text{深} - ({}_1\text{變}) -$

(₂表 · ₁表→₁# · ₂#)→₂#”에서, 空白(#)의 가치(=의미)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는 表記”的 입장에서 볼 때는, 1)식 表記에서나 2)식 表記에서나 어휘(=1)식에서는 深; 2)식에서는 表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인 성격을 띤, 어휘(=매듭=核=서술어)와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等方向적 또는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一致), 즉 위 公式을 보고 곧 그 右측의 空白(#)을 認定하고 그 左측만의 深, (變), 表만을 認定하는 表記이다. 그러므로 深, (變), 表는 모두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즉 어휘(=매듭=核=서술어)와(를) 分析(離)된(=포괄하는=一致시키는=선택/의도하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고, 어휘(=매듭=核=서술어)와(를) 分析(離) 안된(구성하는/실현하는=一致/선택 · 의도하지 않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를 主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그리고 “認定”은 “認定”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휘(=매듭=核=서술어)에만 力點(=強調)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어휘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인 가치(=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것이 이 “認定하는 表記”가 갖는 특징이다. 즉 위 公式에서 左/右 둘로 “갈라져 있지 않은”(=分析/(左와 右가)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 · 의도되지 않은) 것을 “갈라져 있지 않은”(=分析/(左와 右가)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 · 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認定하는 특징이다. 이것을 앞에서 客觀적(=형태적=非매듭적=非核적=非서술어적=형태론적(=형태론파 통사론을 단어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에서 각각 分析(=구별)하고 따라서 단어의 층위에서의 형태론만이 있(支配하는), 그리고 그것은 단어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에서 각각 형태론이 구별됨을 認定하는 것이 되는=단어의 층위와(가) 문장의 층위가(를)一致/선택/의도하는(=포괄하는)=(단어의 층위가 문장의 층위를) 구성/실현하지 않는=문장의 층위가 단어의 층위에 의해서) 선택 · 의도되는)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 p.202;207-208 및 바로 위 참조).

이 客觀적 특징을, 위의 “主張하는 表記”가 갖는 主觀적(=어휘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 : *위 참조) 특징과 비교할 때, 오로지 형태론(=*위 참조)만이 있(支配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客觀적 表記는, 사실상 그것을 지향하면서도, 결국은 어휘(=核=매듭=서술어)의 태두리 안에서 무한하게 맴도는 主觀적 表記의 참모습을 들어내고, 그것을 分析 내지 초월 · 탈피하여 考察된 分析적 表記에 도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위에서 길게 정리한 바를 토대로 하여, Roch VALIN의 Perspectives psychomécaniques sur la syntaxe(통사론에 대한 心理力學論적 조망)의 주요 내용을 간추림으로써, 이 글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 한다(*주의 : 주요내용마다 그 내용에 맞는 제목을 달고, 그것을 앞에서 정리한 “主張하는 表記”와 “認定하는 表記”的 비교에 맞게 설명함) :

○ 통사론의 정의 : (*바로 앞 pp. 224-226의 정리부분을 요참조) :

pp. 93-94: 우리는 처음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적인 몇 가지 성공들을 열거함으로써 이 연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의 찬성을 얻으려면 본 연구의 범위를 두 배 내지 세 배로 해야함을 깨닫고, 그것은 앞으로의 다른 연구에다 미루거나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심리역학의 현재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 서술에다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 책의 양이 허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낫게 언어행동의 참된 현상학에 병합될 수 있는 통사론의 정립에 대하여 심리역학론이 열어줄 전망을 들어내는 데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 통사론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논하게 될 것이다 :



즉, 통사 현상을 그 “내부성”과 “외부성”에서 정의하게 하는 조건 속에서, 위와 같은 관계를 논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표시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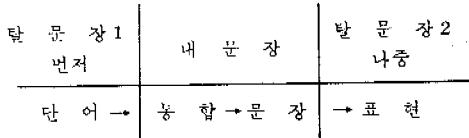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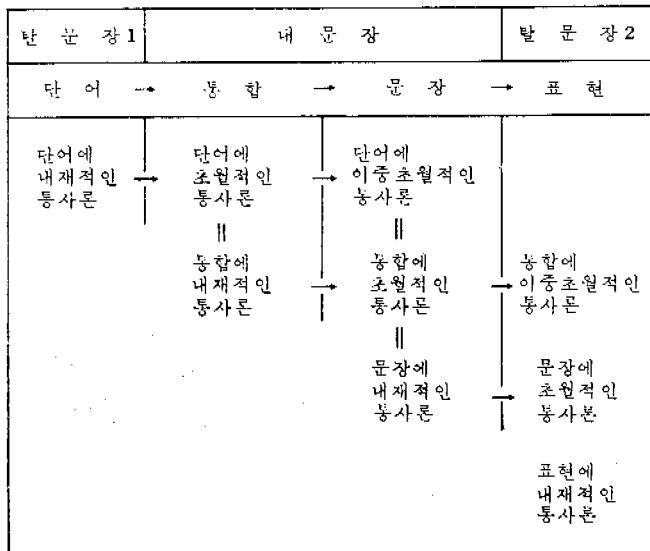


그림 63

p.94 : (그림 62 및 63의 설명) :

그림 62:

* 탈문장 1(=먼저) : 순천히 형태론적이다.

* 탈문장 2(=나중) : 문장들의 연쇄 내지 누합에 의한 확대된 표현 (discours étendu).

* 내문장 1(=통합) : 전통적으로 통사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서, 내문장 2(=문장)와 함께 위의 탈문장 1(=먼저)와 탈문장 2(=나중)의 중간 과도 단계적 역할을 한다.

* 내문장 2(=문장) : 내문장 1(=통합)과 함께 탈문장 1(=먼저)과 탈문장 2(=나중)의 중간 과도 단계 역할을 한다.

그림 63:

이 새로운 통사론은 아직 그 태아 단계에 있으나, 그 특징은 현상을 정연하게 분절하는 데 있다. 즉 현상이 인대 결합으로서 나타난다. 즉 한 현상은 그에 바로 선행하는 현상들에 그 존재를 힘입고 있으며, 또 그에 바로 후행하는 현상들은 그 한 현상에 그 존재를 힘입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성격만이 다른) 통사론이라 할 수 있다 (* 필자 강조).

○ 위 설명 :

○ 앞의 끝 強調 부분의 “모든 것은 (성격이 다른) 통사론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앞의 정리부분 : pp. 206-208의 “主張하는 表記”와 “認定하는 表記”의 비교項을 요참조.

○ 앞 그림 62 의 “탈문장 1(면전)(=단어)→내문장(=통합→문장)→탈문장 2(나중)(=표현)”의 公式은 앞 p. 225의 “主張하는 表記”的 公式 : “₁深—(₁變)→(₂表・₁表→₁#・₂#)—(₂#)→₂#”에 해당함. 즉 이회(=매듭=核=서술어) 위주의 公式임. 이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 위주의 3)식 分析적 表記의 입장에서 그것(=위의 “主張하는 表記”的 公式)과 모양을 같이 하면서도 그것의 非分析性을 “認定하는 表記”的 公式과 성격을 달리 한다.

○ 따라서 위 그림 63에서 “韌帶 결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사론”은, 모두 이회(=核=매듭=서술어) 위주의 “主張하는 表記”的 公式을 반영한 것이다(*앞 pp. 224-225 참조). 이 “主張하는 表記”와 그에 대립되는 “認定하는 表記”的 그림 및 公式的 비교에 대해서는 앞 pp. 213-215의 “화살표지 그림”으로의 비교 및 앞 pp. 221-224의 “통일된 그림”으로의 비교를 요 참조.

○ 이러한 “主張하는 表記”의 태도는, GUILLAUM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VALIN도 G.와 같이 다음과 같은 “主張하는 表記” 태도를 취한다.

p. 80:

내 재 상	초 월 상	이종 초월상
<i>marcher</i>	<i>avoir marché</i>	<i>avoir eu marché</i>

그림 52

이에 대해서도 바로 위의 설명項 참조.

○ 이러한 “主張하는 表記”의 태도에 토대를 둔 VALIN의 통사론도 G.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

p.X: (...) 표상의 사실(faits de représentation)로서의 언어사실(faits de langue)과 표현의 사실(faits d'expression)로서의 (언어)표현의 사실(faits de discours)의 대립을 언제나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 Guillaume이 관사의 문제(problème de l'article)이래 잠재적 축면(plan de puissance)과 결과적 축면(plan d'effet)으로 구분한 데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뒤 심층적(puissanciel)과 표면적(effectif)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었다. 그 이유는 이 양자의 중간 과도적 순간으로서의 변형(effectuation)이라는 순간의 필요성을 그의 반면에 이르러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위치언어학으로서의 심리역학론적 방법에 바탕을 둔 통사론의 전개에 있어서 변형(=effectuat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된, “主張하는 表記”的 公式 : “₁深—(₁變)→(₂表・₁表→₂#・₁#)—(₂#)→₂#”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 公式에서의 “變形”은 “3)식 分析적 表記”的 公式 :

${}_1\text{深} - ({}_1\phi) \rightarrow ({}_2\text{表} \rightarrow {}_1\text{表}) - ({}_2\phi) \rightarrow {}_2\text{深}$ 에서와 같은 형태적=(ϕ)적 “變形”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어휘적=(有)적 “變形”이다. 그런데 그 “變形(有)를” “變形(ϕ)”로 誤認(混同)하고 “變形(有)안에 “變形(ϕ)”와 “變形(有)”가 있다고 主張함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때 “變形(有)”=중간단계(effectuation)를 초월한 “表面”이 곧 통사론이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즉 어휘 안에 형태가 內在하는 것으로 보는 이 관점에서는 어휘만의 초월(=통사론)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도 바로 위의 설명項을 참조.

○ 이러한 어휘 위주의 초월관을 반영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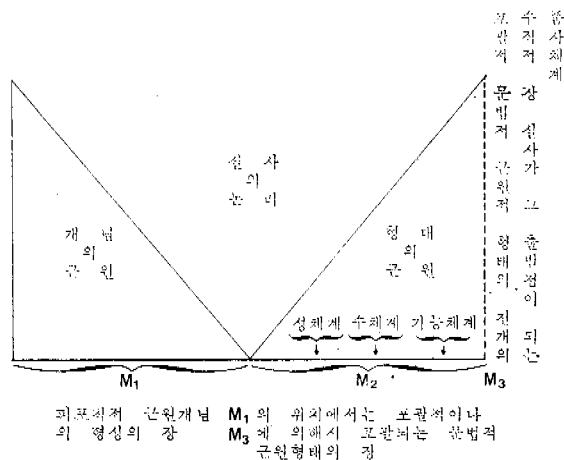


그림 14

위 그림은 형태 위주의 3)식 分析적 表記의 式式: “ ${}_1\text{深} - ({}_1\phi) \rightarrow ({}_2\text{表} \rightarrow {}_1\text{表}) - ({}_2\phi) \rightarrow {}_2\text{深}$ ”의
포괄項(${}_1\text{深}/{}_2\text{深}$)/非 所括項(表)을, “2)식 主張하는 表記”의 式式: “ ${}_1\text{深} -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 \cdot {}_2\#) - ({}_2\#) \rightarrow {}_2\#$ ”으로 誤認(混同)했음을 認定하지 않고, 그것을 3)식 分析적 表記의 式式과 같은 所括/非所括의 共存位置라고 主張하는 表記이다. 즉 여기서의 所括/非所括은 사실상은 잠재(=表)/실현(${}_1\text{深}/{}_2\text{深}$)라는 主張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 pp. 212-215의 부채꼴 그림의 比較項 및 바로 위(p. 228)의 설명項을 참조.

○ 통사론적 순서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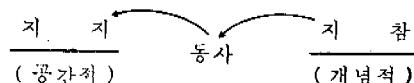


그림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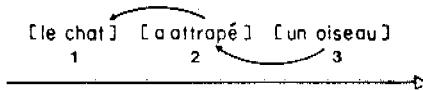


그림 60

p. 85: “주어—동사—목적어” 관계의 통사론적 순서의 그림(*주의 : 그림 59의 주어를 지지(공간적)이라 한 것은 주어는 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명사로서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동사를 지지하고 있음을 말하며, 목적어를 지참(개념적)이라 한 것은 동사를 개념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목적어임을 말한다. 이것은 “主觀적 表記”가 갖는 어휘(=동사)위 주의 어휘(=동사)와 형태(=주어/목적어)의 共存位置의 主張을 반영한다(*앞의 ○통사론의 정의와 관련된 모든 설명 및 그에 관한 정리부분 참조):

◦ 위의 설명(*앞 p. 226의 정리부분에서, “主張하는 表記”(=主觀적 表記)의 公式과 “認定하는 表記”(=客觀적 表記의 公式의 비교에서, (非)서술어, (非)一致, (非)선택/(非)의도라는 개념을 사용한 설명을 참조):

◦ 위의 “주(어)—동(사)—목(적어)” 관계는: 1) 主觀적 表記(=主張하는 表記)의 公式: “₁深—(₁變)→(₂表・₁表→₁#・₂#)—(₂#)→₂#”과, 2) 그와 모양이 같은 客觀적 表記(=認定하는 表記)의 公式으로 정리된다. 이 때 主觀적 表記로서의 “주(=深)—동(=變)—목(=表)” 表記의 특징은, 3)식 形태적 分析적 表記의 公式: “주(₁深)—(₁φ)→(₂동<₂表>・₁동<₁表>)→₂#→목(₂深)”에서 “주(₁深)/목(₂深)이 “동(表)”을一致시키거나 선택・의도하고 있는 것을 “동(表)”이 “주(₁深)/목(₂深)”을一致시키거나 택선・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誤認(=混同)하고 있음을 위 2)의 客觀적 表記(=認定하는 表記)에서처럼 認定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3)식 分析적 表記인 것으로 主張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는 表記이다. 그러므로 이 表記에 있어서는一致, 선택・의도라는 개념은 동사(=서술어)(먼저)가 중심이 되어 주어/목적어(=非서술어)(나중)을一致시키거나 선택・의도한다는 의미에서의一致, 선택의도라는 개념을 갖게 된다. 그것을 주어/목적어(=非서술어)(먼저)가 우선하여 동사(=서술어)(나중)를一致시키거나 선택・의도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一致, 선택・의도는 글자 그대로의 어휘적(=통사론적)인 의미를 갖는다(앞 p. 207의 “모든 것은 통사론이다”項 참조).

◦ 이와 같이 순전히 통사론적(=어휘적) 의미만을 갖는 “주—동—목”表記를, “주—동”과 “동—목”으로 둘로 가르는(=分析하는) 것도 역시 어휘적(=통사론적) 分析에 그친다. 그리고 이러한 分析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VALIN은 이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pp. 85-86:

불어와 같이 격어미를 갖지 않는 언어의 경우, 같은 실사가 동사와의 관계에서 때로는 지지(='주어—동사'의 경우)의 기능을, 때로는 지참(='동사—목적어'의 경우)의 기능을 가질 때, 이와 같은 통사론적 태도를 우리들의 설명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남는다.

외관적으로 구별 안되는 형태=0으로써 특징지어지는 지지(=주어) 및 지참(=목적어)을 그 거부 관계로써 표시하는 해결방법을 택하였다. 이것이 G. Guillaume의 소위 “형태=0”적 격(cas synaptique)의 이론의 내용이다. 앞 그림 14에서 이 적이 차지하는 곳은, 실사의 형태근원(morphogénie)에서, 실사가 품사로 병합되기 이전 즉 초문법적 형태근원(morphogénie transgrammaticale)으로 들어가기 이전 단계이다(*위에서 말한 상호거부관계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주—동관계와 동—목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 필자 요약).

“형태=0”적 격 (cas synaptique) 자체가, 원래 통사론적 (=어휘적) 表記의 테두리 안에서 主張되는 상호거부적 형태인데, 그것을 마치 형태론적 (=형태적) 表記의 테두리 안에서의 分析적 3식 表記에서의 상호거부적 형태라고 主張하는 것은, 主張으로 그칠 뿐, 그 “형태=0”적 격이라는 개념은, 바로 위에서와 같이, 동사 (=서술어) (먼저)가 중심이 되어 주어/ 목적어 (=非서술어) (나중)를 一致시키거나, 선택 · 의도한다는 의미에서의 一致, 선택 · 의 도라는 개념을 나타낼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사론적 (=어휘적) 의미에서의 一致, 선택 · 의 도에 해당하는 것이 곧 위에 나온 바 “주—동—목” 表記의 “지지 (=주)—동”, “동—지참 (=목)”으로의 分析에서의 지지/지참이다. 즉 원래가 主觀적 表記 (=主張하는 表記)인 “주—동—목”을 “지지 (=주)—동”과 “동—지참 (=목)”으로 分析하는 것은, “주—동—목”을 “선택₁ · 의도₁/一致₁ (=주)—동”과 “동—선택₂ · 의도₂/一致₂ (=목)”로 分析하는 것과 같다.

○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지지 (=주)—동—지참 (=목)” 表記에 해당하는 “실사 (=조동사+과거분사와 결합되기 이전의 =본동사와 결합되는, 실사=지지)—조동사 (=중심/核/매듭)—과거분사 (=조동사의 개념적 보충요소=지참)”, “실사 (=전치사+실사의 한정을 받기 이전의 실사=지지)—전치사 (=중심/核/매듭)—실사 (=전치사의 개념적 보충요소=지참)”, 그리고 실사 (=관사와 결합되기 이전의, 관사+실사의 한정을 받기 이전의, 품사단계이전의 실사=지지)—관사 (=중심/核/매듭)—실사 (=관사와 결합된 이 후의, 관사를 개념적으로 보충하는 실사=지참) 表記들도 모두, 그것들을 “지지—(중심/核/매듭)”, “(중심/核/매듭)—지참”으로 分析하는 것은, 통사론적 (=의미적) 테두리 안에서의, 즉 (중심/核/매듭)을 중심 (=먼저)으로 한 그것과 지지/지참 (=나중)과의 共存位置의 表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것을 지지/지참 (=먼저)을 중심으로 한 그것과 (중심/核/매듭) (=나중)과의 表記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참고로 VALIN(1981)의 그림을 아래에 소개한다 (*주의 : 이들 그림은 “지지—(중심/核/매듭)”을 전제로 한 “(중심/核/매듭)—지참”的 그림임에 주의) :

p. 44:

형태 (=지지)	개념 (=지참)
Le	chat
Un	oiseau

그림 13

p. 82:

형태 (지지)	개념 (지참)
조동	파즈동
관사	실사

그림 58

p.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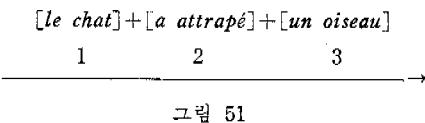
형태 (지지의 위치)	개념 (지참의 위치)
전시사	실사
과사	실사
조증사	분사

그림 61

○ 위에 설명한 바로 뉘터, “주(=지지)—동(=중심/核/매듭)—목(=지참)” 表記의 순서의 문제는 곧 통사론적 (=어휘적) 순서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表記는 원래가 통사론적 (=어휘적) 表記인데 그것을 형태론적 (=형태적) 表記라고 主張하는 表記이기 때문이다. 즉 이 表記에는 오로지 통사론적 (=어휘적) 순서만이 있는 表記이

다. 즉 앞의 VALIN의 예로 돌아가면 다음과 같은 통사론적(=어휘적) 순서 :

p. 79:



만이 있는 표記이며, 통사론 이전 단계의 순서 즉 형태론적 순서를 결한 표記이다.

◦ “문장적 심리운동(=내재적 통사론=주)→논리적 공존(=초월적 통사론=동)→표현적 심리운동(=이중 초월적 통사론=복)”의 표記의 문제 :

◦ 이것은 앞의 통사론적(=어휘적) 표記로서의 “주(=지지)—동(=서술어/核/중심/매듭)—복(=지침)” 표記과 같은 문제에 속한다. 즉 “동”(=核=중심=매듭=서술어)를 중심(=먼저)으로 한 그것과 주(=지지)/복(=지침)(=나중)의 共存位置의 표記을, “주”(=지지)/“복”(=지침)을 중심(=먼저)으로 한 그것과 “동”(=서술어=중심=매듭=核)(=나중)과의 共存位置의 표記라고 主觀적 표記의 참모습을 들어내는 문제이다. 먼저 主張하는 표記(=主觀적 표記)로서의 VALIN의 그림을 소개하고, 다음에 그 그림을 변형시킨 客觀적 표記을 제시하기로 한다 :

p. 47: 통합(le chat)의 (“내재→초월→이중초월”적)도식화(=주관적 표기화=主張하는 표기화) :

(순서)(1) :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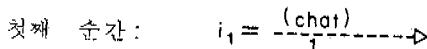


그림 15

* 주의 : 점선 화살표시(….)는 내재적(=문장적 심리)운동을 표시함.

* 어휘(chat)가 출발점이 된 그것과 그에 내재하는 형태(phi)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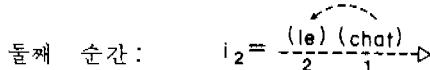


그림 16

* 주의 : 위와 같은 주의.

* 어휘(chat)와 그에 초월하는 형태(le)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

p. 49:



그림 17

* 주의 : 위와 같은 주의.

* 어휘(chat)와 그에 이중초월하는 형태(le)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

* 주의 : 이 상의 첫째/둘째/셋째 순간은, 이 주관적 표기(=主張하는 표기)의 (순서)(I)에 해당함.

(순서)(2):

pp. 4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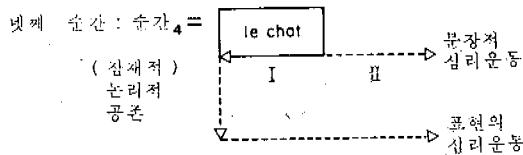


그림 18

* 주의: 위쪽 수평선의 실선(→) 부분은, 통합(le chat)을 출발점으로 한, 그것과 그에 내재하는 형태(=위쪽 수평선의 점선: ...)와의 共存位置의 일부(=출발점)를 나타냄; 수직의 점선(↓)은 위쪽 수평의 실선(→)과 점선(...)에 대하여 초월성을 나타냄; 아래쪽 수평의 점선(...)은 이중초월성을 나타냄.

* 어휘(=통합: le chat)가 출발점이 된, 그것과 그에 내재하는 형태(phi est<있다>)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

* 이 넷째 순간은 (순서)(2)의 첫째(=잠재/내재 단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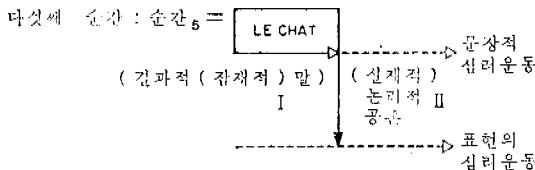


그림 19

* 주의: 위와 같은 주의(단, 수직의 실선(↓)이 중앙으로 이동하고, 위쪽 실선(→)의 방향이 바뀌었음이 다름).

* 어휘(=통합: le chat)와 그에 초월하는 형태(phi est<있다>)와의 共存位置를 나타냄.

* 이 다섯째 순간은 (순서)(2)의 둘째(=실제/초월 단계)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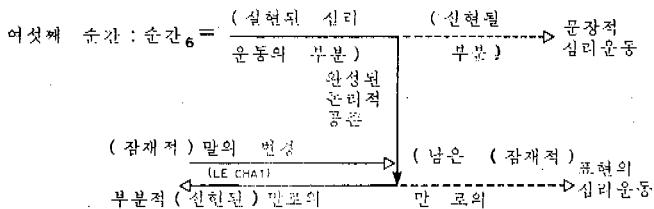


그림 20

* 주의: 위와 같은 주의: 단, 위쪽 실선(→)이, 문장적 심리운동(=내재적 운동)으로 부터 아래쪽의 표현의 심리운동(=이중 초월적 운동)으로 이동하고 동시에 그 방향을 바꾸었음(←)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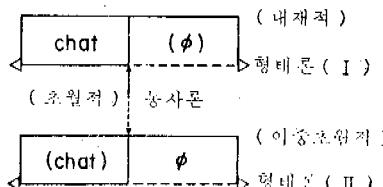
* 위 두 그림의 순간의 並置적(=이중 초월적) 共存位置를 나타냄.

* 이 여섯째 순간은 (순서)(2)의 셋째(=완성/이중 초월) 단계에 해당함.

위 主觀적 表記(=主張하는 表記)의 성격, 즉 “내재→초월→이중 초월”적, 어휘(=통사론) 위 주의, 그것과 형태(=형태론)와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라는 성격을 살펴보면,

되고 위 그림의 모양을 살려서, 통일된 그림으로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주의: 위 그림에서 (순서)(1) 단계를 모두 (순서)(2) 단계의 그림으로 흡수하고, (순서)(2)의 그림에는 없던 아래쪽 수평선에도 위쪽 수평선과 같은 사각형 두개를 그리고, 모든 화살 표시는 異(逆)方向($\leftarrow \rightarrow$)으로 하되, 원쪽 또는 위쪽을 실선($\leftarrow ; \uparrow$) 즉 내재성으로 하고, 오른쪽 또는 밑 부분($\cdots \downarrow$)을 점선 즉 초월성으로서 표시한다; (순서)(2)의 내재적 형태를 (est)<있다>로 잡고, 이중초월적 형태를 est<이다>로 잡은 것은, 명사적 형태로서의 관사(phi)/관사(le)에 비유될 수 있는 동사적 형태: (est)<있다>/est<이다>이기 때문이다):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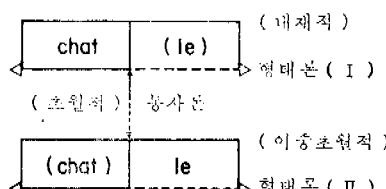


앞의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에서와 같이, 형태론(I)(上)/형태론(II)(下)의 空白(#)의 非分析性을 認定하지 않고, 그것(=#)이 分析적 表記에서와 같이 分析된 것이라고 主張하는 통사론(*뒤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 및 分析적 表記 참조)(*주의: 이 부분은 아래 그림 모두에 해당됨).

* 주의: 괄호()의 유/무는 어휘위주의 내재성/외재성에 해당함.

* 앞 p.215의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3의 (먼저)₁ 및 p.221의 그림 13의 순서(1)의 첫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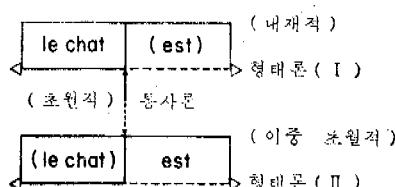
* 형태론(I)/(II)가 내재적/(이중초월적)임에 주의: 分析적 表記에서의 (초월₁적)/(초월₂적)과 요비교.



* 주의: 위와 같은 주의.

* 앞 p.215의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3의 (먼저)₂ 및 p.222의 그림 13의 순서(1)의 둘째 참조.

* 위와 같은 주의.



* 주의: 위와 같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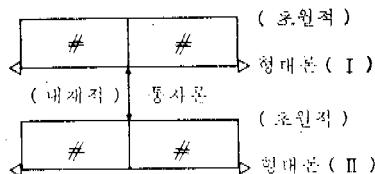
* 앞 p.215의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3의 (나중)₂ 및 p.222의 그림 13의 순서(2) 참조.

* 위와 같은 주의.

다음에는 위 主觀적 表記(=主張하는 表記)를, 分析적 客觀적 表記의 관점에서, 그 非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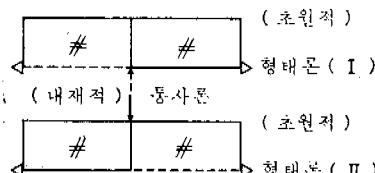
析性을 認定하는 表記로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주의：主觀적 表記의 (순서)(2)는 認定하는 表記의 (순서)(1)이 되고, (순서)(1)은 (순서)(2)가 된다. 그리고 (초월적)형태론(1)/(초월적)형태론(2)의 空白(#)은 그것이 非分析적 空白(#)으로 認定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主觀적 表記의 모든 화살표시가 실선/점선으로 양분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認定하는 表記는, 이 表記의 특징의 출발점으로서의 (순서)(1)(=모두 실선으로 표시)을 제외한 (순서)(2)에서는, 分析적 客觀적 表記에서와 같은 점선/실선의 異(逆)方向적 표시를 했음에 주의；(순서)(2)의 초원적 형태(I)((est)<이다>)/초원적 형태(II)(est<있다>)의 설정은, 그것이 (순서)(1)의 초원적 형태(I)(ϕ)/초원적 형태(II)(le)와 직결된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非分析적 임을 認定하는)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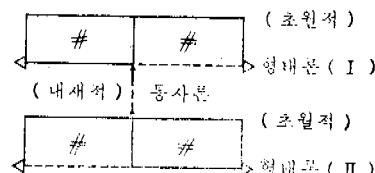
上/下의 형태론(I)/(II)의 空白(#)이 非分析的임을 認定하고, 따라서 어휘(=est<있다>)와 그에 內存하는 형태=est<이다>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임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재적)동사론.

* 주의：앞 p.216의 (非分析임을 認定하는) 그림 8의 (먼저) 및 p.223의 (非分析임을 認定하는) 그림 12의 (순서)(2)의 첫째 및 둘째 참조.



上/下의 형태론(I)/(II)의 空白(#)이 非分析的임을 認定하고, 따라서 어휘(=chat<고양이>)와 그에 內存하는 형태=ϕ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임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재적)동사론.

* 주의：위 주의 사항과 같은 表記의 순서(I)의 첫째 참조；p.216의 그림 8의 (나중), 및 p.223의 그림 12의 (순서)(2)의 첫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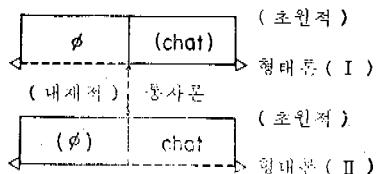


上/下의 형태론(I)/(II)의 空白(#)이 非分析의임을 認定하고, 따라서 어휘(=chat<고양이>)와 그에 內存하는 형태(=le<그>)의 (準)異(逆)direction적 共存位置임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재적)동사론.

* 주의：위 주의 사항과 같은 表記의 순서(I)의 둘째 참조；p.216의 그림 8의 (나중)₂ 및 p.223의 그림 12의 (순서)(2)의 둘째 참조.

끌으로 위 두 표記 즉 主觀적 표記(=主張하는 표記)와 客觀적(=認定하는) 표記의 기준이 되는 分析적 客觀적 표記의 그림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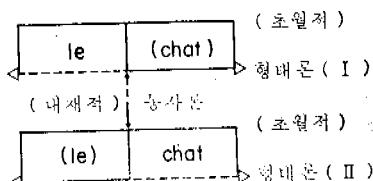
(分析的) 그림 16



上/下의 형태론(I)/(II)에 (의해서) 내재(포괄)하(되)는, 上(I)/下(II)의 並置的 共存位置로서의 (내재적)동사론(*주의: 이 부분은 아래 그림 모두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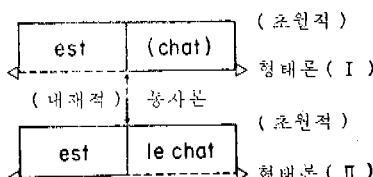
* 주의: 괄호()의 유/무는 형태위주의 내재성/외재성에 해당함.

* 앞 p.215의 分析적 그림 4의 1(먼저) 및 p.223의 그림 9의 (순서)(1)의 첫째 참조.



* 주의: 위와 같은 주의.

* 앞 p.215의 分析적 그림 4의 2(먼저) 및 p.223의 그림 9의 (순서)(1)의 둘째 참조.



* 주의: 위와 같은 주의.

* 앞 p.215의 分析적 그림 4의 (나중) 및 p.224의 그림 9의 (순서)(2) 참조.

* 보충 사항: 앞(p.176)의 위에서 2行(Temps et verbe...) 안에다: Gustave GUILLAUME,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language* (excerpts from the manuscripts translated by) Walter HIRTL & John HEWSO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Philadelphia, 1984, p. 51; pp. 109-110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recueil de textes inédits préparé en collaboration sous la direction de R. VALIN),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Paris, Klineksieck, 1973, p. 93; pp. 185-187) 참조, 를 보충함.

《Résumé》

Linguistique de Position et la Syntaxe**PAK, Hyong-Dal**

Contrairement à ce qui fonde le point de départ de la théori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de Gustave GUILLAUME, i.e., *la position coexistencielle* (*bi-directionnel/hétérogone*) de «matière(=notion)—forme», mise dans l'ordre de 1 à 2, nous voudrions proposer l'ordre inverse de «forme—matière», pour les raisons suivantes:

- 1) la *forme* est par définition une entité fermée, limitée et analysée alors que la *matière* est celle ouverte, illimitée et comme tel non analysable;
- 2) c'est à partir de *la forme analysable* que l'on peut arriver à analyser la *matière* et non vice-versa.

En se fondant sur cette constatation bien simple, cet article vise à préciser les coordonnées de la théori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dans le cadre unificateur suivant:

- 1) la théorie «forme—matière» que nous proposons d'appeler *la représentation analytique formelle objective* (=morphologique) et de représenter comme: $q(_1T \leftrightarrow _2T)$ (q =forme; $(_1T \leftrightarrow _2T)$ =matière);
- 2) le *corollaire* de la théorie 1), qui admet dans la théorie 3) ci-dessous, l'absence de *la représentation analytique formelle* (=morphologique) de la théorie 1) et qui peut se représenter comme: $\#(_1T \leftrightarrow _2T)$ ($\#$:l'absence de q (forme); $(_1T \leftrightarrow _2T)$ =matière);
- 3) la théorie «matière—forme» que nous proposons d'appeler *la représentation non analytique lexicale subjective* (=syntaxique) et qui insiste *subjectivement* sur son caractère *analytique formel objectif* (=morphologique) (=1)) et confond elle-même (=3) avec (1), au lieu d'admettre l'absence de (1). Sa représentation sera: $T(q_1 \leftrightarrow q_2)$ (T =matière; $(q_1 \leftrightarrow q_2)$ =forme).

Si la théorie *psychomécanique* demeure toujours dans (3), elle va continuer son analyse à l'infini dans le cadre *syntaxique* (=lexical) seulement; si elle vise à atteindre à la théorie *morphologique*=(1), laquelle est son but, elle doit réévaluer ses résultats obtenus de telle façon qu'ils soient conformes à la théorie *morphologique*(1).